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과 성격

濟州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

金 竣 杓

2014 年 8 月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과 성격

指導教授 김 석 준

김 준 표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6月

김준표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	상	철
委 員	이	태	원
委 員	서	영	표
委 員	염	미	경
委 員	김	석	준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6月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asino Discourse in Jeju

JunPyo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uk Jo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s

2014.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uk Joon Kim, Prof. of Sociology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초록

이 논문은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과 담론 분석, 카지노 담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배경, 지역사회 선행연구 검토를 이론적 배경으로 시작한다. 연구의 내용은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헤게모니정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성격을 도박 및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의 목적은 공론화를 통한 민주주의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제주에서 카지노 담론은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제주도정은 기업주의 도시전략의 일환으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였고, 카지노업계 및 관광협회, 투자 자본이 가세된 성장연합에 의한 여론 조성과 공론화 기획이 담론의 대부분이다. 성장연합의 헤게모니적 실천은 적극적이었지만 대항헤게모니를 구성할 반성장연합은 구성되지 못하였고 헤게모니적 실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도정은 몇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공감대의 근거로 제시했었으나, 2010년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반대 비율이 높게 나오자 용역 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용역 결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연구자는 여론조사 결과의 찬반 비율에 의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정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론을 구성하는 마지막 부분인 ‘공론화 과정과 민주주의정치’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주주의정치를 가능하게 할 하나의 대안이 제안된다. 민주주의정치를 공론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토론의 단계별 의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주제어: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 담론 분석, 헤게모니정치, 공론장, 민주주의정치

Abstract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asino discourse in Jeju. This thesis is based upon Political Economics, discourse analysis, political economic background to casino discourse, and review of precedent local community research as theoretical resources. This thesis analyzes hegemonic politics appearing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sino discourses of Jeju society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s to social research about Jejuian awareness on gambling and the introduction of casino. The comparison is aimed to search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politics with public discussion.

The casino discourse in Jeju centers on permission for Korean citizens. Jeju Provincial government pushed for Korean citizen-allowed casino instruction on entrepreneurialism of urban government. The discourse covers public opinion created by local growth coalition, which is composed of the casino industry, the tourism association, and investment capital. Hegemonic action of local growth coalition is aggressive but, there is no anti-growth coalition to resist them and hegemonic action of growth coalition were rarely made. Jeju Provincial government showed the results of several survey of public opinion as a social consensus, but because of a high proportion of the disagreement within the survey included in the feasibility study service result in 2010,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didn't reveal the service result. In addition, Jeju Provincial government didn't hold a public hearing for discussion.

I think that it is ignorance of democratic politics to decide a policy depending on the proportion of pros and cons of the survey. This thesis suggests an alternative that can realize democratic politics to form social consensus. It is that the survey result of public opinion should be reorganized to the staging agenda of discussion in order to achieve democratic politics in public arena.

key words: Jeju society, casino discourse, discourse analysis, local growth coalition, hegemonic politics, social consensus, democratic politics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2. 논문의 구성 5
II. 이론적 배경 7
1. 정치경제학과 담론 분석 7
2. 카지노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29
3. 지역사회 선행연구 검토 41
III.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 56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56
2. 분석틀의 구성 61
IV.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정치 분석 64
1. 탈구적 상황과 전략적 선택 64
2. 카지노 담론의 사회적 적대성 70
3. 카지노 담론 전개과정의 헤게모니정치 83
V. 카지노 담론의 성격과 공론화과정 93
1. 카지노 담론의 성격 93
2. 도박 및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 95
3. 공론화과정과 민주주의정치 112
VI. 결론 119
참고문헌 122
〈부록 1〉 연도별 카지노 관련 연구 목록 131
〈부록 2〉 시기별 제민일보 기사 목록 144
〈부록 3〉 1995년도 사회조사실습 설문지 151
〈부록 4〉 2009년도 사회조사실습 설문지 172

표 목차

〈표 1〉 기업주의 도시전략의 유형화 14
〈표 2〉 중앙정부의 단계별 제주지역 개발계획 30
〈표 3〉 지방재정자립도 32
〈표 4〉 역대 도지사선거 선거 구호 35
〈표 5〉 기업주의 도시전략의 유형화와 제주도정의 기업주의 전략 36
〈표 6〉 계기별 카지노 개장의 성격 40
〈표 7〉 카지노 관련 연구의 연도별·주제별 분류 48
〈표 8〉 지역사회 관련 카지노 연구논문 생산건수 49
〈표 9〉 사행산업 관련 법률 52
〈표 10〉 시기 구분에 따른 주요 키워드 및 이슈 요약 54
〈표 11〉 제주지역신문 카지노 관련 사설 목록 57
〈표 12〉 자료의 표본 구성 59
〈표 13〉 1995년 도박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60
〈표 14〉 2009년 도박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60
〈표 15〉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 설문 61
〈표 16〉 카지노 담론의 시기 구분 69
〈표 17〉 카지노사업 확장 추진의 논리 71
〈표 18〉 카지노 도입 찬성 입장의 사설 72
〈표 19〉 카지노사업 확장 반대의 논리 77
〈표 20〉 카지노 도입 반대 입장의 사설 78
〈표 21〉 도박에 대한 인식의 요인 행렬표(1995년 조사) 96
〈표 22〉 도박에 대한 인식의 요인 행렬표(2009년 조사) 97
〈표 23〉 도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98
〈표 24〉 도박의 법적 금지 및 처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99
〈표 25〉 카지노 영향의 요인분석 결과 100

〈표 26〉 카지노의 사회·문화적 영향 신뢰도 분석 101
〈표 27〉 카지노의 경제적 영향 신뢰도 분석 101
〈표 28〉 카지노의 영향 상관관계 분석 102
〈표 29〉 성별에 따른 카지노의 기대효과 회귀분석 결과 103
〈표 30〉 카지노 도입 허용 여부에 따른 카지노의 기대효과 중다회귀분석 104
〈표 31〉 카지노 도입 허용 찬성 입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 항목의 영향 정도 ...	105
〈표 32〉 카지노 도입 허용 찬성 입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항목의 영향 정도 ...	107
〈표 33〉 카지노 도입 허용 반대 입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항목의 영향 정도 ...	109
〈표 34〉 카지노 도입 허용 반대 입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 항목의 영향 정도 ...	110
〈표 35〉 카지노 도입의 허용에 대한 찬반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111

그림 목차

〈그림 1〉 지역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공간과 헤게모니정치 62
〈그림 2〉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정치 가능성 116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주지역에서 카지노사업의 확장¹⁾은 2000년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카지노 추가 허용 검토 발언²⁾ 이후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카지노사업 추가 허용 관련 법령은 1994년 8월, 외국인을 위한 카지노 개장을 허용하는 ‘관광촉진법’이 발효되면서부터이다.³⁾ 1994년 관광촉진법으로 카지노사업의 추가 허용이 법제화되고, 1995년부터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다. 2000년 10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고한 지역에 국내 최초로 내국인까지 출입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하였다.⁴⁾ 강원도의 카지노 개장은 한국 정부의 관광산

-
- 1) 이 논문에서 카지노사업의 확장은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내국인까지 출입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카지노 담론에서 카지노사업의 확장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지역사회의 카지노 담론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의 개장 허용을 둘러싼 것으로, 내국인 출입 허용, 내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등으로 표현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 아니라 내국인을 겨냥한 관광산업의 확장을 꾀하는 관광업계의 경제발전 논리라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내국인 전용 또는 관광객 전용 등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일반적인 카지노사업 확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서 기존 용어들을 인용할 경우는 표현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당시 한국카지노협회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였다(제민일보, 2000년 2월 4일). 한국카지노협회의 논의와 건의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발언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 3) 1994년 관광촉진법 제정 이전 국내에는 1967년 8월에 최초 개장한 인천의 올림푸스 카지노를 비롯한 12개소의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5개소의 카지노가 추가로 개장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관광촉진법 이전에 7개소이고, 그 이후에 1개소이다.
 - 4)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금하는 법조항은 군사정권의 도덕성을 치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1969년에 임시조치로 시행되었다가 1975년에 법제화된다(김석준, 2006: 154). 그 이전에는 내국인 출입 금지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975년 ‘관광진흥법’에서 기허가된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업 합리화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특별법 제정 운동의 결과이다. 탄광산업 합리화 정책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산업화의 에너지 기반이었던 탄광산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며, 지역사회의 특별법 제정 운동은 주민 생존권을 이유로 대체 산업의 개발을 요구한 것이었다⁵⁾(원기준, 2005: 114-140).

제주지역에 카지노가 등장한 것은 1975년 10월이다. 칼호텔에서 영업을 시작한 제주지역 최초의 카지노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요정과 함께 외화획득의 첨병으로 홍보되었고, 중문관광단지가 개발되면서 제주하얏트호텔에 두 번째의 카지노가 1984년 개장하였다(김석준·황석규, 2006: 8). 카지노와 같은 합법적 도박을 국제적 관광지화를 겨냥한 제주지역 개발전략의 한 축으로 삼으려는 국가의 의도에 의해(김석준·황석규, 2006:8), 1994년 관광촉진법 발효 이전인 1991년까지 7개소의 카지노가 개장하였고⁶⁾, 관광촉진법 발효 직후인 1995년 12월에 해외 자본에 의한 트로피카나 카지노 1개소가 개장하였다.

제주지역에서는 한국 사회가 IMF 구제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 위기가 노출되었던 1997년 이후 내국인을 포함하는 카지노 개장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제주지역의 카지노는 관광산업을 통해 국내 산업의 자본주의 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초기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일종의 외자 유치 전략이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가 개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카지노사업을 통해 세수 증대를 노리는 제주도정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만성적 적자를 내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 허용을 통해 돌파해보려는 카지노사업자들과 관광업계이다. 이

5) 한국 사회의 국가 주도 발전 전략에서, 강원 지역의 탄광산업이 인클루저 기능을 담당하였다면, 제주지역의 카지노사업은 외자 유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가 주도 산업화의 근간이었던 탄광산업 포기에 대한 강원 지역사회의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운동은 강원 지역사회 내부에서 대체 산업을 통해 자본 축적 구조의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였다. 제주지역사회의 카지노사업 확장 논의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 축적 구조의 전환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카지노사업의 만성적 적자 속에서 카지노사업 확장을 통해 자본 축적 구조의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다. 강원 지역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대체 산업으로 나타났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산업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6) 1975년 10월 칼호텔 카지노(현재의 라마다호텔 카지노)가 개장하였고, 1985년 4월에 롯데호텔 카지노가 개장하였으며, 1990년에 파라디스그랜드 카지노, 크라운프라자 카지노, 하얏트호텔 카지노, 제주오리엔탈호텔 카지노가 각각 개장하였다. 1991년에는 신라호텔 카지노가 개장하였다.

들은 2010년 이후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을 제기하며 카지노사업 확장 요구의 주체로 등장한다.

제주지역의 카지노사업 확장과 관련된 담론은 주로 지방정부의 의지와 선거공약 형태로 제기되었으며, 치열한 논쟁을 거치지 못하고 여론 조성 형태로만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카지노사업 확장을 둘러싼 찬반 담론들과 주요 행위 주체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2000년에서 2012년에 이르러 제주사회에서 생산된 카지노사업 확장에 대한 담론들이 분석 대상이다.

사회는 일정 인구가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역사회⁷⁾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홍동식·박대식, 1985: 23). 그러므로 제주를 하나의 지역사회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제주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인구 집단을 가리킨다. 한 사회의 경제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지리적 공간 안에서 사회 집단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는 내부적 경제활동으로, 대체로 전자본주의적 경제활동⁸⁾이 추가된다. 다른 하나는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본주의적 시장 공간으로 편입되어 외부 자본이 유입되거나 내부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자본 축적 구조에 종속되는 경제활동으로, 이 때 한 사회의 경제활동은 자본주의적 발전(global capitalism)을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 된다.

마찬가지로 제주사회의 경제활동 영역 또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된다. 제주 지역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영역과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과 함께 한국 경제 체제에 편입되어 자본 축적 구조에 종속된 장으로서의 영역이 그것이다. 제

7) 홍동식과 박대식은 포플린(Dennis E. Poplin)의 *COMMUNITIES - A Stud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를 편역하면서 'community' 를 '지역사회' 로 번역하였다. 홍동식과 박대식은 'community' 를 보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동체' 로 번역하지 않고, '지역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라는 의미에서 '지역사회' 로 번역한다고 하였다(홍동식·박대식, 1985: 16).

8) 이 연구에서는 전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라는 용어를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자급자족 상태에서의 호혜적 경제활동과 외부와의 교류가 있으면서 그것이 외부의 제국주의적 확장에 따른 편입과 수탈을 내용으로 하는 재분배적 경제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제주사회의 경우, 고려의 지방관이 제주에 들어 오고 고려 조정에서 세를 징발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호혜적 경제활동과 재분배적 경제활동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주지역 내부의 경제활동은 주로 농경(agriculture)을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의 전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였으나 제주가 한국 사회의 경제활동 영역에 편입되면서 제주지역 경제는 한국 사회의 자본 축적 순환 구조에 종속된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게 된다. 이상철(2003a)에 따르면, 한국 사회 성장 정책의 일환과 그 논리에 따라 추진된 모든 제주도 개발 정책의 내용과 방식은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생적 지역 개발 정책이었다(이상철, 2003a: 23).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채택한 명분은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속에서 제주지역은 위로부터 개발 방향이 설정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제주는 한국의 경제발전 구조 하에 감귤 등의 환금 작물 재배 산업에 주력하였다. 과거 감귤 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지역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상황은 달라진다. 한미 FTA 제주협상이 진행되던 2006년 이후 제주사회의 경제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카지노사업의 확장이라는 선택지가 부상하게 된다. 이는 이 연구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주지역사회 신문 보도 내용과 1995년과 2009년에 실시되었던 도박 및 카지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신문 자료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인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의 사설과 제민일보의 카지노 관련 기사들이다. 이외에 2010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카지노사업 확장을 둘러싼 지역 행위 주체들의 담론 분석과 도박과 카지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카지노를 둘러싼 지역정치 과정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카지노사업 확장이라는 선택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정치경제학적 공간 이론과 지역정치의 기업주의화 전략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제주라는 시·공간적인 좌표 위에서 진행되어온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정당성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논문의 구성

이 논문에서는 담론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정치경제학과 담론 분석 이론, 카지노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정치경제학과 담론 분석 이론으로는 세계 체계 분석과 공간의 정치경제학, 지역정치의 기업주의화 전략과 정당성 위기, 그리고 담론 분석과 헤게모니정치 등이 검토된다. 카지노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으로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과 제주사회, 지방자치제와 지역정치의 기업주의화, 그리고 카지노 담론의 등장과정이 다루어질 것이다. 지역사회 관련 선행 연구는 지역사회의 개념과 접근 방법, 지역사회의 성장정치와 카지노 관련 선행 연구들이 검토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분석틀을 구성하는데, 정치경제학적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분석과 헤게모니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틀이 제시된다. <그림 1> 지역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공간과 헤게모니 정치가 그것이다.

4장에서는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을 짚어나가면서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정치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성격과 공론화과정을 분석한다. 4장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정치 분석은 카지노가 전략적 선택지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찬반 담론이 전개되는 사회적 적대 및 시기별로 구성되는 헤게모니정치가 주내용이 될 것이다. 제주사회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된 카지노사업 확장 담론을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의 사설들과 제민일보의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카지노 담론의 사회적 적대가 헤게모니정치로 작동되는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탐색한다. 5장 카지노 담론의 성격과 공론화과정은 1995년과 2009년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사회조사실습 수업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박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과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담론적 실천과 연결시켜 분석될 것이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카지노사업 확장 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도민 공감대라는 공론화과정이 의미 있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져보고 아울러 민주주의정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6장은 이 연구의 결

론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론장 기능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대항체계모니 기획을 통한 급진민주주의의 실천적 주체 형성을 요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치경제학과 담론 분석

1) 세계 체계 분석과 공간의 정치경제학

월러스틴(Immanuel Maurice Wallerstein, 2005/2004)은 민족 국가 단위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과 학문들의 분석이 1970년대 이후 세계 체계 단위의 분석으로 확장되면서 통합된 사회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월러스틴, 2005: 17-48). 월러스틴은 세계 체계를 분석 단위로 설정했는데, 그는 세계 체계를 단일 체계로서 설정해 지구상의 어떠한 사회도 이 세계 체계의 일부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월러스틴은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핵심부적 생산 과정과 주변부적 생산 과정간의 기축적 분업(axial division of labor)에 의해 하나의 세계로 인식되었고, 이 분업으로 인해 핵심부적 생산 과정에 연루된 이들이 이득을 보는 불평등 교환이 나타났으며, 핵심부-주변부는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관계적 개념이기에 생산과정의 상대적 독점화 정도와 독점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월러스틴, 2005: 51). 시장 상황에서 독점은 하나의 헤게모니로 등장한다. 독점에서 배제된 세력들(기업, 국가 등)은 다수의 목소리로 자유경쟁 시장을 요구하지만 그 중 누군가가 독점적 지위에 올라서게 되면, 자유경쟁 이데올로기는 약자에 대한 무장 해제의 요구로만 사용된다(백승욱, 2006: 192).

헤게모니에 대해, 월러스틴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고, 아리기(Giovanni Arrighi)는 지도력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백승욱, 2006: 209). 월러스틴에 따르면, 생산, 상업, 금융, 군사력 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국가가 일정 기간 그 우위를 지속하는데, 네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효율성의 우위를 점

하게 되는 시기에 국가간 체계에서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게 된다(백승욱, 2006: 277). 아리기에 따르면, 헤게모니의 핵심은 헤게모니 국가의 이익을 전체 국가의 보편적 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 이익이라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자신이 가는 발전의 길로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선점에 있다(백승욱, 2006: 278). 그러나 아리기가 헤게모니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매개로 헤게모니를 향해 경쟁하는 거대 자본들이고, 자본 축적의 작동 방식이다(백승욱, 2006: 279-81). 세계 각 지역별로 생산이 진행되는 방식에 다양한 형태의 생산 양식이 혼재할 수 있지만, 축적 양식은 끝없는 자본 축적을 내적 동학으로 갖는 역사적 체계로 일관되게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아리기는 체계적 축적 순환의 두 국면을 실물적 팽창과 금융적 팽창으로 구분한다. 실물적 팽창 시기에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는 것은 이윤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윤율이 금융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실물적 팽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 및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수익성의 하락, 임금의 상승, 토지 비용의 증가, 국가간 체계에서의 체제 유지 비용 상승, 후발 주자의 추격 등이 초래되어 이윤율이 점차 하락하여 금융수익률과 같아지는 지점이 오고 결국 금융 수익률이 이윤율보다 높게 되면서 금융적 팽창이 시작되게 된다.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한국 사회의 구제 금융 위기도 이러한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백승욱, 2006: 283-87).

아리기의 분석에 기대어보면, 한국사회의 외환 위기인 1997년⁹⁾은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 축적 구조가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적 팽창은 국제 화폐 체계의 불안정성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다. 스트레인지(Susan Strange, 1986, 1998)와 헬라이너(Eric Helleiner, 1994)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 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한 것이 이른바 금융 세계화의 본질이다(윤소영, 1999: 17). 스트레인지는 외환시장의 문제들이 재정적인 무질서와 불확실

9) 제주지역사회에서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초래한 외환 위기의 영향은 2-3년 이후에야 체감되었다.

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화의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마치 카지노장의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배팅과 같다는 점에서 카지노 자본주의라 (Casino Capitalism)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스트레인지, 1986: 6). 이 연구에서는 금융적 팽창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카지노를 주목한다.¹⁰⁾

금융적 팽창이란 본질적으로 화폐를 상품화하여 화폐를 파는 것이다. 화폐를 사려는 수요의 존재가 전제 조건이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 자본은 파생적으로 화폐를 상품화하여 공급하게 된다. 카지노사업은 화폐를 주고 화폐를 사려는 수요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의 충족을 위해 카지노라는 공간을 공급한다. 화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카지노라는 공간에서 수요와 공급의 주체들이 극도로 불확실한 이익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금융 거래와 다르다면 다르다. 자본을 유동화하여 양의 이익률을 두고 거래하는 금융 거래와 자본을 침화하여 불확실한 이익률을 두고 거래하는 카지노는 스트레인지가 금융적 팽창 국면의 자본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닮아있다.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금융 자본주의의 파행적이고 투기적인 축적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카지노사업의 합법화 내지는 정당화가 진행되면서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금융적 팽창 국면에 나타나는 카지노사업 확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 역시 중앙정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주도의 카지노 개장에 대한 비판 담론을 희석시킨 측면이 있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논리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한국관광공사 카지노 개장에 대한 비판 담론을 봉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최병두(1997)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1982)를 소개하면서 『자본의 한계』의 이론적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본은 일차적으로 상품 생산 과정을 통해 순환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위기의 대파국(즉 공황)으로 몰고 가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하비는 이 모

10) 주식 시장, 화폐 시장과 함께 카지노는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아닌 게임 과정을 통해 화폐 자체가 자본으로 축적되는 공간이다.

순을 ‘위기의 1차 국면’ 으로 이론화했다. 그러나 자본은 이러한 위기를 회피 또는 극복하기 위해 고정 자본과 소비 기금의 형성으로 나아가고, 잉여 자본은 현재 사용보다 미래 사용을 지향하는 새로운 순환 형태들의 창출을 통해 흡수된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신용 체계의 발달과 금융 자본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금융 공황과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위기의 제2차 국면’ 으로 나아가게 된다. 공간 영역에서의 건조 환경의 재편성, 즉 하비가 명명한 ‘공간적 조정(spatial fix)’ 은 이와 같은 금융 자본의 확대로 초래될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로, 미래 지대를 전유하기 위해 ‘이자 낚는 자본’ 이 토지 시장에 투입되며, 지리적 불균등 발전은 자본과 노동의 지리적 이동성과 자본 순환을 위한 물적 토대의 재편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조정은 공간 재편 과정에서 물적 토대의 ‘감가(devaluation)’ 를 초래하는 ‘위기의 제3차 국면’ 을 형성하게 된다.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전세계적 확대는 종국적으로 이러한 공간적 조정에 의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의 심화가 세계적 무역에서 제국주의적 팽창과 제국들 간의 전쟁으로 종결되도록 한다(최병두, 1997: 98).

아리기가 축적 순환을 두 국면으로 나누고, 실물적 팽창과 금융적 팽창을 통한 자본 축적을 설명하였다면, 하비에게는 공간적 조정이 덧붙여 있었던 셈이다. 변증법적 관점에서 공간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하비(1996)는 (장소나 환경을 포함하여) 공간이 인간의 실천을 통해 생산되고 재현된다는 점에서, 인간과 분리된 자연 또는 환경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항상 인간 생활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가치화되고 재생산되며, ‘자연의 지배’ 라는 논제의 의미가 규범적으로 이해되게 된다고 주장한다.(데이비드 하비, 1996; 최병두, 1997: 100)

하비(1973)는 공간을 3가지 유형인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련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는데, 절대적 공간이란 사물과 분리된 공간 그 자체이고, 상대적 공간이란 사물의 개체들이 위치지어져 있는 공간이며, 관련적 공간이란 사물들이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이들 간의 관련성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관련성으로 형성된 공간을 의미한다(데이비드 하비, 1973; 최병두, 1996: 210).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개념에 대한

하비(1982)의 논의는 생산과 소비 간의 공간적 분리에 내재된 모순의 지적에서 출발하여, 자본 순환을 촉진시키는 건조 환경(고정 자본과 소비 기금), 지대문제를 유발하는 토지, 경제적 활동들의 공간 편성, 특히 자본의 공간적 이동성과 고정 자본의 장소 특정성, 그리고 자본 축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공간적 조정’, 자본주의의 세계 공간 경제와 지역 동맹 등으로 발전된다(최병두, 1996: 211). 특히 자본의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공간적 조정’은 모순 경향적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다시 정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리적 팽창과 지리적 불균등 발전을 의미하는데, 하비(1982)는 여기에서 불균등 발전의 지리학을 공황 이론에 통합시킨 공황론의 제3차 국면을 설명한다(최병두, 1996: 225).

하비와 최병두를 따라 공간을 이해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모순 경향적 자본주의가 위기적 국면을 타개하려는 축적 전략에 따라 재배치되는 공간이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실물적 팽창이 전개되었던 시기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1990년대 후반 IMF 구제 금융을 초래한 외환 위기라는 위기적 국면을 전후하여 금융적 팽창이 실물적 팽창과 맞물려 전개되었고, 동시에 자본의 축적 순환을 위한 공간적 재배치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석탄합리화 정책을 비롯한 일련의 산업 재배치 및 특별 경제 구역 등의 전략이 지방화 명분과의 전략적 관계를 통해 자본의 축적 순환을 위한 관련적 공간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금융적 팽창의 한 측면을 담당하는 카지노는 실물적 팽창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탄광을 대체하여 강원랜드라는 축적 공간의 재배치를 이루어냈다.

2) 지역정치의 기업주의화 전략과 정당성 위기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한국 사회는 실물적 팽창을 통해 자본 축적의 순환을 이루어왔으나, 실물적 팽창의 위기적 국면에 이르러 국가는 신자유주의화를 자본 축적의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실물적 팽창 시기의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은 1987년

의 민주화 물결에 이은 1991년 지방 의회 선거, 1995년 지방자치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공식적인 지역정치의 장이 마련되었다. 1995년 이후 지역정치는 세계화 이슈와 맞물려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표방하며 경제 성장과 지역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노정되었다. 최병두(2007)는 이러한 경향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도시나 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국내외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지역 발전 추진이 마치 지방정치의 역량인 것처럼 간주되었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논리에 따른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주의적 기능으로 지역정치가 전환되었다는 것이다(최병두, 2007: 107).

하비(1989)에 의하면, 기업주의는 지방 개발과 고용 성장을 장려하는 도시 거버넌스 양식으로 정의된다. 최병두(2007)는 하비(1989)의 볼티모어 연구 사례에서 포착한 기업주의 도시의 세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하비, 1989; 최병두, 2007: 110).

첫째, 새로운 기업주의는 외부 기금, 새로운 직접 투자 또는 새로운 고용원을 유치하기 위해 전통적 부스터리즘(boosterism)을 지방정부의 권력 이용과 통합시키는 ‘공사 파트너십’의 사고를 가진다.

둘째, 공사 파트너십의 활동은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된 개발과는 달리, 집행과 설계에서 투기적이며, 이러한 투기와 결부된 모든 난점과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기업주의적이다.

셋째, 기업주의는 특정한 통치 권역 내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경제 계획(주택, 교육 등)과 관련된 영역(territory)의 정치경제에 보다 집중한다.

최병두(2007)에 따르면, 도시의 기업주의화 촉발 원인을 탐색한 제습(1989)의 연구 결과에서 첫 번째의 주요 요인은 불균등 경제발전 문제와 정부의 재정 위기이다(Jessop, B., 1998; Hall, T. and Hubbard, P.(eds), 1998: 77-99). 그 결과 역내외 자원의 적극적 동원을 통해 발전을 촉진하는 ‘기업주의 도시’의 등장을 가져왔

다는 것이다. 불균등 경제발전 문제와 정부의 재정 위기와 같은 도시의 복합적·다차원적 위기의 경향이라는 첫 번째 요인에 이어 두 번째 요인으로는 세계화 과정에서 국민 국가의 위상 약화로 도시가 경제적 및 정치적 활동을 조직함에서 보다 유의한 결절점이 되도록 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세계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다규모적(multi-scalar)이며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 간 및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주의 전략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방안으로 간주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최병두 2007: 113).

불균등 경제발전과 재정 위기는 제주지역사회에서도 도시 기업주의화 경향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제주지역사회는 철저하게 자본 획득 특히 외화 벌이의 도구가 되면서 불균등 경제발전의 지역 불평등이 야기되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불균등 발전의 결과로 인한 재정 위기로 경제적으로 종속적 상황에 놓임으로써 지방자립도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어느 지역사회나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중앙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자구책 마련으로 기업주의 도시화 전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중앙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모순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최병두(2007)는 하비(1989)와 제습(1989)의 기업주의 도시전략을 비교하여 도시 공간의 생산과 소비라는 축과 요소들의 동원 방식이라는 축으로 기업주의 도시전략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기업주의 도시의 생산 공간과 소비 공간은 새로 창출 또는 재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동원되는 요소들은 내생적으로 동원되는 새로운 배합과 외생적으로 동원되는 새로운 투입으로 나타난다. 먼저 기업주의 도시는 새로운 생산 공간을 창출 또는 재편하기 위해 자원 및 입지를 활용하거나 추가 확보하여 주어진 요소들을 활성화하고, 민영화 등을 통해 새로운 배합을 실시한다. 새로운 생산 공간 창출·재편을 위한 내생적 동원이다. 다음으로 기업주의 도시는 새로운 생산 공간을 창출 또는 재편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자원 확보와 역외 자본 및 기술 유치 등의 전략을 통해 도시 공간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한다. 새로운 생산 공간 창출·재편을 위한 외생적 동원이다. 그리고 기업주의 도시는 새로운 소비 공간 창출 또는 재편하기 위해 토지 이용을 고밀화하고 기존 입지 특성을 강화하여 주어진 요

소들을 활성화하거나 추가 확보를 통해 새로운 배합을 실시한다. 새로운 소비 공간 창출·재편을 위한 내생적 동원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주의 도시는 새로운 소비 공간을 창출 또는 재편하기 위해 도시 공간의 소비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인 오락, 문화 예술, 지식 창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 이벤트, 비엔날레, 오페라 하우스, 컨벤션 센터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새로운 소비 공간 창출·재편을 위한 외생적 동원이다.

〈표 1〉 기업주의 도시전략의 유형화

		도시 공간	
		새로운 생산공간 창출 또는 재편	새로운 소비공간 창출 또는 재편
요 소	내생적 동원 (새로운 배합)	① 주어진 요소들(추가 확보 포함)의 활성화(자원 및 입지 활용) 또는 새로운 '배합' (특히 민영화)을 통해 도시 생산 공간의 새로운 창출 또는 재편	③ 주어진 요소들(추가 확보 포함)의 활성화(토지이용 고밀화, 기존 입지 특성의 강화 등) 또는 새로운 '배합' 을 통해 도시 소비 공간의 새로운 창출 또는 분화
	외생적 동원 (새로운 투입)	② 도시 공간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특히 자본,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역외 자본 및 기술 유치 등)	④ 도시 공간의 소비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오락, 문화 예술, 지식창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스포츠 이벤트, 비엔날레, 오페라 하우스, 컨벤션센터 등)

* 자료: 최병두, 2007: 119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주의화 전략은 국가의 신자유주의화에 조응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정치 공간에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화를 추진하는 성장연합과 이에 반대하는 진영으로 나뉘어 지역 개발 사안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최병두(2009)는 신자유주의화를 자본 계급의 권력 획득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신자유주의화의 정치경제적 특성이 가치의 창출보다는 재분배에 있다는 점에서 '탈취에 의한 축적' 이라고 진단한다(최병두, 2009: 30).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두 진영의 구분은 지역 공간의 실제 상황에서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는다. 지역 공간은 보다 복잡한 사회적 관계들로 얽혀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정치적 이해 관계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박배균(2009)은 장소(place), 영역(territory), 스케일(scale), 네트워크(network)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분석하였고(박배균, 2009: 616-634), 이해진(2012)은 4대강 사업에서 포착되는 지역 개발의 정치를 분석한 바 있다(이해진, 2012: 51-87). 사회 공간적 관계의 구조화 이론은 사회 공간적 관계의 차원을 영역(territory), 장소(place), 스케일(scale), 네트워크(network)라는 네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조화 원리로 경계짓기와 구획하기, 근접성과 공간적 배태 그리고 지역적 차별화, 위계화와 수직적 차별화,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횡단적·리즘적 분화를 제시한다(제습, 2008: 393; 박배균, 2009: 624; 이해진, 2012: 60).

이해진(2012)은 4대강 개발이라는 국가 프로젝트의 공간적 선택성이 한국의 부동산 및 토건 자본의 이해와 부합되는 토건 국가의 축적 전략이자 토건 동맹 세력과 결탁하여 지배 헤게모니의 위기를 태개하려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이해진, 2012: 62). 이해진(2012)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서 영역화의 지역 개발 정치는 지역정치인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의 이해를 조직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지역 개발을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하면서 4대강 개발사업의 실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해진, 2012: 72-74). 이명박 정부 초기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표방한 것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개발 동맹 세력들의 불만과 저항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 지역적 차원에서 운하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영역화된 개발 정치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킹의 작동 사례는 토건 국가의 전위 부대라 할 수 있는 개발공사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사업지의 조달 및 주관 공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기득권 언론들이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토건업에 친화적인 뉴스와 논리를 제공하였던 것에서 나타난다. 이해진(2012)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사업이 국가와 지역간 토건 세력들의 종단적 결합과 상호작용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간 토건 연합의 횡단적 합종연횡을 심화시킬 것으로 진단하였다(이해진, 2012: 76-78). 제습의 전략 관계적 접근을 공간으로 확대시켜 국가의 스케일적 선택성(state scalar selectivity)을 정치적 전략의 표현이자, 매개체이고, 결과로 이해하는 브레너(Neil Brenner, 2009)를 따라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개발 정치의 스케일이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변형되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 국가 체제가 위기 조절을 위해 건설 대기업 자본, 지역 토호, 민간 부동산 계급 등 토건 세력들과의 이해가 결합된 4대강 개발사업을 국가의 조절 능력이나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선택하여 4대강사업을 지역의 이해와 맞물린 지역개발사업으로 토건 국가의 공간 전략을 재규모화(rescaling)하였다는 것이다(이해진, 2012: 79-80).

따라서 이해진(2012)은 4대강 사업이 4대강의 수질 개선이나 홍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천 유역 공간을 관광 레저 시설화하고 인접 도시를 개발 공간으로 장소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대강사업의 지역 개발 정치가 장소화되는 사례의 하나로 대구·경북지역의 ‘에코-워터 폴리스(Eco-water-polis)’ 개발사업 구상, 경북 북부 지역의 생태 도시화 전략, 낙동강 유역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을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천 유역을 지역 개발과 토건 사업이 가능한 장소로 재편하는 데 있는 사회 공간적 전략이라고 하였다.

4대강 개발사업이 기존의 사회 공간적 관계를 친토건 자본주의적으로 재편하고, 토건지향적 국가의 경향성을 강화하면서 개발주의를 심화, 확대하는 개발 정치의 과정을 분석한 이해진(2012)은 토건 세력과 결합된 토건 국가의 경로의존성을 해체하기 위해 반토건연합의 세력화가 요구된다고 주문한다(이해진, 2012: 84). 개발 프로젝트에 저항 헤게모니의 구축이 시민사회의 담론투쟁과 여론형성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이 스스로 토건주의적 개발을 거부하고 공공성이 보장된 개발을 지향하도록 조직화하는 것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박배균(2012)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방법론으로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인식론과 함께, 국가

에 대한 전략관계론적 접근과 국가공간론을 제시한다(박배균, 2012: 923-933). 박배균(2012)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격차와 양극화 심화 그리고 정체 지역의 성장 동력 부재에서 비롯된다(박배균, 2012: 9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역 문제 분석들이 국가 스케일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론화의 왜곡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박배균, 2012: 924). 4대강 개발사업, 세종시 문제, 영남 신공항 입지, 과학 벨트 건설 등의 국가 개발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이 지역 간 갈등과 국가-지역 간 갈등이라는 점에서, 국책 사업을 둘러싼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곧 국가 행위의 공간성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박배균, 2012: 926). 제습은 전략 관계적 국가이론에서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제습, 1990; 박배균, 2012: 926)

제주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주의화 전략이 본격화된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국면에 이르러서이다. 1998년 처음 건의되어 2001년에 기본 계획을 갖춘 후 2002년 1월에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이다. 2002년 5월에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관광·교육·의료·첨단 등 핵심 및 전략 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공공 개발사업자 및 투자 유치 전문 기관’¹¹⁾으로 센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Jeju Free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er)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산하 기관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제주 다판다 센터(Jeju Dapanda Center)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지방 선거의 주요 공약들과 도정의 치적 홍보 내용들이 경제발전과 투자 유치 실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사실에서도 제주지역사회에 기업주의화 전략이 설득되고 있음을 확인할

1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중앙정부인 한국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개발기획에 따라 제주지역을 특화하려는 공간 배치 전략에 따른 프로젝트로 이해될 수 있다.

수 있다.

제주사회에서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주체는 JDC와 제주개발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 JDC는 중앙정부의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제주 개발에 대한 국가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기구이며, 제주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주의화 전략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업주의적 전략을 관철시키고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이른바 여론이다. 여론이란 하나의 주제를 둘러싼 담론적 실천과 민주주의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장이다. 이 연구에서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을 분석하려는 것은 카지노담론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기업주의 전략과 지방정부의 기업주의 전략 그리고 제주지역의 카지노업계의 자본축적 전략이 충돌하는 양상을 살피기 위함이기도 하다.

기업주의적 입장에서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론 조성은 공론을 모은다는 명분하에 정책에 반대하는 담론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정치의 실종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정치의 실종이라는 상황이 단순히 정부의 기업주의적 경향성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말해주듯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탈정치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프레이저(Nancy Fraser, 2008)는 탈정치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공론장 이론을 재정치화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며,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94)가 베스트팔렌적 근대 국가 내에서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데에 공헌하였으나, 탈국민국가적 상황에서 베스트탈렌적 틀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프레이저가 제기하는 문제는 공론장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성찰이다. 프레이저(2008)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대한 비판의 두 흐름은 정당성 비판과 유효성 비판이었다. 첫 번째 흐름은 시민사회 내부의 관계들에 주목하여 공중의 구성원 개개인이 공적인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할 능력을 박탈하는 체계적 장애물의 존재사실을 은폐했다는 공론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공론의 정당성 비판은 원칙적으로는 포용하면서 실제로는 배

제하거나 주변화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루어졌다. 소수자의 실제적인 평등한 참여가 공론으로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두 번째 흐름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주목하여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의 정치적 힘을 박탈하는 체계적 장애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공론장 이론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유효성 비판은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권력이 국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적 힘들을 이론적으로 포착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권력과 공고한 관료적 이해관계 각각이 가지는 역할들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힘으로서의 공론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프레이저, 2008: 143-45).

프레이저(2008)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대한 정당성 비판과 유효성 비판이 하버마스가 전제하고 있는 베스트팔렌적 틀을 문제 삼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기에, 동일한 전제 위에서 공론을 정당성의 측면과 유효성의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프레이저, 2008: 146). 프레이저(2008)가 고민하는 문제는 공론장의 초국적화 즉 탈베스트팔렌적 세계에 관한 것이다. 달라진 환경에서도 공론의 정당성과 유효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할 공론장 이론의 가능성을 짚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폐기하자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베스트팔렌적 시기의 공론장 개념이 가졌던 비판적 힘을 구성했던 핵심적인 두 측면인 공론의 규범적 정당성과 정치적 유효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프레이저(2008)의 해법은 정당성 문제의 경우 포용성의 정도와 포용성이 동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유효성 문제의 경우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의사소통 권력이 구속력있는 법률로 그리고 행정권력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번역(translation) 조건과 토론을 통해서 형성된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공적 권력의 응답의지, 즉 능력(capacity) 조건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2008: 147-72)는 공론장에 참여할 자격을 베스트팔렌적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당면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에게 확대함으로써 정당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초국적인 공적 권력의 창출을 통해서 유효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망한다.

탈정치화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점에서 낸시 프레이저(2008)는 무페(Chantal Mouffe, 2000)와 공통점을 가진다. 페미니즘의 실천적 이론을 확장하려고 하는 목표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프레이저가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거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과 달리, 무페는 하버마스가 설정했던 자유롭고 제약받지 않는 소통이라는 규제적 이상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무페, 2007: 21). 보편주의적 틀 안에서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하는 한 문제의 핵심을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아닌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천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하버마스와 달리, 나아가 프레이저와 달리, 무페는 계몽의 인식론적 관점이 수행할 만한 역할이 더는 없으며,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공간을 이해하는 경로에서 계몽의 인식론적 관점은 오히려 하나의 걸림돌임을 지적한다(무페, 2007: 23-25).

인간본성에 대한 합리주의 전통의 견해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무페(2000)는 주장한다. 합리주의 전통은 사회성에 내재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부인한다. 폭력이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려는 어떠한 민주주의 이론도 정치적인 것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무페, 2000: 197-98). 경쟁자 없는 정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무페, 2000: 179). 무페(2000, 2007)의 제안은 보편주의적 관점을 포기하고 경쟁적 다원주의의 민주주의정치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담론은 바로 이 경쟁적 다원주의의 민주주의정치가 실천되는 통로이자 헤게모니의 표출이며, 헤게모니는 정치적인 것들의 다원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적대의 접합적 실천이 작동되는 과정이고, 사회적 적대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정치의 주체들이다. 그러므로 담론 분석은 사회적 관계들의 담론에서 사회적 적대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사회적 적대의 접합적 실천으로서의 헤게모니정치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정책기획자 및 정책실행자들은 공론장에 기대어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기업주의적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개발정책들을 제시하고 소위 공론화과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정책수행

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공론화과정은 보통 공개토론회 및 여론조사에 의한 찬반비율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공론화과정은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정책 토론은 주최자의 기획에 따라 진행되고 여론조사에 의한 찬반비율은 오히려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버마스나 프레이저가 말하는 공론장은 민주주의정치의 실종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정당성 확보와 민주주의정치는 오히려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무페가 말하는 것처럼 담론적 실천이라는 헤게모니정치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다.

3) 담론 분석과 헤게모니정치

해석학적 전통에서 담론은 하나의 텍스트이다. 하나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학적 전통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문헌비평에서 텍스트의 맥락을 살피는 역사비평을 거쳐 텍스트의 행간을 읽는 수사학적 비평에까지 이르렀다.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텍스트와의 대화 가능성을 지평융합에서 찾았고, 리쾨르(Paul Ricoeur)는 텍스트 자체의 오류까지 드러내야 한다는 의혹의 해석학을 주장하였다. 신진욱(2011)은 켈러(Reiner Keller, 2006)가 담론(discourse)과 결부된 연구전통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음을 소개한다. 켈러(2006)에 따르면, 담론 연구전통의 첫 번째 흐름은 영미 언어학계와 문화인류학계에서 발전되어 주로 미시적 일상언어 연구에 집중해온 대화분석이다. 둘째가 아펠(Karl-Otto Apel), 하버마스 등이 발전시킨 논변윤리 이론과 숙의정치 이론의 맥락이고, 셋째는 구조주의 전통의 수용과 극복 과정에서 알튀세르(Louis Althusser), 페쇠(Michel Pecheux), 푸코(Michel Foucault), 무페, 라클라우 등이 발전시킨 이데올로기와 담론 이론이며, 마지막이 이해사회학적 전통에서 알렉산더(Jeffry Alexander), 로버트슨(Roland Roberson), 래비노우(P. Rabinow) 등의 사회학자들이 수행한 문화주의적 담론연구의 흐름이다(신진욱, 2011). 신진욱(2011)은 위의 연구전통들을 다양하게 결합하면서 기존의 담론연구 전통과 달리 거시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더 큰 관심을 가지

고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이 등장했다는 보다크(Weiss and Wodak, 2007; Wodak and Meyer, 2001)에 동의한다. 신진욱에 따르면,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는 이른바 비판적 담론분석학파는 ‘담론분석을 통한 사회비판’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문영역의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는 학제 간 협동(interdisciplinary)과 이론적·방법론적 다각화(triangulation)를 추구하고 있다(신진욱, 2011: 13). 비판적 담론 분석 사례들을 점검한 신진욱(2011)은 비판적 담론 분석학파가 충분히 비판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이 담론의 지배기능을 입증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치학과 사회학, 정치경제학 비판과 밀접하게 만남으로써 담론투쟁의 과정과 결과, 지배담론의 지속과 변형, 그리고 그에 결부된 보다 넓은 사회적 갈등과 적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을 주문하였다(신진욱, 2011: 33-37).

비판적 담론분석학파의 연구경향과 달리, 라클라우와 무페(1985, 2001)는 자신들의 작업이 정치적 접합의 계기를 특권화하는 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치 분석 작업의 주요 범주는 헤게모니라고 밝히면서, 헤게모니적 대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위상을 정의하기 위해 담론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클라우와 무페, 2001: 12). 토핑(Jacob Torfing, 1999)에 따르면, 라클라우와 무페(1985)의 작업은 담론(discourse)과 헤게모니(hegemony) 그리고 사회적 적대(social antagonism)라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토픽, 1999: 81). 토핑(1999)은 담론, 헤게모니, 사회적 적대 개념을 과거의 구조, 정치, 갈등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담론은 구조와 마찬가지로 설명적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것의 담화적 맥락과의 관계에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론은 구조와 같은 결정적인 힘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구조의 기능이 결정적이라면 담론적 기능은 실천적이기에 그렇다. 헤게모니는 개인적 또는 집합적 이익을 추구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실천 이다. 그러나 헤게모니를 정치적 행위로 치환할 수는 없다. 정치적인 실천은 가치와 신념의 절대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기득권의 특혜를 극대화하거나 최소한 만족시키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달리 헤게모니적 실천은 정체성의 구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가치와 신념이

그러한 정체성의 구성을 완성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갈등 개념이 놓치기 쉬운 사회 갈등의 중요한 측면들 이라면, 헤게모니적 담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심적 역할을 포착하기 위해, 사회적 적대 개념은 피아식별이라는 구성적인 역할을 강조한다(토픽, 1999: 81-82). 토픽이 강조한 피아식별의 구성적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 적대 개념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워스(David Howarth, 2000)에 따르면, 라클라우와 무페에게 담론이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들의 정체성이 구성되고 실천되는 세계이다(하워스, 2000: 101). 라클라우와 무페(2012/2001)는 푸코가 정식화한 ‘담론 구성체’ 개념을 분산 속의 규칙성으로 특징했던 것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푸코가 담론적 실천과 비담론적 실천을 구분했던 것에 반대한다(라클라우와 무페, 2012: 192-94). 모든 대상이 담론의 대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라클라우와 무페, 2012: 196). 담론 분석은 담론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적 실천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헤게모니정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모든 대상이 담론의 대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담론에 대한 라클라우와 무페(2001)의 첫 번째 강조점이다. 푸코가 구분했던 것과 같은 비담론적인 어떤 것 즉 담론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담론을 통해서만 구성된다는 것이다. 라클라우와 무페(2001)의 예를 들자면, 지진이 발생하거나 벽돌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대상들이 자연 현상으로 표현될 것인지 신의 분노로 표현될 것인지 그 용어의 구축은 전적으로 담론 영역의 구조화에 달려있다. 담론의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담론적 출현 조건 외부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강조점은 담론이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담론의 물질적 성격이란, 다양한 주체 위치들이 담론 구성체 내에 분산된 채 나타나게 된다는 점과, 접합적 실천이 담론 구성체가 구조화되는 다양한 제도들, 의례들, 그리고 실천들의 물질적 농밀성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접합이란 다름 아닌 담론적 실천이다. 세 번째는 사회관계들을 담론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간주할 때 모순이 가능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모순이 배제된 사회적 총체성이나 담론적 총체성은 전제되지 않는다(라클라우와 무페, 2012:

196-201).

따라서 담론 분석은 사회적 적대라는 사회관계들의 헤게모니적 접합이 실천되는 계기들 즉 담론 구성체의 결절점을 드러내는 작업이며, 사회적 적대와 헤게모니정치에 대한 분석이다. 무페(2007)에 따르면, 서로 다른 담론들이 접합을 통해 결절점들을 창조하려고 하겠지만 그 결절점은 단지 일시적 고정에 성공할 수 있을 뿐이며, 정치의 장애는 하나의 접합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공하려는 담론들이 항상 존재하기에 모든 주체 위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담론 구조 내에서 구성된다(무페, 2007: 90).

이승원(2008)이 민주주의를 헤게모니와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승원(2008)은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구성과 전복 사이의 요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하면서, 라클라우의 담론분석적 연구를 끌어들이었다(이승원, 2008: 69). 이승원(2008)은 민주주의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질서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성/재구성되는 현대 정치변동의 논리라고 설명한다(이승원, 2008: 73).

라클라우(1990)에 따르면, 기존 질서 내에서 일반화된 특정한 의미와 사회적 관계가 탈구적 계기를 통해서 탈고정되는 반면, 이 탈구적 계기는 동시에 탈고정화된 기존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열을 다시 고정시키려는 시도를 포함한다(라클라우, 1990, 이승원, 2008: 75). 이승원(2008)은 탈구적 계기의 출현이 다양한 실천의 정치적 가능성을 동시에 만든다고 말한다. 탈구적 계기가 기존 질서에서 탈고정화된 모든 주체위치들이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전환되어지면서 새로운 질서수립을 위해 상호 대립하고, 충돌하고, 적대적인, 그리고 때로는 서로 타협하는 정치실천의 가능성의 계기라는 것이다. 탈구 그 자체가 어떠한 사회적 적대나 그에 기반한 정치실천으로 즉각적으로 전환되어지지 않지만 현재의 질서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탈구는 그러한 적대와 정치실천이 시작되어지는 공간이며 계기이며 사건이라고 이승원(2008)은 설명한다(이승원, 2008: 78).

라클라우와 무페(2001)에 따르면, 적대는 실재적 대립이나 모순에 동화시킬 수 없다. 적대는 총체성들의 구성 불가능성에서부터 발생하는 관계들의 상태로 이해된다. 대문자 타자를 인정할 수 없는 모든 주체 혹은 타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을

적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클라우와 무페, 2001: 227).

적대는, 객관적 관계이기는커녕, 모든 객관성의 한계들을 보여주는-말할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는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곤 했던 그런 의미에서-관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논증한 대로, 사회적인 것이 사회-즉, 아이들의 객관적이고 폐쇄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적인 노력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라면, 최종적 봉합의 불가능성에 대한 증인으로서 적대는 사회적인 것의 한계에 대한 ‘경험’이다. 엄밀히 말해, 적대들은 사회에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외재적인 것이다. 오히려 적대들은 사회의 한계들, 즉 사회가 완전히 구성되는 것의 불가능성¹²⁾을 구성한다(라클라우와 무페, 2001: 228).

이승원(2008)에 따르면,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도시빈민들의 광주 대단지 시위, 1979년 YH사건, 1980년의 광주항쟁, 1997년 IMF 경제위기 등이 한국사회에서 ‘탈구’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기존의 정치질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외상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적대의 특징이 결정된다. 적대의 확장이 새로운 질서수립을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정치전선을 구성한다는 것이다(이승원, 2008: 82). 기존 정치질서가 유지하고 있던 접합의 결절점이 탈구되고 새로운 질서 즉 새로운 결절점을 위한 접합적 실천이 헤게모니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로운 결절점은 하나의 비어있는 기표이다. 이 비어있는 기표를 결절점으로 하여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사슬, 그리고 이에 기반한 특정한 질서의 형성이란 분산되고 흩어진 대중들로부터 하나의 집합의지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이고 활동적인, 나아가 대단히 정치적이며 헤게모니적인 실천의 과정이 바로 접합적 실천이다. 접합적 실천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헤게모니적인 정치 실천이다(이승원, 2008: 88-89; 94). 헤게모니적 정치 실천에 대하여 무페는 민주주의적 정치가

12) 사회란 하나의 고정된 완성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불변하는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사회는 사회적 적대들의 접합과 헤게모니적 실천의 장으로 구성될 수 있을 뿐이다.

권력과 배제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 대신에 그것들을 전면으로 끌어낼 것으로 요구하며,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경쟁의 지형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무폐, 2000: 60). 민주적 정체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은 불완전함의 표지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그것 안에서 다원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지배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정치는 종종 자본의 기획에 의해 헤게모니적 지배를 관철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민주주의정치가 살아있기 위해서, 실종된 민주주의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정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헤게모니적 지배에 대응하는 대항헤게모니의 형성과 헤게모니적 정치실천이 사회적 적대들의 실천적 접합이다.

서영표(2013)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 전략을 제시하겠다고던 기든스(Anthony Goddens)의 이론 기획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대화 정치(dialogic politics)라는 맥락 속에서 무장 해제된 좌파의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한다(서영표, 2013: 62-63). 자본주의가 비판을 흡수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변모시킬 수 있는(프레이저, 2009) 절충 능력(아리기, 1994)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서영표, 2013:63). 자본주의 사회라는 정치경제학적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대화 정치나 공론에 의한 정책 정당화로 실천될 수 없으며, 새로운 정치적 주체 형성 전략이 결여된 상태에서 민주주의 실천은 가능하지 않다(서영표, 2013: 67-69). 국가는 거대 자본과는 유착되어 있지만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방자치 정부는 토지 소유자, 건설업자, 이들이 장악한 지방 언론과 의회, 그리고 금융자본이 결탁한 ‘개발동맹’¹³⁾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건 개발동맹에 속한 집단과 중개자로 전략한

13) 개발동맹은 논자에 따라서 성장동맹, 성장연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출처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며, 인용이 아닌 경우에도 인용문의 용어에 뒤이어 언급할 때에도 인용된 용어를 따를 것이다.

시민 운동의 유력 인사들뿐이기 때문이다(서영표, 2013: 74).

하비(2014/2012)는 도시 형성 과정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자체의 자기모순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지적한다(하비, 2014: 37). 오스만의 파리 재개발과 로버트 모제스의 교외화 전략 등을 예로 들어 하비(2014/2012)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계급적 성격이 부동산 개발과 약탈의 경제를 통해 사적 이익집단 혹은 준 사적 이익집단의 손아귀에 도시권을 어떻게 가져다주었는지를 보여준다(하비, 2014: 31-57). 도시가 사회의 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거의 권리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도시권을 주장하는 저항 운동으로 개발업자들의 품에서 도시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하비(2014/2012)의 구체적인 목표는 서영표(2013)가 제안하는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 그리고 민중의 정치 주체화라는 과제와 연결된다.

서영표(2013)에 따르면, 국가의 (자본가)계급적 성격과 시장의 독점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의 실존적 적대 경험들을 정책과 시장에의 참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서영표, 2013: 73-75). 서영표(2013)는 그람시(Antonio Gramsci)의 대항헤게모니 기획(counter-hegemonic project)이 수많은 저항 운동 세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언제나 미완의 기획임을 전제하면서, 대항 헤게모니 기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서영표, 2013: 82).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움은 민주주의가 동반하고 있는 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운동 사이의 긴장, 노동 운동과 새로운 사회 운동의 긴장, 사회 운동 단체들 간의 긴장, 조직의 지도부와 활동가들 사이의 긴장들을 부정하고 해소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천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서영표, 2013: 83). 민주주의란 논쟁, 토론 소통, 잠정적 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작동하게 하는 정치적 원리이기 때문이다(서영표, 2013: 83). 국가의 민주화, 시장의 사회화, 민중의 정치주체화의 복합적 구성물로서의 민주주의를 서영표(2013)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라고 부른다(서영표, 2013: 84). 민주주의의 급진화는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급진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의미에

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로건과 몰로치(John R. Logan & Harvey L. Molotch, 2013/2007)는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토지의 가치에 대해 사용가치적 접근과 교환가치적 접근이 있었음에 주목한다. 로건과 몰로치(2013/2007)에 따르면,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이 같은 블록, 도시, 지역에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힘을 합쳐서 운명이 대박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운명공동체를 형성한다(로건과 몰로치, 2013: 78).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서로 연결된 친성장 결과들과 정부단위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제도인 성장동맹이 그것이다(몰로치, 1976; 로건과 몰로치, 2013: 79). 성장동맹이 유포하고 형성하는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의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로건과 몰로치, 2013: 108). 그러나 사실상 도시가 건설되는 공간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사용가치로서의 공간이다(로건과 몰로치, 2013: 163-171). 이렇게 도시는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힘과 사용가치를 지키려는 힘이 만나는 공간이며,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대립적으로 추구되는 도시의 문제는 다름아닌 부동산 상품 위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이 터하고 있는 공간에서 사용가치를 만들고 지키는 문제이다(로건과 몰로치, 2013: 158). 로건과 몰로치가 제안하는 해법은 성장동맹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교환가치를 높이려고 할 때, 이에 맞서 강경한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자본의 입지 선택폭을 좁히는 것이다(로건과 몰로치, 2013: 378).

지역이 실제 자신의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성장동맹이 주장해온 도시 체제 전반에 극적인 반향을 만들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방책이다(로건과 몰로치, 2013: 379). 도시권을 주장함으로써 개발업자들의 품에서 도시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하비(2014/2012)의 제안과 다르지 않다. 과정은 서영표(2013)의 지적대로 국가의 민주화, 시장의 사회화, 민중의 주체형성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의 급진화, 즉 민주주의의 급진적 실천이다.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은 하나의 개발 담론이며, 제주지역을 투자 장소로서 점거하려는 해외 투기자본에 부응하여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와 관광업계 그리고 기업주의적 지방자치단체가 형성한 성장동맹의 헤게모니적 실천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사

회의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성장동맹의 헤게모니적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장동맹의 헤게모니적 실천에 대응하는 대항헤게모니적 실천이 사회적 적대를 형성하며 헤게모니정치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될 것이다. 대항헤게모니를 기획하며 성장동맹의 헤게모니적 실천에 대응한 반성장동맹이 구성되었다면, 사회적 적대성을 통한 헤게모니정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성장동맹의 일방적인 헤게모니적 실천으로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이 전개되었다면, 민주주의정치를 가능하게 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여론조사의 찬반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 전개는 선거구호와 같은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정치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2. 카지노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1)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과 제주사회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기원은 한국 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서재진, 1988: 11-38; 백종국, 2009). 백종국은 해방 이전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시작되었다는 기존의 주장들이 역사적 사실에 잘 부합하지 않고, 일제 치하의 산업화도 군수품 생산 위주로 한반도의 산업화와는 별 관련이 없는 이중 구조였으며 축적된 자본은 일본 산업 자본의 몫이었기에 한국 사회의 자본으로 기여한 바 없다고 분석하였다(백종국, 2009: 103-7). 한국 전쟁 이후 미국에 의한 외자 유치도 1961년 이전에 단 한 건도 성사된 바 없음을 들어, 백종국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의 기원이 한국 전쟁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전제한다(백종국, 2009: 108).

해방과 4·3을 거치면서 자급자족의 경제적 기반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잉여 축적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사회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제주사회가 자급자족 농경 (agriculture)사회로서 주체적 대외경제활동을 수행했던 시기는 고려가 제주를 자국 영토로 복속하고 고려의 중앙정부에서 제주로 지방관을 파견한 1105년 이전까지로 볼 수 있다(김철규, 2003: 33). 고려의 제주 지방관 파견 이후 원과 조선에 이어 일제 식민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사회는 자급자족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¹⁴⁾ 중앙에 의한 봉건적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¹⁵⁾(이상철, 2003b: 33-4).

이상철(2003b)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제주사회를 편입시킨 첫 단계는 1963년의 자유항 설정구상이었다(이상철, 2003b: 47).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속에 제주사회가 주변부로 편입된 과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을 통해 드러난다. 이상철(1995, 1998, 2003a, 2003b)이 분석한 제주지역에 대한 개발정책들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중앙정부의 단계별 제주지역 개발계획

단계	시기	개발 정책	성격
1단계	1960년대- 1980년대	국제 자유 지역 관광 개발 산업 개발	- 이후 자본 축적의 위기마다 고려 - 국제 관광지 성격의 수출 전략 산업 - 관광 개발의 보조적 성격
2단계	19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1991)	- 친자본 반주민 성격 - 개발 절차의 간소화
3단계	2000년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1)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40년간 개발 정책의 결정판 - 외자 주체의 개발

14) 이상철(2003b)은 제주의 자급자족체제가 잉여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기에 도둑, 거지, 대문이 없는 삼무의 전통과 절약, 근면의 조냥정신을 배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5) 제주에 대한 수탈은 중앙정부의 수탈과 중앙정부의 군사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왜구 등의 수탈이라는 점에서 이중 수탈이었다고, 이상철(2003b)은 보았다.

이상철(2003a)은 제주도 개발 방식이 외생적 지역 개발 형태를 취했기에, 제주도를 국제자유지역화려는 논의가 한국 사회의 자본 축적 위기에 특히 부상했다는 점을 지적한다(이상철, 2003a: 26). 자유항을 기조로 제주도를 국제자유지역화하려고 구상했던 1963년은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고, 자유항 건설을 다시 구상하며 추진 조치를 검토했던 1980년은 제2차 오일 쇼크 등으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때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입안하기 시작한 1999년은 IMF 구제 금융 지원이라는 외환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이상철, 2003a: 8-26). 이 연구의 분석 시기는 3단계에 해당된다.

앞 절에서 고찰한 정치경제학적 공간이론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실물적 팽창이 전개되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실물적 팽창은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에 의해 전개되었다. IMF 구제 금융 지원이라는 위기적 국면을 전후하여 금융적 팽창이 실물적 팽창과 맞물려 전개되면서 자본의 축적 순환을 위한 공간적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공간의 재배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합리적 산업 재배치 정책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적 지방 자치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쩌면 보다 근원적으로는 자본 축적 순환의 공간적 조정이라는 기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지방자치제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명분으로 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2) 지방자치제와 지역정치의 기업주의화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어도 제주사회는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에 따라 한국 사회 자본주의 발전 과정의 주변부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

적 지위는 여전한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개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승인 및 재정지원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라 외면상의 자치적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종속의 은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표3>은 2000년 이후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시계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지방재정자립도

시도별	2000	2003	2006	2009	2012
서울특별시	94.8	95.9	94.3	92.0	90.2
부산광역시	78.3	74.9	70.2	58.3	57.4
대구광역시	75.0	76.4	70.7	54.7	52.8
인천광역시	77.2	74.6	69.2	74.2	71.0
광주광역시	62.2	63.0	57.5	48.3	46.6
대전광역시	72.3	73.6	72.8	59.3	58.3
울산광역시	74.6	71.6	65.7	67.7	71.2
경기도	69.3	78.0	75.2	75.9	72.6
전국	59.4	56.3	54.4	53.6	52.3
강원도	30.0	26.7	26.7	28.0	26.9
충청북도	30.3	31.4	31.3	33.3	34.2
충청남도	26.8	29.8	35.3	36.6	35.5
전라북도	22.8	25.6	23.9	23.6	26.0
전라남도	15.9	21.0	20.2	19.4	21.4
경상북도	29.2	29.2	27.8	27.7	28.3
경상남도	35.8	37.2	38.8	39.4	43.3
제주특별자치도	31.2	37.4	33.8	25.2	28.5

* 자료: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YL7901&conn_path=I2&path

중앙정부의 승인과 재정지원이라는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고보조금 확보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중앙에 대한 지방의 사대적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중

양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적·사대적 특징¹⁶⁾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지방의 재정 자립도¹⁷⁾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3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2000년 31.2%에서 2003년 37.4%, 2006년 33.8%, 2009년 25.2%, 2012년 28.5%이다. 2012년도에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지속적인 하락세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수준이다. 전체 세금의 20%라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예산을 짜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가 맞는 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회계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혹은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수와 수입의 증대이다. 세수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주의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도지사 선거에 나타난 선거 구호들만 살펴보아도 지방자치제 이후의 기업주의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선거 구호의 키워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면, 민선1기의 선거 구호는 행복과 희망이라는 축과 풍요와 번영이라는 축이 대립쌍을 이루고 있다. 1995년 민선 1기의 선거에서 기호 1번 우근민 후보는 ‘도민을 행복하게 제주를 풍요롭게’ 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기호 2번 강보성 후보는 ‘새희망 큰 제주 강보성과 함께’ 를 외쳤으며, 기호 3번 신구범 후보는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경쟁, 자존, 그

16) 제주사회에서 도지사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대중양 교섭 능력 운운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과 도지사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중앙에 이른바 선을 대려는 노력들이 나타나 는 것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적·사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17)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수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사회에서는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을 들어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의 자립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수익성 사업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며, 지방정부의 기업주의적 경향성이 증대하는 것도 이에서 비롯된다.

리고 번영’이라는 구호를, 기호 4번 신두완 후보는 ‘제주기적 창조한다’고 외쳤다. 선거 결과 민선1기는 신구범 도지사가 이끌게 된다. 신구범 도정은 한국 사회에서 제주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 자존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제주 지방정부의 기업주의화 전략을 가동시킨다.

1998년에는 기호 1번 현임중 후보가 ‘경제 하르방 함께 가는 제주! 살맛나는 제주!’를 선거 구호로 사용하였고, 기호 2번 우근민 후보가 ‘제주 21세기를 위한 약속, 화합과 실천의 지도자’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기호 4번 신구범 후보는 ‘모두를 위한 제주로 간다. 경쟁·자존·번영’이라고 외쳤다. 선거 결과 민선 2기는 우근민 도지사가 이끌게 된다. 민선 1기의 기업주의화 전략의 성장정치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 민심이 이전 신구범 도정을 외면한 것이다. 우근민 도정도 기업주의화 전략을 가속화시켰지만, 도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제주 자존이라는 길 대신 중앙 지원이라는 길을 택한다.

2002년에는 기호 1번 신구범 후보가 ‘제주야 웃자! 제주 경영 시대를 여는 신구범’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기호 2번 우근민 후보가 ‘강한 제주, 당당한 제주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창업자’라는 구호를 사용하였으며, 기호 3번 신두완 후보가 ‘이번에는 바꿔보자 1등 제주! 신두완이 만들겠습니다’고 외쳤다. 기업주의화 성장정치의 책임자를 뽑는 듯한 선구 구호의 나열이다. 경영,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선거 구호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중앙정부의 약속과 제주도민의 기대를 담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창업자에게 연임의 기회가 주어졌다. 2006년도의 선거구호에는 경제지사를 자처하는 기호 2번 현명관 후보를 제치고 기호 3번 김태환 후보가 선택되었는데, 이 역시 ‘당당한 제주인,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가 말해주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의 구호에서는 행복주식회사라는 구호가 나타나면서 제주도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지도자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기업주의적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선된 기호 9번 우근민 후보는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언제나 도민과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제주를 글로벌 자본주의의 통로로 만들어왔다.

이상의 선거구호들을 정리해 보면, 경제발전의 약속이 민선 1기의 선거 구호였고,

민선 2기의 선거 구호에는 경제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민선 3기에는 경영과 창업이라는 용어가 선거 구호에 등장하였고, 민선 4기에는 경제 지사라는 표현이 그리고 민선 5기에는 주식회사와 세계화라는 구호가 나타나고 있다. 표밭이 단단하게 집단화 되어있는 후보는 화합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그 외에는 대부분 경제발전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표 4〉 역대 도지사선거 선거 구호

연도	후보	선거 구호
1995	1 우근민	도민을 행복하게 제주를 풍요롭게
	2 강보성	새희망 큰 제주 강보성과 함께
	3 신구범 (당)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경쟁, 자존 그리고 번영
	4 신두완	제주기적 창조한다
1998	1 현임중	경제하르방 함께가는 제주! 살맛나는 제주!
	2 우근민 (당)	제주 21세기를 위한 약속 화합과 실천의 지도자
	4 신구범	‘모두를 위한 제주’ 로 간다 경쟁·자존 그리고 번영
2002	1 신구범	제주야, 옷자! 제주경영시대를 여는 신구범
	2 우근민 (당)	강한제주 당당한 제주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창업자
	3 신두완	이번에는 바꿔보자 1등 제주! 신두완이 만들겠습니다.
2006	1 진철훈	행복자치도를 향한 유쾌한 선택
	2 현명관	큰 인물 큰 생각 큰 제주 경제지사 현명관
	6 김태환 (당)	당당한 제주인 멈추지 않겠습니다.
2010	2 고희범	깨끗한 도지사 당당한 제주
	8 현명관	일등경제 일등제주 제주행복주식회사
	9 우근민 (당)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언제나 도민과 함께

선거 구호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점이 후보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당선된 도지사가 추진한 정책들은 민선1기 이후 기업주의 도시전략을 취해왔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표 1〉 기업주의 도시전략의 유형화에 지방자치제 이후 제주도정의 핵심 개발 정책들을 채워보면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에 정리한 바에 따르면 신제주와 일도지구, 연동 신시가지 택지 개발을 통

한 소비 공간의 내생적 동원 및 제주경마장을 통한 소비 공간의 외생적 동원이 지방자치제 이전에 추진되었고, 제주개발공사 역시 지방자치제 이전에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선 1기 이전의 마지막 관선 도지사였던 신구범 도정이 사실상 제주도정의 기업주의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선 마지막 신구범 도정에서 시작된 기업주의화 전략은 지방자치제로 인한 민선 1기 신구범 도정에서 제주사회의 기업주의적 공간 조정으로 본격화된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추진으로 주체가 달라지면서, 국가는 형식적인 지방분권화를 지역은 형식적인 자립 추진을 진행시켜왔다. 형식적인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볼 때,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기업주의화 전략을 심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공간조정 전략에 따라 자본의 투자와 축적을 위한 통로가 뚫렸을 뿐이다.

〈표 5〉 기업주의 도시전략의 유형화와 제주도정의 기업주의 전략

		도시 공간	
		새로운 생산 공간 창출 또는 재편	새로운 소비 공간 창출 또는 재편
요 소	내생적 동원 (새로운 배합)	① 1996 삼다수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 2005 첨단과학기술단지 2007 서귀포관광미항 2010 삼다수 민영화 추진 2012 제주 풍력단지	③ 택지개발 (신제주 - 일도지구 - 연동신시 가지 - 노형신시가지 - 이도지 구 - 아라지구) 특화단지 (중문관광단지 - 휴양형주거단 지 - 영어교육도시 - 투자진흥 지구)
	외생적 동원 (새로운 투입)	② 1994 제주개발공사 설립 2000 관광복권 2009 제주항공우주박물관 2009 영어교육도시 2010 제주투자진흥지구 2013 드림타워(녹지그룹)	④ 1990 제주경마장 1997 제주컨벤션센터 1997 내국인카지노 주창 2002 JDC 면세점 2007 휴양형 주거단지 2007 신화역사공원

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 계획들은 공간 재배치 전략과 긴밀하게 맞물려 나타났다. 외생적 동원에 의한 생산 공간 재편성은 소비 공간 창출을 위한 내생적 외생적 동원과 연결되어있다. 공간 조정은 자본의 수익구조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명분이었으나, 실상 투자유치를 위한 공간 조정은 투기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다. 특히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1998년 대규모 메가리조트 건설을 구상한 제주도정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컨벤션센터의 면적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카지노사업의 구상은 폐기되는 듯했으나, 2000년 이후 재점화되어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주의화 전략에서 비롯된 공간조정 국면마다 수익창출을 명분으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3) 카지노 담론의 등장

우연성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 도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왔다. 근대 이전의 지식은, 경험에 대한 관찰과 관찰로부터의 일반화라는 근대 이후의 지식과 달리, 신의 계시를 담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탁과 예언의 몫이었다. 근대적 의미에서 신탁과 예언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연적 기대이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한 것이며, 이 불확실성에 우연적 기대를 걸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도박의 신화적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석준(1996)이 정리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도박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기대어서 금전과 가치있는 어떤 것의 이전(transfer)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Devereux, Jr., 1974: 53), 또는 참여자들 사이에 레크레이션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재정적 위험 부담(finacial risk-taking) 행위(Kallick-Kaufman and Reuter, 1979: 1-2)를 지칭한다’ (김석준, 1996: 23; 2006: 148).

집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카사(Casa)에서 파생된 카지노(Casino)는 집안의 집이라

는 뜻이다. 카지노는 우리말로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개념인데, 집안에 따로 사교를 위해 준비된 공간을 의미한다. 옥스퍼드 사전(1993)에 따르면, 카지노의 원래 의미는 사회적 모임을 위한 공공 장소를 의미했었다(류광훈, 2001: 4). 그러나, 현재의 일반적 의미에서 카지노는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구글 위키백과사전). 그러므로 카지노사업은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업이고, 카지노산업은 카지노사업이 자본주의적 경제 체계 속에서 산업화된 것을 말한다.

관광진흥법(2013)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이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가 좁은 의미에서의 도박이라고 할 때, 카지노는 도박이 허용되는 장소이다. 카지노사업은 이러한 장소를 운영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인 것이다.

모나코의 주권을 인정한 프랑스-모나코 조약이 발효된 1861년 모나코에 최초의 카지노라 할 만한 몬테카를로 카지노가 개장하였고, 1967년 이후 몬테카를로 카지노는 국가소유로 운영되고 있다(구글 위키백과사전).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카지노와 더불어 19세기 후반 유럽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카지노가 우후죽순으로 개장하였다. 류광훈(2001)에 따르면, 1930년대 미국 네바다주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대책으로 카지노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상업적 성격의 카지노로 발전하였다(류광훈, 2001: 6).

모나코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카지노가 확산되었던 19세기 후반은 유럽 세계의 경제 체계가 대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이다. 1930년대 미국 네바다주를 중심으로 카지노가 확산되었던 시기 역시 미국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1929년의 대공황에 시달리던 때이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합리적인 사행적 경제활동이 확산된 것이다. 제주사회에서 카지노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었던 것도 경제 위기와 시기를 같이한다.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축을 위해 도민주를 공모하면서 수익보전 방편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주장되었고,

2000년 이후 관광 복권 발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이태원과 김석준(1999)은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들이 합법화되어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본주의 국가의 축적과 정당성의 위기 관리를 위한 항상적 재정 확보에 있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이태원·김석준, 1999: 185). 이태원과 김석준(1999)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기간을 합법적 도박의 도입기라고 규정한다. 건전한 경제 생활을 위해 중단했던 경마가 1962년 군사 정부에 의해 마사회법 공포로 재개되어 대통령배 경마가 개최되기 시작했고, 1967년 인천 올림픽 호텔 카지노와 1968년 서울 워커히 호텔 카지노가 개장했으며, 1969년 주택복권이 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이태원·김석준, 1999: 184-185).

한국사회에서 합법화의 길을 걸어온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그리고 카지노 중에서 카지노 개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한국사회에서 카지노사업의 도입 및 전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계기가 있다. 첫 번째 계기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초기로서 축적된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입이다. 두 번째 계기는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적극적인 지구적 자본주의로의 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개방화로서의 확장이다. 세 번째 계기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윤 창출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는 기존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이윤 창출의 도구로서의 도입이다.

첫 번째 계기에 해당하는 카지노는 1967년에 개장된 인천 올림픽호텔 카지노와 1968년의 파라다이스워커히 호텔 카지노이다. 두 카지노는 한국 자본주의 지형에서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들어선 것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시작했던 카지노들도 이 첫 번째 계기의 연장으로 볼 경우, 1975년의 제주 칼호텔 카지노와 1978년 파라다이스 부산 카지노, 1979년 경주힐튼호텔 카지노, 1980년 강원도의 호텔 설악파크 카지노, 그리고 1985년도의 제주 퍼시픽호텔 카지노가 포함된다.

두 번째 계기는 88올림픽 이후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로 적

극적인 편입을 시도하던 때이다. 1990년에 파라다이스그랜드 카지노, 크라운프라자 카지노, 하얏트호텔 카지노, 제주 오리엔탈호텔 카지노와 1991년에 신라호텔 카지노가 개장하였다. 1995년의 트로피카나 카지노의 개장은 외국 자본에 의한 최초의 카지노라는 점에서 두 번째 계기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계기별 카지노개장의 성격¹⁸⁾

계기	지역	개장일	카지노업체명	성격
1	인천	1967년 8월	올림푸스호텔 카지노 (최초)	자본주의 발전 초기 산업화를 위한 자본축적 외화벌이수단
	서울	1968년 3월	위커힐호텔 카지노	
	제주	1975년 10월	제주칼호텔 카지노 (→라마다)	
	부산	1978년 10월	파라다이스호텔 카지노	
	경북	1979년 4월	경주 힐튼호텔 카지노	
	강원	1980년 1월	설악파크호텔 카지노	
	제주	1985년 4월	퍼시픽호텔 카지노 (→롯데호텔)	
2	제주	1990년 9월	그랜드호텔 카지노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관광산업특화를 위한 하드웨어구축
	제주	1990년 9월	더호텔 카지노	
	제주	1990년 9월	서귀포 칼호텔 카지노	
	제주	1990년 11월	오리엔탈호텔 카지노	
	제주	1991년 7월	신라호텔 카지노	
	제주	1995년 12월	트로피카나 카지노 (제주칼호텔)	
3	강원	2000년 10월	강원랜드 카지노 (내국인전용)	한국자본주의의 지구적 편입 및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업주의화
	서울	2005년 1월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점	
	서울	2005년 1월	세븐럭카지노 힐튼호텔점	
	부산	2005년 1월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호텔점	
	인천	2005년 1월	골든게이트 카지노 (올림푸스)	

18) 대부분의 카지노는 임대형식으로 호텔의 카지노영업장에 들어서었는데, 호텔의 신축과 계약 등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을 구성할 때, 업체명은 현재의 장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였기에, 개장일에 존재하지 않았던 호텔명이 등장할 수 있다.

세 번째 계기는 2000년의 강원랜드 카지노의 개장이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1995년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1989년 이후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쇠퇴하게 되는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장하였다. 세 번째 계기는 자본주의적 확장이 자본 축적의 순환 구조에 따라 공간 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1월에 인천의 올림푸스호텔 카지노가 골든게이트 카지노로 재개장하였고, 한국관광공사의 세븐릭 카지노가 서울 강남점, 힐튼호텔점, 부산롯데호텔점 등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장하였다.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을 분석하는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세 번째 계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2000년 이전의 두 번째 시기에 카지노는 제주지역에 특화되어있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제주지역이 카지노 확장에서 소외되면서, 수익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카지노업계의 조정 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주의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카지노 담론을 생성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주지역사회에 카지노 담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시기는 2001년 2월에서 10월에 이르는 8개월에 불과하였다.

3. 지역사회 선행 연구 검토

1) 지역사회의 개념과 접근 방법

지역사회의 영어식 표현은 로컬(local)과 커뮤니티(community)이다.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로 번역할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지역사회를 커뮤니티로 번역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봉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학적 개념에서 지역사회는 지역 단위 수준의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지 지역 단위 수준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사회를 지역 단위 수준의 사회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사회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그러나 지역 단위 수준으로 추상성을 끌어내린 개

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 개념에 대해 고민했던 이은진(2009) 역시 지역 개념과 공동체 개념의 혼란에 대한 최협(1986)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신행철(1984)과 최재율(1984)이 면접적 사회관계에 기반을 둔 지역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지역이 갖는 면접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은진(2009)은 지역 기반의 사회적 현상을 농촌 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내의 공동체 형성, 보편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성격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지역 개념에 대한 이은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사회 개념이 도시와 농촌 (이은진이 지적했던 면접성과 비면접성으로 구분한 지역 개념) 이전에 사회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지역 단위로 끌어내린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들을 최근의 논의와 이어주는 개념적 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왕배(1997)는 지역을 ‘인간의 물질적, 정치적, 문화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로 구획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정의한다. 김왕배(1997)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로 구획되는 지역은 세계 차원의 다양한 국가군(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심부지역, 주변부지역, 유럽공동체 등)과, 국가 내의 비교적 큰 생활 단위(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등),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근린 공간(마을, 동, 시 등)으로 나뉘어진다(김왕배, 1997: 211). 그러나 제주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경우, 김왕배(1997)의 지역 구분에서 제주지역의 위치가 모호해진다. 국가 내의 비교적 큰 생활 단위로 묶은 권역에서 제주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권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공간적 거리를 기준으로 호남권에 제주지역을 묶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로 구획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지역에 대한 정의에 맞지 않는다. 물론 지금까지의 권역이 사실상 제주지역을 호남권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제주지역 거주자들의 육지부 나들이 교통 수단으로 항공편이 주로 이용되면서 호남권 보다는 수도권과의 사회적 거리가 가깝게 되었다. 이은진(2009)은 지역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최근의 논의들에서 공간을 의미하는 지역이 독립변수로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은진, 2009: 5-29).

지역사회의 사회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접근방법은 대체로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과 과정적 접근(processual approach)’으로 나뉜다(김석준, 1998a: 25). 김석준(1998a)에 따르면, ‘사회 변동을 설명하면서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의 실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질문과 맞물려있는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사회학적 분석의 양극단을 구성’해왔다(김석준, 1998a: 26). 김석준(1998a)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구조적 접근 방법을 따르는 이론들이 사회 변동에서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변수를 우선시하는 구조적 결정론으로 기울고, 반대로 후자는 행위자의 의식과 행위라는 과정적 변수를 강조하는 주의주의에 기대고’있음을 보여주었다(김석준, 1998a: 32).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석준(1998a)의 지적대로, ‘사회 변동이란 구조와 행위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결정하는 일방적 관계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김석준, 1998a: 32). 이러한 입장에 따라 김석준(1998a)은 한국사회의 신중간 계급을 분석하면서 ‘구조적 조건에 의한 계급 위치와 그러한 요소들로 구성되는 계급 실천은 상호 규정하는 관계’라는 분석틀을 사용하였다(김석준, 1998a: 45).

지역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 구조적 접근방법을 택한 예로 이상철(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이상철, 1995: 273-311). 이상철(1995)은 1960년대 이후 제주사회 변동의 기본 성격을 자본주의적 산업화이자 한국사회 내에서 제주사회가 주변부로 종속되는 것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이상철, 1995: 306). “제주사회 변동론 서설”에서 이상철(1995)은 기존 변동의 성격 파악에만 치중하면, 그 변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변동의 모습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주도 자체의 내생적 변동을 통해 제주사회 자체의 역동성이 드러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이상철(1995: 307).

과정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지역사회 연구는 대체로 사회 운동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상철(1998)은 제주도 개발 정책에 대한 도민 태도의 변화를, 조성윤(1998)은 탐동 개발 반대 운동을 분석함으로써 이상철(1995)의 요구에 부응하였다(조성윤, 1998: 137-77). 특히 이상철(1998)은 제주지역이 특정 사안뿐만 아니라 도 단위 전체에서 전 도민이 관심을 갖고 전체의 개발 방향에 반성과 논의가 활발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이상철, 1998: 99).

제주지역사회의 구조적 위치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앙 의존적인 주변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주지역사회는 1980년대 이후 중앙 주도적인 개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 양 진영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했던 성공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관점과 입장의 차이, 이념과 신념의 차이들이 팽팽하였고 대개 설득이 아닌 표 대결에 의한 관철이 주된 과정이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익들이 충돌할 때 다수의 이익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들이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조율되지 못했던 것은 사회적 적대의 헤게모니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와 과정을 담론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조적 접근 방법으로 갈등집단의 위치를 명료화함으로써 갈등의 극단을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고, 과정적 접근방법으로는 하나의 집단이 구성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들 간 갈등의 동학을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론 분석의 틀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카지노사업 확장이 개발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는 구조적 조건으로서의 정치경제학적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아울러 카지노사업 확장을 둘러싼 사회적 적대의 헤게모니정치를 살피는 것이다.

2) 지역사회의 성장정치

이상철(1995, 1998, 2003a, 2003b)이 제주사회의 변동을 제주도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과 같이, 김영정(2003)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성장정치로 보았다. 김영정(2003)은 중앙정부의 지역 특화 전략에 따라 지역간 성장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1990년대 이후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지역 안배에 실패했으며, 지방 주도의 특화 전

략 역시 지역 중복성의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김영정, 2003: 71-92). 결국, 지역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 정책들의 실패 요인은 성장 정치이고 중앙 주도 내지는 중앙 의존적인 정책들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 반영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염미경(2003) 역시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 산업 도시에서 나타나는 성장정치가 기업 권력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입으로 지방 정치의 민주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염미경, 2003: 67-100). 염미경(2003)이 지방 산업 도시의 성장정치 분석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지역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수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염미경, 2003: 95). 염미경과 한석지(2004)는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 장치로서 지역 거버넌스를 제안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았다. 의사 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중앙 행정 당국의 개발사업에 대해 마을의 공통된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마을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주의 마을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있다(염미경·한석지, 2004: 5-23).

염미경(2007)은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의사 결정 과정이 해당 지역사회 내부 정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음에 주목한다(염미경, 2007: 2). 제주도의 지역개발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70년대 이후 관광개발의 거점화가 제주도개발의 기본 방향이 되면서 국가 주도로 한국 최대의 관광지로 개발되어왔으며, 지방자치제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그리고 2006년 7월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염미경, 2007: 3). 염미경(2007)은 지역의 정치적 환경과 개발 주체에 따라 개발 정치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며, 정부 주도의 개발 전략과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개발전략이 공존할 때 개발 전략간 관계를 비롯해 개발 대상지 주민들 간 이해 갈등 양상과 그 결과,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리 방식이 어떠한지를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염미경, 2007:3).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써 개발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지역정치의 양상과 특성을 밝히려는 것이 염미경(2007)의 목적이었다. 염미경(2007)에 따르면, 도시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지역권력 구조론이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통치 주체의 확인에 그치는 데 반하여 도시체제(urban regimes)론은 통치 주체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질문하며 지역권력구조의 형태가 상황과 통치의 참여자들에게 의존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염미경, 2007:5).

한편, 백두주(2002)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이라는 흐름에서 지역사회는 외적인 요인, 즉 자본과 국가의 산업 정책에 의해 선택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전제하여, 명지대교를 둘러싼 부산 지역의 성장연합 및 반성장연합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성장정치를 분석하면서, 부산시가 보여준 이중성을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배제로 표명되는 의사적 참여주의의 문제로 지적하였다(백두주, 2002: 168-187)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 규칙과 반대자의 의도적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질적 참여주의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의사적 참여주의가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백두주, 2002: 188). 이성호(2008)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전북지역 성장정치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성장연합이 반성장연합의 친환경 담론을 오히려 성장 담론의 근거로 활용하면서 반성장연합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사례였음을 보여주었다(이성호, 2008: 74). 강희경(2011)은 청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개발정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하게 되는 시민 사회의 가치관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강희경, 2011: 5-40). 박진도(2010) 역시 지역사회의 변동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주체적 노력임을 밝히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의한 외생적 개발이 아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을 주도할 지역 리더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박진도, 2010: 47-80).

3) 카지노와 지역사회

한국사회에서 도박 및 카지노와 관련된 연구 중 최초의 논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996년에 생산된 세 편의 논문이다. 김석준(1996)의 연구와 이충기·박창규(1996)의 연구, 그리고 이정실(1996)의 연구가 그것이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는 이태원과 김석준(1999)의 연구가 한국사회의 도박 합법화와 도박 문제의 확산에 관해 비판한 최초의 논문이다.

이태원과 김석준(1999)은 특정사회에서 도박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의 발생 과정은 궁극적으로 도박의 법률적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독점적 권력기구로서 국가의 체제 유지적 성격과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압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국가에 의한 도박의 범죄화와 탈범죄화라는 모순적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이태원·김석준, 1999: 180). 김석준(1998b)은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개설 문제를 분석하면서 강원도 폐광지역과 제주도의 개발전략간 상호영향의 과정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영수익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제주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1997년부터 합법적 도박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개설을 추진하고 있었고(김석준, 1998b: 206-214), 강원도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었기에 상호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였다(김석준, 1998b: 198-203). 김석준(1998b)은 미국 데드우드시의 사례를 들어 입장객에 대한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개발계획에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제주지역의 경우 강원도 폐광지역과는 카지노에 대한 접근의 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석준, 1998b: 217).

학술 논문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누리미디어를 통한 검색 결과 나타난 카지노와 관련된 논문은 모두 228편이다. 검색된 논문이 생산된 기간은 1991년에서 2014년으로 나타난다. 2014년은 6월 이전까지만 포함된다. 검색된 카지노 관련 연구들은 이론적 접근에 해당하는 연구들, 카지노사업의 변천과 경제효과 및 발전방향을 다룬 연구들, 지역사회와 관련지어 살핀 연구들, 카지노장의 종사자 및 경영을 다룬 연구들, 고객 및 마케팅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 법제적 연구들, 그리고 기타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표 7>은 검색 논문에 대한 연도별·주제별 분류이다.

〈표 7〉 카지노 관련 연구의 연도별·주제별 분류

주제 연도	이론적 접근	변천 경제효과 발전방향	지역 사회	종사자 및 경영	고객 및 마케팅	법제	기타	계
전체	1.6 3	11.7 22	22.3 42	26.6 50	24.0 45	4.8 9	9.0 17	100% 188
1989							1	1
1991							1	1
1995	1							1
1996		1						1
1998					2			2
1998		1						1
1999		1	1		1			3
2000			2		2			4
2001			2	3		1	1	7
2002		1	2	1	2		1	7
2003		3	1	1	4			9
2004		2	5	1		1	1	10
2005			2		2	1		5
2006	1		3	2		1	1	8
2007		2	2	3	3		2	12
2008		2	3	5	2	4		16
2009		1	2	4	5		1	13
2010		2	9	3	9	1	4	28
2011	1	4	4	6	6		2	23
2012		2		15	5		2	24
2013			4	3	2			9
2014				3				3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지노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세 편에 불과하여 1.6%이고, 법제적 연구도 4.8% 정도일 뿐이다. 카지노 종사자와 고객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영과 마케팅 관련 논문이 전체의 50.6%로 검색된 논문의 절반에 이른다. 카지노의 변천이나 경제효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문 11.7%를 포함하면, 62.3%에 해당하는 카지노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관광학계에서 생산된 것이다. 기타 9.0%는 디자인이나 전산망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전체 생산의 22.3%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관련 논문 42편만을 따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지역사회 관련 카지노 연구논문 생산건수

	도입 개발	주민의식	사회문제
1999	1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2004	2		3
2005	1	1	
2006	1		2
2007	1	1	
2008	1	1	1
2009	1		1
2010	3	3	3
2011	3	1	
2013	1		3

지역사회와 연관지어 카지노를 다룬 연구는 강원랜드 개장 직전인 1999년에 처음 등장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에 5편, 2010년도에 10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카지노 도입 또는 이를

개발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1999년부터 꾸준히 생산되어 모두 18편이고, 주민 의식을 다룬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10편이며, 도박 중독, 삶의 질 등 카지노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2003년부터 등장하여 14편에 이른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박형신(2003)이 석탄합리화사업에서 카지노 건립까지에 나타난 지역정치와 갈등구조를 분석하였고, 이태원(2003, 2005, 2006)이 카지노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다루면서 도박중독, 도박동기, 범죄 증감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강원랜드가 개장하면서 강원지역의 연구자들이 지역정치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 문제로 카지노를 다루게 된 것이다.

박형신(2003)은 강원 탄광지역이라는 공간이 자연발생적인 지역사회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만들어졌다가 외부의 힘에 의해 해체되는 자본주의 지역공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박형신, 2003:157).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모습과 동일한 외부 각인성, 생활세계가 생산에 종속되는 생산 중심주의, 분할되고 위계화된 사회 질서, 심각한 대외 의존성으로 특징되는 강원 광산 지역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산물이자 그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라는 것이다(박형신, 2003: 158-159). 박형신(2003)에 따르면, 폐광 지역의 갈등구조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정부 측의 경제합리성의 논리가 카지노 건립이라는 정부와 지역 주민의 경제 합리성의 논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들이었다(박형신, 2003: 182). 박형신(2003)은 석탄합리화사업과 카지노 건립이 모두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경제적 합리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공간적 의미의 지역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 살리기가 아닌 지역 살리기였으며, 개발 전략에서 폐광 지역을 자족적 지역 기능의 확보가 아닌 외부 의존적 지역으로 만드는 전략을 택했던 것임을 지적하면서, 탄광이나 카지노라는 단일 산업 공간에서 기능적 복합성을 축으로 하는 다원적 산업 공간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형신, 2003: 182-186).

지역사회의 카지노 도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문은 권봉현·이준혁(2000)과 양일용(2003), 그리고 서현·곽영대(2011)의 연구 등이다. 권봉현·이준혁(2000)의 연구모형은 제주도 카지노 내국인 출입의 타당성을 제시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었

다. 연구의 목적 자체가 타당성 제시에 있었기에 결론은 긍정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일용의 연구(2003)는 카지노의 긍정적 기능 부각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경영의 내실화 및 카지노 관련 규정의 정비와 개선을 과제로 제시한다. 서헌·곽영대(2011)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라는 개념이 고동완의 연구(2008)에서 처음 학술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제주도가 관광산업 증진의 수단으로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에서 개념화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새만금 지역에 복합리조트 형태 카지노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탐색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카지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카지노산업의 변천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충기(2011)와 이선향(2011), 그리고 서원석·이보배(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충기(2011)는 카지노 개발의 추세가 복합리조트화되고 있으며,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갬블링 시장에서 일반 대중 관광객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카지노 개발의 투자 유치 등의 효과에 긍정적이나 도박 중독 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선향(2011)에 따르면, 1967년 인천 올림푸스호텔, 1968년 서울 워커히호텔 등 주요 관광호텔을 통해 한국사회에 등장한 카지노산업은 개장 초기에 내국인 출입 제한 조치가 없었으나 1969년 6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으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었다(이선향, 2011; 225).

〈표 9〉는 이선향(2011)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행산업관련 법률들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카지노산업은 1975년에 제정된 ‘관광사업법’ 이 1986년 8차 전부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 으로 변화될 때만 해도 관광사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았으나, 1994년 15차 개정 때에 관광사업의 종류로 분류되어 3조 4의 2항에서 ‘전용업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으로 규정되었다(이선향, 2011; 224). 1999년 ‘관광진흥법’ 의 19차 개정에서는 5항의 독자 조항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관광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카지노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이선향, 2011; 225).

〈표 9〉 사행산업 관련 법률

종류	해당법률 (제정연도)	사업자	주무부처
공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007) -사행행위 등 구제 및 처벌특별법(19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형법(제246조-249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953)		
카지노	-관광진흥법(1975)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2) -카지노업 영업준칙	강원랜드, 그랜드코리 아레저 및 파라다이스 등 민간사업 자	문화체육관 광부
경마	-한국마사회법(19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지방세법 (1961년 제정, 2010년(146차)전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1994) -축산법(1963년제정, 1993년, 2007년(30차)전부개정)	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 품부
경륜	-경륜, 경정법(1991) -국민체육진흥법(1962) -산업발전법(199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1969제정, 1980전면개정) -청소년기본법 -지방세법	국민체육 진 흥공단, 부 산·창원경륜 공단	문화체육관 광부
경정	-경륜, 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산업발전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국민체육 진 흥공단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	복권위원회 (나눔로또(주), 연합복권사 업단, 제주도 등 수탁사업 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체육진 흥투표 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 진 흥공단	문화체육관 광부

* 자료: 이선향, 2011: 226. 이성향(2011)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2008년 사행산업 현
황』 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사행산업통계집2009』 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카지노산업의 확장과 관련하여 이선향(2011)이 주목하는 변화의 계기는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정과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다. 1995년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개장하였고, 2004년 특별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세븐릭 카지노가 개장하였기 때문이다(이선향, 2011; 227). 이선향(2011)은 한국사회의 발전 담론을 사행산업정책의 변화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다. 수익성만이 사행산업 정책에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고 사행 산업이 정부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선향, 2011; 242).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원석·이보배(2012)는 카지노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한국 카지노산업, 해외 카지노산업, 한국 카지노산업의 문제점 및 대안 등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적이다. 서원석·이보배(2012)는 한국 카지노산업 변천 과정 및 카지노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언론 매체를 통해 내용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연구 의의를 찾고 있다. 중앙 일간지 전체의 기사를 검색한 결과 기사 건수가 가장 많은 동아 일보를 내용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서원석·이보배(2012)는 1994년에 정부가 카지노산업을 관광업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카지노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1990년대 초에 우호도 지수 1점으로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 우호도 지수가 3점으로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수준으로 방향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서원석·이보배, 2012; 125). 서원석·이보배(2012)는 내용 분석의 틀로 시기 구분에 따른 주요 키워드 및 이슈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소개하면 <표 10>과 같다.

서원석·이보배(2012)는 동아일보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카지노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시기구분에 따라 내용분석하였다. 서원석·이보배(2012)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0년-1994년은 소규모 사행 사업 및 도박으로서의 인식, 1995년-1999년은 카지노 법제화를 통한 산업화 기반 마련, 2000년-2004년은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도입, 2005년-2010년은 카지노산업 투자 확산, 2011년은 복합관광지 개발 차원의 카지노 투자 확산으로 시대의 의미가 규정된다.

〈표 10〉 시기 구분에 따른 주요 키워드 및 이슈 요약

시기구분	시대의 의미	구분	주요 키워드 및 이슈 요약
90 ~ '94	소규모 사행사업 및 도박으로서의 인식	사회문제화	불법 도박, 사행산업, 탈세의혹 및 세무조사, 폭력 조직 연계, 해외 원정 도박(마카오)
		카지노 개발규제	교포 카지노 출입 금지(1993년7월), 카지노 신규허가 동결(1994년 7월), 카지노개설 불허, 수도권 위락시설(유홍음식점, 사우나, 카지노 등), 건축 규제
		카지노 정책지원	외화유치, 카지노업 육성 및 관광사업으로 전환, 카지노허가 감독권 교통부로 이관(1994년 2월), 재외교포 카지노 출입 단속 중단(1994년 2월), 관광호텔 카지노영업 허가 유효기간제 폐지
		카지노 개발계획	북한 평양 카지노 계획
'95 ~ '99	카지노 법제화를 통한 산업화 기반 마련	사회문제화	불법 비자금 수사, 부유층 해외 원정 도박 급증(호주, 마카오, 필리핀)
		카지노 정책지원	외화수입 유치 가능, 폐광지역지원특별법(내국인 출입 허용 포함), 영종도 무역 자유도시 특별법, 제주자치도개발특별법, 전국14개 개발촉진지구 지정, 외국인 카지노업허용,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인터넷 카지노 개장
		해외카지노 개발	해외관광지역 개발 활성화(호주,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00 ~ '04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도입	사회문제화	유명 연예인 해외 원정도박, 언론/ 정치인 등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시각 유지
		해외카지노 개발	아시아 경쟁국의 관광지 개발 본격화(싱가포르, 마카오 등)
		국내카지노 개발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오픈, 인천 및 영종도 신도시 개발 시작, 카지노사업의 산업화(상장 및 사업 규모 확대), 리조트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05 ~ '10	카지노산업 투자 확산	사회문제화	불법 카지노바 성업, 해외 원정 도박, 연예인 도박
		해외카지노 개발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증, 마카오의 세계 최고 관광 도시화(세계 제1 카지노산업 규모)
		국내카지노 개발	전국 주요 지방자치체의 카지노사업 유치 노력(충청도, 하동, 광양, 행담도, 인천 송도, 제주도, 평택), 글로벌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국내 투자(외화 투자 유치)
'11	복합 관광지 개발 차원의 카지노 투자 확산	사회문제화	해외원정도박(연예인 포함), 내국인 위조여권으로 도박유인
		카지노 정책지원	국내 복합관광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경제절 지원 필요,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외국인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추진, 지자체들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해외카지노 개발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개장 및 성공(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 개장,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 5월 8일 오픈, 센토사섬 신개념 복합 리조트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 활성화
		국내카지노 개발	인천, 영종도, 서해5도 관광개발 계속적인 추진 시도, 제주도 내국인 출입 가능한 가족형 복합리조트 제시, 온 가족 복합 리조트(Integrated Resort), 종합엔터테인먼트 산업, 카지노와 타 산업을 연계한 관광 리조트 개발 진행(카지노, 호텔, 의료 시설, 스파/피부관리, 테마파크, 골프 등), 평창 동계올림픽개최로 인한 강원도 관광 및 카지노산업 확장기대
		카지노 운영	카지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마케팅 전략 추진(봉사활동, 장학사업 등), 의료관광 및 카지노 연계 패키지, 카지노 광고로 인한 긍정적 이미지 및 인식 제고

* 자료: 서원석·이보배, 2012: 113

서원석·이보배(2012)는 각 시기별로 사회문제화, 카지노개발 규제, 카지노정책 지원, 카지노개발계획, 해외 카지노 개발, 국내 카지노 개발, 카지노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요 키워드와 이슈를 요약하였다. <표 10>은 모든 시기에 사회문제화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지원과 해외 카지노 및 국내 카지노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이슈들도 대부분의 시기에 등장하지만, 카지노 개발규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이슈들은 1990년-1994년에만 나타나고 다른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Ⅲ.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2000년 10월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개장하였다. 개장을 앞두고 2000년 1월과 2월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상반기 중 카지노 추가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신규 카지노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제민일보, 2000년 2월 24일). 2000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을 통해서 관광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의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충돌했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제민일보, 2000년 3월 25일). 2000년 한 해는 물론이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규카지노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카지노사업 확장에 대한 찬반논쟁들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제주사회의 모습은 2000년 12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벌어졌던 우근민 도정의 행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2000년 12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픈카지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우근민 지사가 동년 12월 4일 도정이 주도적으로 오픈카지노를 재추진하는 것처럼 외부에 잘못 비쳐졌다며, 제주도정은 표면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제민일보, 2000년 12월 4일). 중앙정부의 방침에 거스르는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당시 우근민 도정의 입장이었고, 이는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주사회에서 반복된 현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주의화 전략으로 카지노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공간 배치 기획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카지노사업에 대한 제주지역사회의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제주지역 일간지 1개 신문의 기사와 제주지역 일간지 3개 신문의 사설, 그리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주제로 가졌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이다.

제주지역 일간지 1개 신문의 기사는 제민일보의 기사를 자료로 택하였다.¹⁹⁾ 제주 지역 일간지의 사설은 200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제주일보와 제민일보 그리고 한라일보의 사설을 자료로 택하였다. <표 11>은 각 신문사의 게재일별 사설 제목이다.

<표 11> 제주지역신문 카지노 관련 사설 목록

일자	제주일보
2002년 12월 8일	내외국인 공용카지노 안된다
2004년 11월 2일	‘내국인 도박 텃’ 에 걸린 제주 카지노
2008년 10월 13일	카지노,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보자
2008년 12월 20일	국가현안이 된 관광객카지노
2009년 3월 7일	관광객 카지노 전향적으로 볼 때
2009년 12월 1일	관광객 600만 명 돌파와 당면 과제
	제민일보
2000년 4월 27일	미련 못 버린 오픈 카지노
2000년 5월 9일	카지노가 ‘문화 관광’ 이라니
2000년 7월 11일	미련 버려야 할 오픈 카지노
2000년 11월 2일	카지노 미련을 버리자
2008년 2월 18일	내국인 카지노 공론화과정 거쳐라
2008년 5월 12일	내국인 카지노 도민갈등 없어야
	한라일보
2004년 9월 6일	흔들리는 제주 카지노산업
2005년 10월 18일	불법카지노 발본색원해야
2008년 3월 21일	‘카지노 연구용역’ 객관성 담보돼야
2008년 9월 26일	‘관광객전용카지노’ 적극 검토해야
2008년 11월 15일	‘관광객전용카지노’ 전향적 검토를
2009년 4월 27일	갈등 키우는 공직사회 카지노 서명
2011년 2월 1일	제주자치도의 딜레마 ‘내국인 카지노’

19)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제주지역 일간지 신문에서 ‘카지노’ 를 검색어로 하여 자료를 조사해보면, 2013년 10월 31일 현재 제주일보 2307건, 한라일보 1931건, 제민일보 1764건으로 나타난다. 검색이 가능한 기간은 제민일보가 1999년 12월 6일 이후로 시간대가 가장 넓다. 연구의 편의상 인터넷 검색 가능 기간이 제일 긴 제민일보의 2000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보도된 기사를 분석 자료로 택했다. 주를 따로 달지 않더라도, 사건의 서술은 해당 일자의 제민일보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제주일보와 제민일보의 사설이 각각 6건이고, 한라일보의 사설은 7건이다. 2000년도에는 제민일보만이 반대 입장의 사설을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1월에 게재하였다. 2002년에 제주 일보가 반대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고, 2004년도에 한라일보와 제주일보가 반대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2005년도에는 한라일보에서 논의 주제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불법카지노를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신문사들의 사설은 기존의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하여, 제민일보가 2008년 2월과 5월에, 한라일보가 2008년 3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 제주일보가 2008년 10월과 12월에 찬성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제주일보에서는 2009년 3월과 12월에도 찬성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2009년도에 한라일보는 공직사회의 카지노서명운동을 꼬집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제주일보는 2002년과 2004년의 분명한 반대 입장에서 2008년 이후 분명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고, 제민일보는 2000년의 분명한 반대 입장에서 2008년 다소 중립적인 논조로 모호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한라일보는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2008년도 이후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 토론의 자료는 2010년도에 제주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던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경제적·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이다²⁰⁾. 이 조사는 제주도민에 대한 설문 조사와 전국민 설문 조사 그리고 전문가 FGI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는 2010년 12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 경제적·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에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는 전문가 FGI 조사결과를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담론 분석 결과를 보강하여 정당성 정치의 실천을 진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주사회

20) 2010년,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경제적·인문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연구진 추천을 (사)한국사회학회에 의뢰하였다.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정석 교수,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석준 교수, 목포대학교 관광학과의 이진형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고영미, 제주대학교의 김준표, 호남대학교의 김수진 등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수행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의 한 부분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 도박, 카지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2개년도의 자료가 사용될 것이다. 1995년과 2009년의 조사에서 나타난 도박일반에 대한 의식과 카지노에 대한 입장이 먼저 비교될 것이다. 비교를 위한 2개년도의 자료는 1995년의 <놀이 유형과 문화에 관한 조사>²¹⁾와 2009년의 <제주도민의 여가활동과 도박, 카지노에 대한 의식 조사>²²⁾이다. 조사 자료는 이 연구의 분석틀에서 정당성 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답론 분석 결과와 비교된다. 두 조사의 표본구성은 <표 12>와 같다.

〈표 12〉 자료의 표본 구성 퍼센트(사례수)

구 분		1996	2009
전 체		100.0 (720)	100.0 (570)
성	남성	48.5 (345)	48.8 (278)
	여성	51.5 (367)	51.2 (292)
연 령	20대	31.6 (225)	26.1 (149)
	30대	25.3 (180)	20.4 (116)
	40대	15.3 (109)	21.2 (121)
	50대(이상)	27.8 (198)	15.4 (88)
	60대 이상		16.8 (96)

김석준(1996)은 1995년 5월, 제주지역의 20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층화 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제주시 지역(현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지역(현 서귀포시 읍면지역), 남제주군 지역(현 서귀포시 읍면지역), 북제주군 지역(현 제주시 읍면지역) 네 부분 단위로 나눈 후, 네 부분 지역에 속하는 동 또는 리를 집락 표집의 최종 대상으로 삼고 무작위 표집을 통해 추출한 712명의 표본을 가지고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박의 실태와 의식을 측정하였다(김석준, 1996: 38). 도박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

21) 조사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 46명의 사회조사실습으로 실시되었고, 조사 결과는 1996년 한국형사정 책연구원을 통해 발표되었다(김석준, 1996). 설문지는 이 논문의 부록3으로 첨부되어있다.

22) 김석준·김준표의 2009년 조사 역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의 사회조사실습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이 논문의 부록4로 첨부되어있다.

해 추출된 설문 문항은 모두 7개 문항으로 <표 13>과 같다.

<표 13> 1995년 도박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문항번호	설문내용
26-1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26-4	도박을 경찰이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법적인 금지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
26-5	도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민의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26-6	어떤 정도의 도박을 단속·처벌해야 하는지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6-12	도박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를 더 강화해야 한다.
26-14	도박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26-18	우리 사회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크다.

김석준은 2009년 11월에 동일한 모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표집 방법으로 57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카지노관련 설문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조사는 1995년 조사의 설문문항을 일정 부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도박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 중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은 모두 9개 문항으로 <표 14>와 같다.

<표 14> 2009년 도박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문항번호	설문내용
16-1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16-2	어떤 정도의 도박을 단속·처벌해야 하는지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6-3	도박을 하는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가정불화나 다른 사회문제 발생이 더 문제이다.
16-4	돈내기 도박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16-5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도박이 근절될 리가 없다.
16-6	도박은 다른 여가활동처럼 오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16-7	도박을 하면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
16-8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일확천금의 사행심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16-9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화투나 카드같은 도박 외에는 별로 없다.

〈표 13〉과 〈표 14〉의 분석을 통하여 1995년과 2009년의 도박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조사에는 1995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카지노 관련 설문 문항으로, “제주도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만들어진다면 제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주사회에 대한 영향 평가 항목 즉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로 분석하려고 한다. 설문은 〈표 15〉와 같다.

〈표 15〉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 설문

문항번호	설문내용
15-1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15-2	제주도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줄 것이다.
15-3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15-4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15-5	각종 범죄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15-6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15-7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15-8	방문객의 급증으로 사회·문화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15-9	도민들의 세금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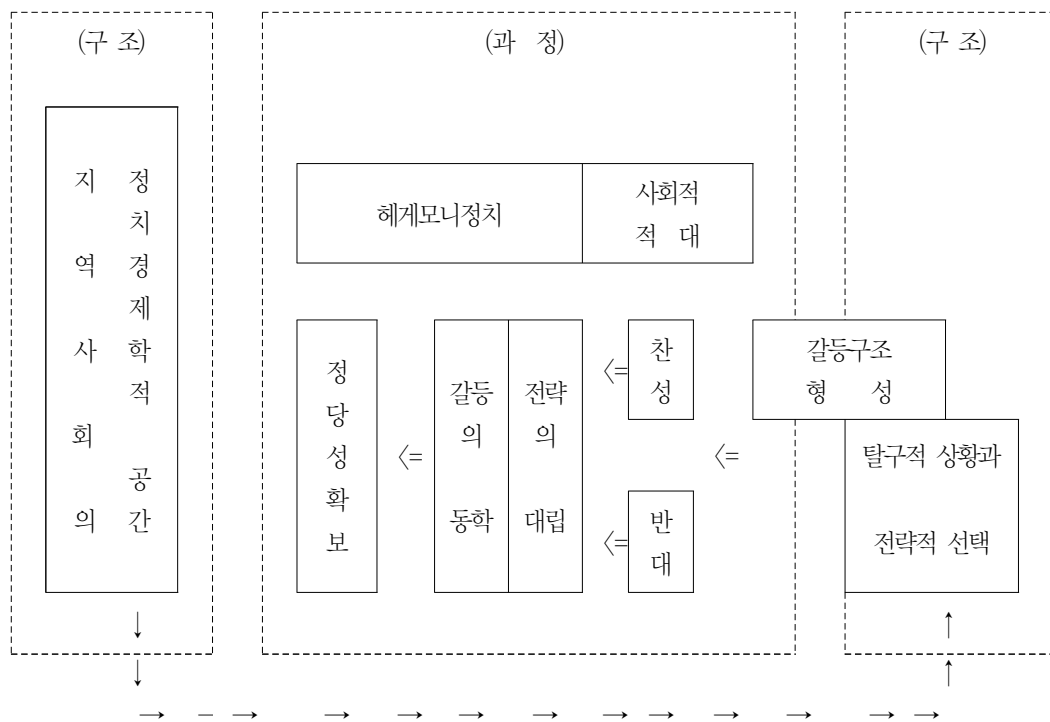
〈표 13〉과 〈표 14〉 그리고 〈표 15〉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는 5장 2절에서 제시 될 것이고, 5장 3절에서 담론 분석 결과와 비교될 것이다.

2. 분석틀의 구성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작업으로 신문

보도 자료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카지노사업의 확장을 둘러싼 제주지역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을 되짚어보려고 한다.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카지노 담론에서 사회적 적대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카지노 담론에서 지역정치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나 확보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 작업은 카지노사업에 대한 사회 조사 결과들을 분석함으로써 카지노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공론화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담론 분석과 비교하는 것이다.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활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분석틀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²³⁾

<그림 1> 지역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공간과 헤게모니정치



23) 김석준(1998a)은 한국사회 신중관계급을 분석하기 위해 계급구조와 계급형성과정을 함께 담아볼 수 있는 계급분석의 틀(김석준, 1998a, 45쪽, 그림 2-1)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자는 김석준의 계급분석의 틀을 열개 삼아 담론분석의 틀로 확장하였다.

〈그림 1〉의 분석틀은 구조와 과정이라는 틀 안에 지역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공간과 헤게모니정치를 끼워넣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공간이라는 구조적 조건은 탈구적 상황에 직면하여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구체화된다. 탈구적 상황과 전략적 선택이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갈등구조가 형성되며 이 갈등구조는 사회적 적대 과정을 통해 헤게모니정치로 나타난다. 사회적 적대는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 차이의 담론적 실천으로 작동하여 전략의 대립과 갈등의 동학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헤게모니 정치과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정당성 확보는 공론화과정을 포함한다. 찬성과 반대는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언론에 표현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따라 찬성과 반대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였다.

이 분석틀에 따라 다음 4장에서는 제주지역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공간 재배치와 관련된 탈구적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지의 하나로 등장한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게 된다. 담론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구조를 조명하고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에서 사회적 적대의 접합적 실천으로 인한 헤게모니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사회적 적대와 정당성 확보는 그 자체가 헤게모니정치가 수행되는 갈등의 동학이며,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을 헤게모니정치의 틀에 따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카지노 담론의 적극적 형성 주체인 성장연합의 정당성 확보가 공론화과정을 통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Ⅳ.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정치 분석

1. 탈구적 상황과 전략적 선택

탈구는 집합을 유지하는 기존 관계 또는 질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중앙정부의 재정 위기라는 탈구적 상황에서, 카지노 담론은 조정 전략의 선택지로 기능하였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본격적 개장을 앞둔 2002년 2월 6일과 22일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당해년도 상반기중 카지노 추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제민일보, 2000년 2월 24일). 제주사회에서 이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적자 운영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던 카지노업계였고, 이 후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은 끊이지 않았다.

2000년 2월, 중앙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 발언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카지노 개장 요구에 대한 헤게모니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기업주의화 전략에 의한 것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의 수익 구조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강원랜드 이외의 지역에 중앙정부 산하 공사 주도의 카지노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다. 이후 추가 허용된 카지노는 2005년의 한국관광공사에 의한 세븐럭 카지노였다. 2000년 중앙정부의 발언은 세븐럭 카지노 개장을 위한 헤게모니적 실천이었고, 제주사회의 카지노업계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다. 카지노 담론은 중앙정부의 헤게모니 전략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를 다만 지역사회 카지노사업 확장의 기회로만 생각하고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켜나갔다.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적 실천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타난다. 중앙정부의 의도는 숨겨져 있었고, 지방정부의 의도는 드러나 있었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은 숨겨진 중앙정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전개되었으며, 제주사회 내부에서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적 실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및 카지노업계가 성

장연합을 형성하면서 구성된다. 카지노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반성장연합을 구성하지 못한다.

기획된 헤게모니적 실천의 첫 단추는 중앙정부에 의한 카지노 담론의 점화였다. 점화된 카지노 담론은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 또는 현 외국인 카지노의 확장에 대한 정당화 시도로 전개되어 나갔다. 제주지역에서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헤게모니적 실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불법적 카지노에 대한 고발이다. 불법 카지노에 대한 고발은 불법 카지노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규제 가능한 틀 안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해야한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 2000년 2월 문화관광부 장관의 카지노 추가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제민일보는 2월 24일 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카지노 업계의 반응을 소개하였고, 26일에 제주도교육청이 기존 교육 정보망인 에듀넷에 사이버 카지노 등의 유해 정보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제민일보, 2000년 2월 24일, 26일).

둘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명이다. 제주지역에 운영중인 외국인 카지노의 영업난에 대한 보도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제와 연결하여 카지노사업의 확장 요구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카지노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세우는 대규모 리조트 조성을 주장할 때면 어김없이 카지노사업의 확장 내지는 단지화가 포함되었고, 해외 투자 자본은 내국인을 고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2002년 9월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에 전국 13개소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8개소가 집중되면서 도내 카지노업계가 공급 과잉으로 가동률이 극히 저조하여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1년도 국내 13개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평균 가동률이 6.2%인데 제주지역 8개소 카지노의 평균 가동률은 1.4%였다는 것이다(제민일보, 2002년 9월 24일). 카지노 영업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도 카지노가 소위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조장함으로써 카지노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기업주의적 경향에 따른 경쟁적 각축 상황이

다. 타 지역에 들어서는 내국인 카지노가 제주 관광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과 카지노 추가 허용에 대한 경쟁적 선점 효과에 대한 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관광객 유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른 지방에서 유치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강원도 카지노 시설 개장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강원도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광 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 시설을 유치하여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관광객 유치를 놓고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미 카지노 관련 인력 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제민일보, 2000년 9월 26일).

세 가지의 해계모니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 카지노에 대한 고발은 조정 전략을 기획함에 있어서 복선을 깔기 위한 것이다. 제민일보는 2000년 2월 24일에 중앙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 검토 발언을 소개하면서 제주 지역 카지노업계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26일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 정보망에 접속해오는 사이버 카지노 등의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했다는 속보를 게재하였다. 이미 불법적인 사이버 카지노가 범람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2000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주지역사회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하였다. 2004년 7월 6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수억대의 불법 도박을 벌이던 내국인이 검거되었다는 사건 소식이 보도되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영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에이전트까지 고용하고는 출입이 금지된 내국인들을 끌어 모아 불법 영업을 벌여왔다는 것이다(제민일보, 2004년 7월 6일). 이후 제주지역의 카지노업계는 제주지역에 외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주지역에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제민일보, 2004년 9월 19일, 20일). 10월에 다시 제주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내국인들을 모아 불법 도박을 벌였다는 기사가 나간 이후, 곧이어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경제 효과를 확인시키겠다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다(제민일보, 2004년 10월 31일, 11월 2일, 21일).

불법 카지노와 관련된 기사의 수는 200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총24건이었다. 2005년 8월 11일에서 2006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12건의 보도가 집중되었다. 이후 2006년 2월 7일 한국관광학회에서 컨벤션센터 수익 방안으로 내국인 면세점과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제시하는 용역 결과 발표가 보도되었다. 2006년의 나머지 기간에 5건의 보도가 있었는데, 2007년 5월에 FTA 관광 대책 토론회에서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명 역시 헤게모니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2002년 8월 2일에 제주지역 카지노업계가 매출 감소로 올상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간 후, 13일에는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그리고 20일에는 내국인 카지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9월 11일에는 제주도정이 카지노와 지역 항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2002년 상반기 동안 일본인 관광객이 21% 감소하면서 K호텔 카지노가 100억원에서 65억원으로 G호텔 카지노가 158억원에서 155억원으로 S호텔 카지노가 95억원에서 85억원으로 C호텔 카지노는 70억원에서 52억원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와 호텔 간의 새로운 짝짓기와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제민일보, 2002년 8월 2일, 13일).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상황을 빌미로 다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02년 8월 20일이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1일 현경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정부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못되어 우근민 지사는 오픈카지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제민일보, 2002년 9월 11일). 2008년에도 일본인 카지노관광객의 정체로 카지노업체의 매출이 지난 해에 비해 10.8%에 해당하는 75억6600만원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온 일주일 후, 제주도관광협회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를 본격화하겠다고 유치사업비 1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포함하였다는 보도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 추진단 구성 계획안이 작성되었다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제민일보, 2008년 2월 18일, 26일, 3월 4일). 2009년에도 동일한 기사 배치가 이루어졌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감소하여 카지노 목적 반입 외국환이 2007년 9111만달러에서 2008년 8641만달러로 17% 감소하였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 날, 제주관광협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제민일보, 2009년 1월 13일, 14일).

지방정부의 기업주의적 경향에 따른 경쟁적 각축 상황 그 자체가 중앙정부가 기획한 체계모니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4월 문화관광부는 총선 이후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4개 지역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하였고, 새로 허가될 카지노 영업권을 따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제민일보, 2000년 4월 17일).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추가 허가 검토를 공식화한 시점은 8월의 강원도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스몰카지노 개장을 앞둔 상태였기에, 제주지역을 비롯한 국내의 카지노업계에서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겨냥하고 준비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강원도 정선에 국내 최초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문을 열면서 전국에 카지노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는 제민일보의 진단은 경남 부곡온천 일대의 관광업소를 중심으로 한 창녕군 부곡관광협의회가 경상남도정과 창녕군청의 협조하에 부곡 온천 지구내 카지노 유치에 나선 사실과 경기도(하남, 안산, 광주), 경북(문경), 충남(대천, 안면도), 충북(수안보), 서울(이태원), 인천(용유, 무의도) 등 10여 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카지노 유치 계획을 밝힌 점에 근거한 것이다(제민일보, 2002년 11월 17일). 중앙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 카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카지노 유치 경쟁을 초래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산하 관광공사의 카지노 설립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문화관광부의 서울 2곳 부산 1곳의 신규 허가 결정(제민일보, 2004년 9월 3일)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관광공사를 통한 2005년의 세븐럭 카지노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이다. 관광공사의 세븐럭 카지노 설립은 제주지역 카지노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였고(제민일보, 2005년 11월 23일, 2006년 1월 8일, 2006년 3월 1일),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층 더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제민

일보, 2006년 3월 1일, 2008년 1월 28일). 그러나 제주지역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촉구는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등의 유치 경쟁 속에서 그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였다(제민일보, 2008년 1월 28일). 내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경쟁은 지역 단위에서 선점 논리를 주장하게 만들었고, 선점 논리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찬성측의 명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적 실천은 의도적인 조정 전략에 의해 조성된 복선이었다. 각각의 헤게모니적 실천들이 복선으로 깔리고 조정 전략으로 기획되면서 제주지역사회의 카지노 담론은 세 시기로 구분되어 구성된다. 각각의 시기 구분을 헤게모니적 실천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카지노 담론의 시기 구분

시기 구분			헤게모니적 실천	
시기	기준	기간과 성격	주요 내용	성격
1	2000년 2월 추가 허용 검토	2000-2005 기획 담론	불법 카지노	합법화 복선
			카지노업계 영업 실적 감소	내국인 전용 복선
2	2005년 1월 세븐럭 카지노 허가	2005-2007 여론 조성	불법 카지노	내국인 허용 복선
			영업 실적 감소 및 인력 유출	내국인 전용 복선
3	2007년 12월 통합신당 선거공약	2008-2012 공론화 기획	유치 경쟁의 각축 상황	선점 논리
			기업주의 도시의 수익사업	경제 논리

첫 번째 시기는 2000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강원랜드의 스포카지노 개장 이후 중앙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과 관련된 일련의 담론이다. 이 시기에 카지노 담론은 불법 카지노의 실태 및 카지노업계의 영업 실적에 관한 보도들에서 비롯되었다. 불법 카지노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국인들의 카지노 욕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과 카지노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한 카지노업계의 영업 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 은폐된 목적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2005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세븐럭 카지노 개장 이후 제주사회 카지노업계의 영업 실적 감소와 카지노 관련 인력 유출에 관한 보도들이 카지노업계

의 구조 조정 및 카지노사업 확장과 관련된 담론들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는 2008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2007년 12월 12일 당시 통합신당이 관광객 카지노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2008년 1월 자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민일보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전향적 찬성 사실을 게재하면서 촉발된 내국인 카지노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내국인 카지노 유치 경쟁 상황에서 비롯된 선점 논리가 카지노 담론의 주를 이루었다.

중앙정부에서 카지노 추가 허용 검토를 시사했던 2000년 2월 이후 제주사회에서는 불법 카지노 문제와 카지노업계의 영업 실적 감소를 들어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설해야 한다는 담론이 생성된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들의 찬반 담론을 거치면서 결국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된 것은 한국관광공사의 세븐럭 카지노의 개장이다. 세븐럭 카지노가 개장된 2005년 하반기 제주사회에서는 내국인의 불법 카지노 문제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면서 내국인에 대한 카지노장 출입 허용이 주장되고, 제주도정의 수익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안된다.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반복된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제안들로 제주사회에서 조성된 카지노 담론은, 2007년 대선국면의 선거 공약을 기화로 공론화과정에 접어든다.

2. 카지노 담론의 사회적 적대성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의 등장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종의 기획이다. 중앙정부는 치고 빠지기식 전략으로 중앙정부 산하의 관광공사를 통해 카지노를 개장한다.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은 제주도정의 기업주의 전략과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의 생존권 투쟁 등으로 담론이 활용되면서 찬성과 반대라는 담론의 대립각이 형성된다.

1) 찬성 진영의 카지노 담론

제주사회의 카지노사업을 확장해야한다는 찬성 입장의 첫 번째 논리는, 국제 자유 도시와 관광 개발(제민일보, 2000년 3월 25일)이었다. 2000년 당시 TV 정책 토론회에서 현경대 후보는 사행성 도박 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대권 후보는 외자 유치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고(제민일보, 2000년 4월 5일), 우근민 도정은 재정 확충, 지역 경제, 고용 창출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카지노 도입 문제를 공론화시켜나갈 방침임을 밝혔다(제민일보, 2000년 4월 26일). 이후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정의 의지와 이를 위한 서명 운동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관광협회의 행보들에 대한 기사가 넘쳐났지만, 구체적인 찬성의 이유를 밝히는 논리는 기사 수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었다.

〈표 17〉 카지노사업 확장 추진의 논리

일자	주장 주체	주장 근거
'00년 3월 25일	민국당, 한나라당 일부	관광개발
'00년 4월 5일	김용철 후보, 정대권 후보	외자유치
'00년 4월 25일	제주도정	관광산업활성화
'00년 4월 26일	제주도정	재정확충, 지역경제, 고용창출
'00년 11월 1일	제주도정	투자유치
'01년 1월 5일	도관광협회	관광살리기
'03년 7월 27일	카지노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51% 찬성
'08년 1월 2일	제민일보	당보 설문조사 결과 62.5% 찬성
'08년 2월 4일	관광협회	해외 카지노 유출 자금 국내 유도
'08년 5월 12일	제민일보	당보 설문조사 결과 63.5% 필요
'08년 8월 17일	제주관광학세미나	국제관광경쟁력, 관광수지적자 해소
'08년 10월 23일	강창일 의원	제주도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08년 11월 13일	관광협회	설문조사 결과 74.4% 찬성
'09년 1월 15일	도 관광정책담당자	관광 제주 새로운 돌파구
'11년 2월 25일	문화관광심포지엄	경제 활성화, 관광 자원
'11년 7월 15일	문성중 교수(도민공청회)	카지노만큼 좋은 수익 사업 없다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제민일보 기사를 통해 표출된 찬성 입장의 논리를 정리한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지노사업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의 논리는 관광 개발, 외자 유치, 재정 확충, 지역 경제, 고용 창출이었다. 주장하고 있는 주체는 정치권과 제주도정, 그리고 관광협회 및 카지노산업 관련자들이다.

제주지역 신문들의 사설을 통해 나타난 카지노산업과 관련된 찬성 입장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카지노 도입 찬성 입장의 사설

일 자	내 용	신 문
2008년 1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를 먹여살릴 동력이 관광이라면, …… - 쇼핑아웃렛이든, 관광객전용 카지노든 관광제주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끌어들이야 	제민일보
2008년 9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성장동력 - 국부유출 방지 - 제주방문객 64.3% 제주적지, 72.1% 성공가능 - 대세의 흐름, 유치경쟁 본격화 	한라일보
2008년 10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과 자본 유입책 - 고부가가치 산업 - 국제자유도시 	제주일보
2008년 11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카지노관광 외화유출 방지 - 도민 65% 찬성 - 고용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학교급식지원 등 지역환원정책 	한라일보
2009년 3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 산업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산업 - 연관 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 관광산업 경쟁력 	제주일보
2009년 12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선결 핵심과제 - 최고수준 국제자유도시의 고부가가치적 변신 	제주일보
2011년 2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 선점 효과 	한라일보

지역 신문사들의 사설에서 카지노에 대한 찬성 입장이 등장하는 것은 2008년 이후이다. 제민일보는 관광업계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오픈카지노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외의 타 광역 자치 단체들도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찬성론자들의 논리에 편승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제주 관광 나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나선다. 다만 부정적인 도민 정서가 상존하니 도민에 대한 설득이 가장 큰 문제이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론화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제민일보, 2008년 2월 18일). 5월에도 제민일보는 공론화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국인 카지노를 둘러싼 소모전으로 도민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도민 공감대의 조속한 형성을 촉구하였다(제민일보, 2008년 5월 12일). 제민일보의 2008년 사설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하여,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라는 찬성에 기울어진 중립적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라일보와 제주일보는 적극적으로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9월 한라일보는 카지노가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도민 공청회 제안 설명자의 주장을 들어 내국인 카지노의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전북 새만금을 비롯 경기도 평택 등이 카지노 유치에 적극 뛰어든 상태에서 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주 관광의 미래를 내다보는 큰 틀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라일보, 2008년 9월 26일). 제주일보 역시, 2008년 10월에, 도의회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추진 여부를 10월까지 도민 사회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6개월 전 김태환 지사의 도의회 보고를 상기시키고는, 국제 자유 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는 카지노를 단순히 사회·문화적 악영향 측면에서만 다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니 정부는 제주도의 카지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지노를 더 이상 도박 산업이란 시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의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제주일보, 2008년 10월 13일).

2008년 11월의 한라일보 사설에서는 도민 인식의 변화를 들어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나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지역 환원 정책을 주문하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도민 사회의 전향적 검토와 제주도정의 슬기로운 행보를 거듭 촉구하였다. 2009년 3월 제주일보 사설에서도 국제 관광지에서 카지노는 도박 산업이라기보다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표 18〉에서 확인되는 카지노사업의 도입과 관련된 2008년 이후의 사설들을 살펴보면, 찬성 입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항목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 관광객과 자본 유입책, 고부가가치 산업,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연관 산업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산업 경쟁력,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선결 핵심 과제, 최고 수준 국제 자유 도시의 고부가가치적 변신 등이 하위 항목으로 묶인다. 두 번째는 해외 카지노 여행으로 인한 국부 유출 방지이고, 세 번째는 지역 환원 정책을 가능케 하는 도정 수익 증대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도민의 찬성 비율이다. 정리하면,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부 유출 방지, 도정 수익 증대, 도민 찬성 비율이다.

2010년 11월,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조사의 하나로 여론조사 외에 전문가 집단 심층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이 이루어졌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0-301). 제주지역의 전문가들은 학계, 카지노업계, 관광업계 실무자 등 4명의 찬성 입장과 학계, 도박 중독 치유 및 치료 기관, 시민단체 종사자 등 5명의 반대 입장으로 그룹을 나누어 실시하였고, 제주도의 전문가들의 경우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학계, 연구기관, 카지노업계, 관광업계, 사감위 위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상호토론을 진행하였다.

제주지역의 찬성 입장 그룹은 카지노가 레저산업의 일부이며 도박이라기보다는 오락과 즐길거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해하였으며, 딜러와 개인 참여자간의 승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 참여자간의 게임이라고 전제하였다. 사행성과 퇴폐성의 충격적 사건만을 집중하여 과장 보도되는 탓에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것이라며 카지노

의 긍정적 측면이 무시되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제주지역에 카지노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제주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내세웠으며,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영어 교육 도시, 헬스 케어 산업 등에서 제주도민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립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 마련의 도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자연 환경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그 수익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주 경제와 제주 재정의 자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카지노라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었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1-92).

부정적 효과의 원인은 카지노 자체보다 여가 문화의 부재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성숙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부정적 효과의 1차 피해자가 지역 주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가 문화가 성숙될 때까지 한시적인 제한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지역의 카지노 역사가 40년이 넘으면서 카지노를 거쳐간 직원 수가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제주도민 중에 카지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3).

반대 입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찬성 입장의 그룹에서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카지노의 부정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카지노는 결국 도박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카지노를 이용한 경험도 없이 다만 도박 중독증에 빠진 몇몇 사례로 인해 많은 사람의 오락과 여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강원랜드를 준거로 하여 도박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랜드는 명백한 실패 사례이며, 강원랜드의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안정적인 레저 산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2).

도외 내륙의 전문가 집단은 카지노에 대한 이해 및 국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상태임을 전제하면서, 사행은 기본적인 욕망이고 현실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므로 억압 보다는 적극적 대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론적으로 경마장의 폐해 등을 경험한 제주도민들이 설치를 반대할 것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제주지역의 전체 경제를 고려하여 허용해야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해외에서 소비되는 카지노 이용 금액을 국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표출하였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8).

제주사회에서 찬성 입장의 카지노담론을 이끌면서 성장연합을 구성한 주체들은 정치권과 도정, 그리고 카지노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업계이다. 찬성 진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 국부 유출 방지,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 증대, 도민 찬성 비율, 여가 문화의 권리 등을 찬성의 근거로 내세운다. 반대 입장의 부정적 선입견은 도박 중독에 대한 과장된 이해로 인한 것이며, 도박 산업이 아니라 도박 산업으로서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레저 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입장에 대한 찬성 진영의 설득논리이다.

2) 반대 진영의 카지노 담론

제주사회의 카지노산업을 확장하는 구상에 반대하는 입장의 첫 번째 논리는 사행성 도박 산업이라는 이유였다. 2000년 당시 TV 정책 토론회에서 정대권 후보가 오픈카지노를 국제 자유 도시와 관련해 외자 유치의 옵션 정도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현경대 후보는 당장 외자 유치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사행성 도박 산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제민일보, 2000년 4월 5일).

〈표 19〉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제민일보 기사를 통해 표출된 반대 입장의 논리이다. 〈표 19〉에서 확인되듯이, 카지노사업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는 카지노가 도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환경 및 공동체의 파괴, 가정 파탄과 자살 속출 및 범죄와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 사행성, 지역 경제 역효과, 국외 카지노와의 경쟁력 열세, 사회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국제 자유 도시의 가치는 평화의 섬에 있다는 논리였다. 반대 입장의 논리를 펴면서 반성장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들이다.

〈표 19〉 카지노사업 확장 반대의 논리

일자	주장 주체	주장 근거
' 00년 4월 5일	현경대 후보	사행성 도박 산업
' 00년 7월 10일	범도민회	정당화 논리 경계
' 00년 11월 1일	제민일보	제주도의 도박장화
' 00년 11월 2일	범도민회	도민여론, 환경 및 공동체 파괴
' 00년 11월 8일	제민일보	평화의 섬, 도박천국 거부
' 00년 11월 10일	범도민회	평화의 섬, 내국인출입면세점이 대안
' 01년 12월 7일	경실련	도박천국 거부
' 02년 8월 20일	참여환경연대	사회적 부작용 지역경제 역효과
' 02년 9월 13일	제민일보	만병통치약 부정
' 03년 2월 13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도박성
' 03년 5월 14일	경실련	사회문제, 사회경제적 재비용, 도박
' 03년 6월 2일	경실련	발전연 설문조사 결과 반대 우세
' 06년 7월 13일	제주여민회	한탕주의
' 08년 4월 15일	강원철 의원	가정 파탄, 자살 속출, 도박 중독
' 08년 9월 29일	시민단체	공청회 시기 상조 불참
' 08년 11월 13일	경실련	사실상 국외 카지노와 경쟁력 없다
' 10년 6월 29일	참여환경연대	도박, 사회 갈등, 사회적 비용 부담
' 08년 9월 29일	문화관광 심포지엄	범죄율, 도박 중독자,
' 11년 7월 15일	이영웅(도민공청회)	제주의 가치 살려낼 수 없다

지역 신문사들의 사설은 2008년 이전까지 카지노 반대의 논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0년 4월 제민일보는 제주도정이 끝내 도박 산업 유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약간의 지방세수 확보와 다소의 관광 활력을 위해 제주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없으니 공론화를 자제하라고 촉구하였다(제민일보, 2000년 4월 27일 사설). 2000년 5월에도 제민일보는 문화 관광이 카지노 관광일 수는 없다고 도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제민일보, 2000년 5월 9일 사설). 제주일보도 2002년 12월에 제주에 내외국인 공용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도민 출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제주일보, 2002년 12월 8일 사

설). 한라일보는 반대 입장의 사실을 게재하지 않았다. <표 20>은 카지노사업의 확장에 반대하는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0> 카지노 도입 반대 입장의 사실

일 자	내 용	신 문
2000년 4월 27일	- 도민사회 갈등 유발 - 국민 도박장	제민일보
2000년 5월 9일	- 도박장인 카지노 천국에 대한 도민 저항	제민일보
2000년 7월 11일	- 조직적 범죄 및 사회적 폐해 - 도민 정체성	제민일보
2000년 11월 2일	-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토 우려 - 외국자본유치 위해 다 내어줄 순 없다	제민일보
2002년 12월 8일	- 도민 반발 - 강원랜드의 가산 탕진, 자살, 도박중독 사례	제주일보

<표 20>의 목록을 살펴보면, 주로 제민일보의 사실을 통해 반대 입장이 대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제민일보는 2008년 이후에도 공식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반대 입장의 기초를 유지하며 도민 갈등 해소를 주문하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공론화과정을 전제로 한 전향적 찬성 입장을 보여주었다. 제주일보는 2002년의 사실에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2008년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고, 한라일보의 사실을 통해서도 반대 입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제주일보는 2004년 11월에 제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내국인 도박의 덫에 걸려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을 꼬집었고²⁴⁾, 한라일보는 2005년 10월에 불법 카지노바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광 제주의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주문하였다.²⁵⁾

24) 제주일보, 2004년 11월 2일 사실. 이 사실의 경우, 내국인 카지노를 반대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5) 한라일보, 2005년 10월 18일 사실. 이 사실의 경우도 내국인 카지노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사업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사설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카지노사업의 도박성과 사행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우려이고, 둘째는 도민 사회의 갈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확천금의 풍토 확산, 가산 탕진, 자살, 도박 중독 등과 도민 사회 갈등, 도민 정체성, 도민 반발 등이다.

2010년 11월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조사의 FGI에 반대 입장으로 참가한 제주지역의 전문가들은 제주지역의 학계, 도박 중독 치유 및 치료 기관, 시민단체 종사자 등 5명이었다. 이들은 레저와 도박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만 카지노는 도박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하고는, 20년 전 경마장 설립 때도 제주 관광과 연결해서 홍보를 했었으나 결국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주도민이고 이용자들의 가정 파탄과 도박 병폐가 사회 문제화 되었음을 지적하였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4).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제주지역의 전문가들은 경마장 이용객 대부분이 즐길거리나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서 경마를 하고 있다는 점과 제주도의 지리적 고립성이 사회적 부작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용객이 도박 중독자가 되어 제주지역에 남게 될 경우 제주 도민들이 감당할 몫으로 부과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주장하였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6). 특히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이나 간접 비용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고서 경제적 효과를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제주도 이미지가 훼손됨으로써 기존관광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고, 저임금에 비정규직일 일자리가 고용 창출 효과가 되는 것 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했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5쪽).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개설을 가정할 경우, 소유 구조가 100% 통제 가능하고 수익금 사용의 조례를 세워 공사 형식을 취하여 민간 이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96).

도의 내륙의 전문가 집단 역시 원론적으로 무의미한 가정임을 전제하면서 민간 지분이 없는 전적으로 공사 형태의 모델이어야 한다는 점에 제주지역의 전문가들과 입

아니다.

장을 같이 했으며, 경제 논리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제주 관광산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도박 중독은 개인의 자율적 행위 이후에 사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도박 중독의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300).

제주사회에서 반대 입장의 카지노 담론을 이끌며 반성장연합을 구성한 주체는 시민사회단체이다. 반대 진영은 도박성과 사행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도민 사회의 갈등, 사회적 비용 등을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찬성 입장의 긍정적 선입견은 경제 효과에 대한 과장된 이해로 인한 것이며, 관광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찬성 진영에 대한 반대 진영의 설득논리이다.

3)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사회적 적대성

헤게모니는 정체성의 구성에 강조점을 두는 개념이다. 헤게모니적 담론들의 정체성이 주체를 구성하는 중심적 역할을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적 적대 개념이다. 사회적 적대 개념은 피아 식별이라는 구성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성장-반성장 담론의 사회적 적대성을 살피기 전에 먼저 피아 식별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들에서 피아 식별이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은 카지노 담론을 통해 작동하는 헤게모니정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담론 주체로서 담론의 사회적 적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갈등하고 대립하는 피아로서 담론의 대화적 기능이 수행되고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담론 주체들 중에서 피아식별이 가능한 대상을 살펴보면, 성장연합을 구성하는 찬성 담론의 주체로서 제주도정과 관광협회 및 카지노업계를 들 수 있고, 반성장연합을 구성하는 반대 담론의 주체로서 범도민회, 참여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를 들 수 있다. 재정 위기라는 탈구적 상황에서 헤게모니적 실천으로 카지노 담론에 불씨를 지핀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카지노사업의 확장이라는 찬성 담

론을 펼치지만, 지역에서의 카지노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반대 담론을 펼친다. 정치권도 찬성과 반대 양 진영의 담론주체로 등장한다.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가 살 길은 관광객 카지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지만(제민일보, 2008년 10월 23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관광객 카지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였다(제민일보, 2008년 11월 13일). 2000년 TV 정책 토론회에서 현경대 후보는 카지노는 사행성 도박 산업이며 추진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정대권 후보는 외자 유치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제민일보, 2000년 4월 5일). 사실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의 첫 출발은 1997년 국제컨벤션센터의 수익 구조로 카지노를 구상하였던 신구범 지사라고 할 수 있다. 신구범 지사는 제주개발공사의 카지노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우근민 지사는 국제컨벤션센터와 독립적으로 카지노를 추진하였고, 이후 제주도정은 카지노에 대한 추진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해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 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주의 도시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지방 및 중앙의 정치권 역시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이익을 추구한다.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에서 정치권과 정치에 종속된 행정이 찬성 입장의 견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찬성 담론으로 성장연합을 구성하는 주체는 제주도정과 관광업계 및 카지노업계이다.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찬성 담론의 주체로 기능하였다. 반대 담론으로 반성장연합을 구성하는 주체는 참여환경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찬성 입장의 담론 주체인 관광업계와 카지노업계는 시민사회단체 성격의 카지노 생존권 확보 투쟁 위원회, 제주 사랑 실천 연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을 결성하면서 반대 입장의 담론 주체가 담보하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라는 대표성을 약화시켰다. 담론 주체 형성 및 담론 전개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제주사회의 언론은 대체로 찬성 입장의 담론적 주체로 기능함으로써 효과적인 담론 전개의 장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제주일보와 한라일보는 찬성입장의 담론을 주로 대변하였고, 제민일보도 2008년 이후의 사실에서는 찬성 입장의 담론을 대변하였다.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찬성측은 적극적으로 담론을 확장시키면서 성장연합의 주체로 구성되었으나, 반대측은 적극적인 담론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반성장연합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아 식별은 가능하나, 담론의 사회적 적대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일방적인 담론으로 전개되었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주체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담론의 대화적 기능 역시 작동할 수 없었다. 반대 진영과의 헤게모니정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찬성 진영에 의해 주도된 카지노 담론은 자갈길을 걷는 정도의 수준의 일방통행적 전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사회적 적대성은 제주사회 내부의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고, 제주사회 내부의 카지노 유치와 중앙정부 차원의 카지노 확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카지노 담론은 중앙정부의 전략적 기획에 의한 헤게모니적 실천이었다. 제주사회 내부에서 카지노를 찬성하는 진영에서 주도된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적 실천은 부지불식간에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담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제주지역에 카지노사업 확장을 통해 자본 축적 순환을 피하려는 도내 카지노업계 및 관광업계와 제주도정 그리고 제주도정의 해외 투자 욕구 및 추진을 기회로 포착한 해외 투자 자본으로 구성되는 성장연합은 제주도정의 대중앙 교섭과 시민사회단체로 위장한 카지노업계의 대중앙 투쟁 등으로 적극적인 담론 전개를 통해 헤게모니적 실천의 주체로 등장한다. 중앙정부는 경제 효과만으로 치장된 용역 결과들만을 근거로 신규 카지노를 제주지역에 허가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성장연합 주체들이 제기한 경제 효과를 근거로 중앙정부 산하 공사의 카지노사업을 확정한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주지역의 카지노사업 확장을 위한 성장연합은 미처 반성장연합의 주체로 구성되지 못한 반대 담론과 제휴하여 중앙정부에 객관적인 자료의 근거로 또 다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허용을 요구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것이 2009년도에 제주관광공사가 발주하여 2010년에 결과를 보고받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경제적·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 용역이다. 결국,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은 제주사회 내부의 찬성과 반대가 성장과

반성장연합으로 사회적 적대를 이룬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찬성과 반대를 하나의 정당화 근거로 삼은 성장연합의 제주지역 내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요구와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성장연합의 지역 단위 카지노 추가 허용 불가라는 사회적 적대로 나타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제주사회 내부의 카지노 담론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헤게모니정치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3.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의 헤게모니정치

1) 제1시기 기획 담론(2000년-2005년)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의 시초는 국제컨벤션센터의 수익사업에 대한 1997년 구상이다. 그러나 논의 수준에서 그치고 더 이상 전개되지는 않는다. 강원 지역에서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석탄 합리화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고 제주지역사회의 지방 정치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달라진 지방 정치 구도는 자립 경제를 목표로 하던 민선 1기에서 중앙 지원 확충을 목표로 하는 민선 2기로의 전환을 가리킨다. 2000년 강원도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앞두고 카지노장 추가 개설 허용 검토라는 중앙정부의 발언이 제주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카지노장 추가 허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내국인 전용 카지노의 추가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부터 찬반 논란이 시작된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오픈카지노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용철 후보는 오픈카지노는 외자 유치의 옵션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제주도민의 의식과 절약하는 생활방식에 비추어 오픈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은 크게 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현경대 후보는 슬롯머신 게임기 정도의 오픈카지노를 전제하면서 외자 유치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 정대권 후보는 강원도가 제주 공항 소규모 카지노 반대 경험을 들어 앞장서지 않으면 카지노라는 외자 유치 인센티

브를 놓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제민일보, 2000년 4월 5일). 총선이 끝나고 문화관광부가 문화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문 카지노 단지 조성을 사업 계획에 포함시킨 것이 알려지면서(제민일보, 2000년 5월 8일), 참여 자치와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 범도민회가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할 오픈 카지노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2000년 11월 2일).

대통령이 강원도 고한읍 외의 어느 지역에서도 오픈카지노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카지노 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2000년 11월 8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스포 카지노가 개장한 후, 제주도정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재추진 계획을 만지작거렸고, 범도민회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도민 사회의 합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제동을 걸었다(제민일보, 2000년 11월 8일, 10일). 도민 사회의 합의 도출 전제라는 단서는 이후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을 저울질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찬성 담론도 반대 담론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범도민회의 반대에 맞서 제주도관광협회가 오픈카지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대중양 절충 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였다(제민일보, 2000년 11월 28일). 우근민 지사도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이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며 덩달아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가 슬쩍 관광협회를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발을 빼기도 하였다. (제민일보, 2000년 12월 2일, 4일). 2001년에도 도정은 수익성과 고용 효과 그리고 외자 유치를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 추진 의지를 밝혔고(2001년 12월 5일), 2002년에는 도관광협회가 가장 확실한 관광산업이기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대선 공약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포함시켜줄 것을 현경대 의원을 통하여 요청하였고, 우근민 지사가 이를 뒷받침하며 제주도정의 경제적 현안 문제들에 대해 카지노를 연계시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2002년 8월 20일, 9월11일, 13일). 산업정보대 호텔경영학과의 김영진이 제주 관광의 변혁과 관광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게재(제민일보, 2002년 10월 3일)한 것도 관광협회와 도정의 의지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문 단지 20억달러 투

자 의향을 밝힌 미국 투자업체가 카지노 시설 허용을 전제하고 있음에 대한 투자 유치 실무 위원회가 당년 10월 8일에 열릴 것(제민일보, 2002년 10월 6일)에 대비한 복선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정은 2003년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카지노 허가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열렸던 제주도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의 분위기를 전한 것(제민일보, 2002년 10월 8일)도 찬성 담론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였다.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규제를 풀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방침을 밝힌 후 제주도정은 산업자원부 주관의 외국인 투자 실무 위원회에서 카지노 영업 허가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으며, 강원랜드, 라스베가스 등에 대한 카지노시찰을 계획하였다(제민일보, 2002년 10월 9일, 27일).

2003년 1월에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실무위원회에서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종합 계획안을 제주도정의 요청 원안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카지노 시설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진지(제민일보, 2003년 1월 9일) 4개월 후에야 반대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물꼬를 튼 것은 제민일보의 사설이었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와 제주도내 8개소 카지노업체가 내국인 관광객의 카지노장 입장 허용을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제민일보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함께 짚으면서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제민일보, 2003년 5월 13일). 바로 그날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정선 카지노의 경우 자살, 파산, 이혼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양산해 사회경제적 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카지노업체들의 건의가 제주도 당국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 의지와 정책적 틀을 같이하고 있으니 도당국이 도박 천국의 미련을 먼저 버리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였다(제민일보, 2003년 5월 14일).

학계와 관광협회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선 카지노 방문단의 시찰 과정에서, 우근민 지사는 강원도보다 정치력이 약한 제주도정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도정이 앞장설 수 없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감귤업계나 관광업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도정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제민일보, 2003년 5월 25일). 시찰 현장에서 이루어진 간담회였고 시찰 현장

에서 발표된 입장정리였다. 이를 두고 제주경실련은 도정의 내국인 카지노 포기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우근민 지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스스로 토로하였다(2003년 5월 26일). 관광협회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추진 실무 위원회는 연간 관광객이 최대 500만명도 안되는 시장 규모에서 수익성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며(제민일보, 2003년 5월 28일),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카생투는 도민 1047명의 설문결과라면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얻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 51% 찬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제민일보, 2003년 7월 27일), 꺼져가는 카지노 담론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이후 관광협회와 카지노업계는 카지노업계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면서 카지노업계의 생존권 모색이라는 틀을 유지하였다.

2004년 7월에 제주관광대학이 제주지역 카지노 활성화 대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제민일보, 2004년 7월 1일), 카지노 담론은 생존권 차원의 민간 유치 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세미나에서 주장된 내용은 도내 카지노업체의 통폐합과 육지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 한시적 출입 허용에 대한 것이었다. 2004년 9월 3일 중앙정부가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발표에 따라 카생투는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카생투의 김상우 기획위원장이 제한적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제민일보, 2004년 9월 20일), 카생투는 정부의 카지노 신설 허가에 반발하며 상경 집회를 포함한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다(2004년 10월 1일, 5일, 15일, 11월 2일). 김태환 지사도 국정 감사 자리에서 카지노업계의 구조 조정을 다짐하면서 카지노업계의 건의 사항을 협의하고 나섰다(2004년 10월 18일). 카생투는 제주지역 카지노사업장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제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줄 것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지만(2004년 11월 21일), 제주도정은 이미 발을 뺀 상태로 카생투의 찬성 담론에 가세하지 않았고 중앙정부에서만 제주지역의 카지노와 관련한 정책들을 산발적으로 논의하는 정도로(제민일보, 2004년 12월 23일) 제1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매듭지어진다.

제1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강원도의 정선 카지노 개장으로 촉발된 제주도정과 제

주지역 카지노업계의 연합 구도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도정과 관광협회가 주거니 받거니 찬성담론을 이끄는 동안 반대 담론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일회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제주사회 내부에서 카지노 담론을 둘러싼 헤게모니정치는 작동하지 못하였다. 우근민 지사가 이끌었던 강원랜드 방문단이 벤치마킹한 결론은 감귤 생산자 및 관광업계의 생존권 투쟁이었으나, 관광업계 특히 카지노업계 외에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찬성 담론에 합류하지 않았다. 우근민 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포기하면서 토로한 강원도보다 정치적 세가 약한 제주도정의 능력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실토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1시기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정치는 제주사회 내부와 제주사회 외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앙정부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사회적 적대는 지방 대 지방도 아니었고, 지역사회 내부의 찬성 대 반대도 아니었다. 지역 수준에서의 카지노 담론으로 인해 반대 입장의 진영들은 중앙 수준에서의 사회적 적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 중앙정부의 정치적 추진 전략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하며 들러리를 선 형국이다. 2000년 중앙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 검토 발언으로 시작된 제주사회 제1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2004년 9월 중앙정부의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신규카지노 허용이라는 발표로 일단락 짓게 된다. 중앙정부는 4년에 걸쳐 제주사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카지노 담론을 부채질했으며, 중앙정부 산하의 관광공사 주관으로 카지노 3개소가 설립되었다.

2) 제2시기 여론 조성(2005년-2007년)

2005년 1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최종 허가되고 개장을 준비하면서,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은 제2시기에 접어든다. 제2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한국관광공사의 세븐럭 카지노 개장을 전후로 카지노 관련 종사 인력 유출의 문제와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의 이동으로 인한 영업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관광공사

는 2004년 11월 30일에 서울 2곳 부산 1곳의 카지노 영업 허가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최후의 협상 카드로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투쟁위원회가 제안한 것은 국내 카지노업체 컨소시엄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의 카지노 리조트였다(제민일보, 2005년 1월 24일).

2005년 1월 30일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영업 허가 신청에 대해 카지노 영업을 위한 독립 법인(자회사)을 설립토록 하고 수익금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조건을 내걸어 최종 허가하였다(제민일보, 2005년 1월 30일). 1200여명의 카지노 관련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카지노업체는, 15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설립으로 인한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제민일보, 2005년 2월 1일), 실제로 한달여의 기간 동안 25명 내외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50여명이 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제민일보, 2005년 3월 3일). 제주지역의 카지노업체는 영업난과 인력난으로 인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고(제민일보, 2005년 3월 28일), 실제로 그랜드호텔 카지노와 롯데호텔 카지노가 두 지붕 한 가족을 선언하며 공동대표와 공동임원진이라는 형식으로 통합하였다(제민일보, 2005년 10월 2일). 미국 10대 그룹 가운데 하나인 제이콥스 그룹의 제이콥스(Jeffery Jacobs)회장은 2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 단지의 독점적 조성 계획에 대한 허가를 제주도정에 주문하였다(제민일보, 2005년 6월 29일). 제이콥스 그룹의 투자 의사 표명을 기점으로 제주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 자본의 유치가 거론될 때마다 카지노가 투자 조건으로 따라붙었고, 제주도정은 투자 유치라는 실적을 위해 카지노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노력에 매달렸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제2시기는 한국관광공사의 세븐럭 카지노 개장이라는 상황에서 인력난과 영업난이라는 발목에 붙잡힌 채 회생의 길을 모색하는 기간이었으며, 이를 기화로 외국 투자 자본이 제주지역에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타진하였고, 실제로 카지노를 인수하기도 하였던 기간이다. 이 두 가지의 흐름은 또 하나의 흐름과 맞물려 내국인 출입 허용이라는 카드를 주장하는 원인이 된다. 그 하나의 흐름은 다름 아닌 불법 카지노의 등장이다. 세븐럭 카지노의 개장 이후 제주지역 카

지노업계는 영업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카지노사업장에 내국인을 불법으로 출입 시키기 시작했으며, 불법적인 소규모 카지노바도 등장하였다.

제1시기의 기점이 카지노 신규 허가 검토 발언이었고, 제2시기의 중심이 세븐리 카지노의 개장이었다면, 제3시기로 가는 계기는 자유 무역 협정(FTA)였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제민일보, 2007년 5월 13일,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의 기초 발제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향자 여가정책 연구실장은 제주 관광이 효도 관광지, 신혼 여행지, 수학 여행지, 여름 휴가지 등으로 정책 기초가 변해왔으나 2000년대 이후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전무하다며, 획기적인 국가 관광산업 진흥 차원의 카지노산업 육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제민일보, 2007년 5월 25일). 한미 FTA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이라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제주 관광산업 진흥을 이유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 이양하는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제민일보, 2007년 8월 29일), 대통합민주신당 제주도당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을 대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제민일보, 2007년 12월 12일)

제2시기의 카지노 담론에서 특이한 것은 제1시기에 비해 반대 담론 주체들의 담론 형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독점적 카지노가 제주지역 바깥에서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찬성 담론이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을 때, 반대 담론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찬성 담론이 제주지역 카지노사업의 생존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반대 담론을 제기하는 것이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원인일 수도 있겠고,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정치가 제주사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작동하였던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았던 제2시기에 카지노 담론의 주도권은 찬성 입장의 진영에 있었다.

3) 제3시기 공론화 기획 (2008년-2012년)

제3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제민 일보의 설문조사 보도와 공론화 요구로 시작된다. 제민일보는 당보의 200명 설문조사 결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설치에 찬성 62.5%, 반대 34.5%였음을 보도한다(제민일보, 2008년 1월 2일). 이어서 제민일보는 제2시기의 담론을 정리하듯,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의 영업난이 상당했다는 기사(제민일보, 2008년 1월 13일)와, 제주지역 외국인 카지노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음을 주지한다(제민일보, 2008년 1월 30일). 연이어 도관광협회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 허용을 다시 제안하고 나선다. 제2시기에 찬성 진영이 주도하였던 카지노 담론이 관광객 카지노를 재점화할 때를 기다리며 복선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도관광협회는 도민 출입 금지 및 연간 출입 허용 회수 제한과 1회 한도 금액 설정 등을 조건으로, 연 13%의 관광객 유치 증가와 연 5000억원 이상의 해외 카지노 자금의 국내 유도를 명분으로 관광객 카지노 설치 허용에 대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다(제민일보, 2008년 2월 4일). 제3시기 카지노 담론의 물꼬를 튼 제민일보는 사실을 통해 내국인 카지노 공론화과정을 통해 도민 설득에 나설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다(제민일보, 2008년 2월 18일). 제민일보가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실을 발표한 같은 날 카지노발전협의회 김상우 사무국장과 인터뷰내용이 ‘관광객 전용 카지노 새로운 변화 선택 필요’ 라는 제목의 기사로 실리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득과 실에 대한 기획 기사도 같은 날 함께 보도된다(2008년 2월 28일). 하나의 기획 시나리오인 셈이다. 도관광협회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유치 사업비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포함시켰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김태환 지사도 마카오 현지의 카지노 운영 실태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보겠다고 시찰에 나섰으며, 제주 사랑 실천 연대가 관광객 카지노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고 TF팀을 구성하라며 제주도정의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였고, 김태환 지사는 10월까지 유치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다짐하는 등 성장연합의 카지노 담론은 탄력을 내기 시작했다(제민일보, 2008년 2월 26일, 3월 4일, 11일, 15일, 19일).

정선군이 폐광지역특별법 시한인 2015년까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의 추가 허가는 절대 안된다며, 제주 및 전북, 인천, 평택, 여수, 부산 등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고(제민일보, 2008년 3월 7일),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추가 허용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제민일보, 2008년 4월 10일), 제주 지역의 카지노 담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도의회의 도정 질문에서 김태환 지사의 관광객 카지노 유치 의지에 대해 김도웅 의원이 적극 찬성하고 나선다. 내국인의 해외 카지노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카지노 자금의 해외 유출이 4300억원이라며 이를 제주도의 관광객 전용 카지노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강원철 의원은 내국인 카지노가 제주 관광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기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가정 파탄과 자살 속출, 도박 중독 등의 사회적 병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숫자상의 영업 이익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회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강원랜드의 속사정이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하였다.(제민일보, 2008년 4월 15일)

찬성 진영의 담론은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지만, 반대 진영의 담론은 언론을 통해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²⁶⁾. 반대 담론이 등장하는 공간은 도의회,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장이었지만, 제3시기의 카지노 담론에서 공론장은 닫혀있었다. 도정은 몇 차례의 용역을 통해 관광객 카지노 도입의 타당성을 연구 보고케 하였으나, 이를 공론장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았다. 관광객 카지노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63.5%, 74.4%에 이른다는 도민 설문조사의 결과가 제시되곤 하였지만(제민일보, 2008년 6월 1일, 10월 28일), 공론장의 영역에서 이에 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도정의 카지노 추진 의욕은 집요하였고, 카지노업계 및 관광협회의 조직적 담론 조성 활동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담론은 언론을 통해 표출되지 않았으며, 반대 담론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론장은 열리지 않았던 것이 제3시기 카지노 담론의 특징이다. 공론화를 주문하며 시작된 제3시기 카지노 담론은 공론장이 주어

26) 이례적으로 제주일보에서 2009년 4월 28일 한국기독교교장로회에서 관광객 카지노는 공개 도박장이며,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날 것이니 카지노 도입을 중단하라는 공개 서한을 김태환 지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지지 않은 채 찬성 담론의 여론 조성의 형태로 전개된 것이다.

제3시기 카지노 담론에서 시도된 성장연합의 헤게모니정치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카지노 관광객 유치 경쟁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치 경쟁이라는 각축 상황을 부각시키는 선점 논리였다. 타지역과의 경쟁이라는 논리적 구도가 카지노 담론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제주사회 내부에서 찬반논쟁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다.

V. 카지노 담론의 성격과 공론화과정

1. 카지노 담론의 성격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정치의 기업주의화 경향 속에 등장한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의 성격은 그 전개과정에 비추어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제주지역사회의 성장정치적 성격이며, 둘째는 제주지역사회의 중앙 종속적 성격이다. 마지막은 공론화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민주주의정치의 실종이다.

첫째는 제주지역사회의 성장정치적 성격이다. 염미경(2003)은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 산업 도시에서 나타나는 성장정치가 기업 권력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입으로 지방 정치의 민주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염미경, 2003: 67-100). 한국 사회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성장정치는 제주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났다. 제주사회는 1995년까지 모두 8개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개장하였으나, 1997년 민선 1기 도정에서부터 공사 형태의 카지노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기존 카지노업계는 이때만 해도 적극적인 카지노 추가 유치에 호응하지 않는다. 제주지역의 카지노업계는 오히려 내국인의 카지노장 제한적 출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2000년 강원도 정선의 스몰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카지노장 추가 허용 검토라는 입장이 노출되었을 때, 제주사회의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및 카지노 업계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목표로 카지노 담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작은 지역에 8개소나 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수요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익 구조에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자 내국인 카지노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욕구를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카지노업계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담론

형성의 주체가 되어나갔다. 지방자치단체와 카지노업계 및 관광업계가 내국인 카지노 유치에 위한 성장연합으로 구성된 것이다. 성장연합은 지역 언론을 통하여 카지노 담론을 기획하고(2000년-2005년),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투쟁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적극적 활동으로 여론 조성을 시도하였고(2005년-2007년), 공청회와 여론조사 및 타당성 용역 등의 방법으로 공론화를 기획하였다(2008년-2012년). 카지노 담론의 전개는 주로 성장연합에 의한 찬성 여론 조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반성장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카지노 담론의 전체적 흐름은 성장연합이 주도하였고, 반성장연합과의 적대 전선 형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둘째는, 제주지역사회의 중앙 종속적 성격이다. 제주지역사회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 속에 주변부로 종속되어(이상철 1995: 306) 한국 사회 자본주의의 자본 축적 전략 및 중앙정부의 기업주의화 전략에 의해 개발 방향이 결정되었다. 중앙정부의 개발 계획에 의해 관광 서비스 산업을 통한 외화 획득의 전진기지로 기능하였던 제주지역에는 한국 사회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카지노사업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하며 들어섰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은 이러한 제주지역 사회의 중앙 종속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의 출발은 카지노 추가 허용 검토라는 카드를 던진 중앙정부의 헤게모니적 실천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가 카지노 허용이라는 카드를 던지면 카지노 담론을 둘러싼 제주사회의 성장연합이 술렁거리며 호응하고,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가 카지노 불허 입장으로 돌아서면 제주사회의 카지노사업 확장 추진 세력은 주춤거린다. 제주지역 사회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라는 적대 형성이 민주주의정치로 나타나지 않는다. 성장연합 일방의 찬성 여론 조성만 있을 뿐이다. 반성장연합이 구성되지 못하고 산발적인 시민단체 등의 반대 논평 정도만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카지노 허용-불허와 지역사회 성장연합의 카지노 유치 요구가 카지노 담론 전개과정의 사회적 적대로 작용한다. 헤게모니정치가 양자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지만, 중앙 종속적 성격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늘 헤게모니를 주도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헤게모니적 실천은 사실상 간단하다. 허용할 수 있다는 카드를 던지고 유치 경쟁을 하는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카지노장을 개장한다. 세븐럭 카지노의 개장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다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는 카드를 던지고 또 다시 유치 경쟁을 하는 동안 중앙정부는 또 다른 카지노 개장을 준비한다. 영종도 카지노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민주주의정치의 실종이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은 여론 조사 및 타당성 용역에 의존하여 공론화 작업을 기획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정치의 실종을 초래하였다. 담론은 헤게모니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적대성이 접합된 결절점에서의 민주주의정치운동이며 담론의 전개는 그 과정이다. 그러나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을 들여다보면 지역사회 내부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성장연합에서도 치열한 헤게모니정치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성장연합 사이의 헤게모니정치는 힘의 균형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중앙정부의 의도는 은폐되고 지역사회 성장연합의 욕구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헤게모니적 실천이 민주주의정치과정으로 나타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던 것이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카지노 담론의 전개는 민주주의정치 과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적대의 미형성이 하나의 원인이지만 또 다른 보다 중요한 원인은 정당성의 근거를 여론 조사의 찬반 비율에서 찾고자 했던 공론화 작업에 있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을 주도한 성장연합은 수차례의 여론 조사를 통해 찬반 비율의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이를 공론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여론 조사는 조사 시점의 상태일 뿐 이를 정치의 영역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정치는 실현될 수 없다. 담론적 실천이 없는 민주주의정치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정치로서의 헤게모니적 실천이 부재한 여론 조사의 결과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아니며, 다만 결정을 의존하는 명목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도박 및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조사와 담론 분석의 연결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2. 도박 및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

1) 도박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 변화

3장에서 제시한 자료 중 1995년과 2005년의 조사에서 도박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과 <표 22>는 각각 1995년과 2005년 조사에서 나타난 도박에 대한 인식의 요인행렬표이다.

<표 21> 도박에 대한 인식의 요인 행렬표(1995년 조사)²⁷⁾

변인	요인 1	요인 2	공통성
문항 26-14	.78673	.02092	.61939
문항 26-12	.74448	-.25370	.61861
문항 26-1	.68472	-.19086	.50527
문항 26-18	.65232	-.07628	.43135
문항 26-6	-.11111	.84875	.73273
문항 26-4	-.05640	.82180	.67854
문항 26-5	-.22869	.78719	.67197
특정치	2.80250	1.45535	4.25785
전체변량의 백분율	40.0	20.8	60.8

1995년 조사의 문항 26-1과 2009년 조사의 문항 16-1, 그리고 1995년 조사의 문항 26-6과 2009년 조사의 문항 16-2는 서로 다른 조사년도에서 각각 같은 내용을 묻는 문항이었다. 1995년의 문항 26-1과 2009년의 문항 16-1은 각각의 조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1로 추출되었고, 1995년의 문항 26-6과 2009년의 문항 16-2는 각각 요인 2와 요인 3으로 추출되었다. 2009년 문항 16-1의 공통성(communality)은 0.670이었고, 문항 16-2의 공통성은 0.573이었다²⁸⁾. 1995년 문

27) 김석준(1996), 44쪽의 <표 3-5>에서 발췌. 각 문항의 내용은 부록3 참조.

28) communality는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인의 공통변량의 비율이며, 예언 가능한 비율이다(정대연, 1997: 786). 따라서 40%이하 정도의 예측을 제외한다는 의미에서 0.4이하의 값으로 나타난 항목은 요인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항 26-1과 2009년 문항 16-1의 내용은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며, 1995년 문항 26-6과 2009년 문항 16-2의 내용은 ‘어떤 정도의 도박을 단속 처벌해야 하는지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도박을 금지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다.

〈표 22 도박에 대한 인식의 요인 행렬표(2009년 조사)²⁹⁾〉

회전된 성분행렬(a)

변 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성
문항 16-7	.822	.019	.051	.679
문항 16-8	.776	-.090	.090	.618
문항 16-1	.775	-.261	-.030	.670
문항 16-3	.612	.400	-.196	.573
문항 16-4	-.061	.770	.141	.616
문항 16-5	.098	.724	.053	.537
문항 16-6	-.231	.693	.214	.579
문항 16-9	.211	.084	.777	.655
문항 16-2	-.173	.210	.706	.573

요인 추출 방법: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5 반복 계산에서 요인 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1995년 문항 26-1과 2009년 문항 16-1을 ‘도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으로 1995년 문항 26-6과 2009년 문항 16-2를 ‘도박의 법적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인식’ 으로 하여 각각 1995년 조사와 2009년 조사를 비교하면 〈표 23〉과 〈표 24〉로 나타난다. 두 조사 모두에서 응답은 ‘정말 그렇다’ 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비교를 위한 값은 평균값으로 하였다.

29) 각 문항의 내용은 부록4 참조

〈표 23〉 도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평균(사례수)

구 분		1995년	2009년
전 체		3.86 (712)	3.33 (569)
성	남성	3.60 (345)	3.04 (277)
	여성	4.10 (367)	3.60 (292)
연 령	20대	3.46 (225)	2.97 (149)
	30대	3.73 (180)	3.22 (116)
	40대	4.18 (109)	3.55 (121)
	50대(이상)	4.25 (198)	3.59 (88)
	60대(이상)		3.50 (95)

도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95년 조사에서 남성 3.60, 여성 4.10 그리고 2009년 조사에서 남성 3.04, 여성 3.60으로 나타났다. 1995년 조사와 2009년 조사 모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도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1995년 조사에서 20대 3.46, 30대 3.73, 40대 4.18, 50대 이상 4.25, 그리고 2009년 조사에서 20대 2.97, 30대 3.22, 40대 3.55, 50대 3.59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 조사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다가 60대 이상에서 40대의 부정적 인식보다 낮아졌다. 두 조사 모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도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다소 달라진 것이다. 연령대별 평균값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도박 행위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 많을수록 도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9년 조사에서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낮아진 것은 일종의 초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1995년 조사에 비해 2009년 조사에서 도박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허용의 정도가 넓어졌

의 정도가 넓어졌고, ‘도박에 대한 법적 금지 및 처벌’ 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적 비난에서 사회적 허용으로, 법적 제재에서 사회적 합의로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하나의 단서로 포착될 수 있는 부분이다.

2)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

2009년의 조사에서, 제주도에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만들어진다면 제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식을 확인해보기 위해 제시한 9개의 설문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5〉 카지노 영향의 요인분석 결과³⁰⁾

예시 문항	회전된 성분행렬(a)		
	요인 1	요인 2	공통성
문항 15-4-5 범죄 발생률 증가	.849	-.081	.727
문항 15-4-6 도박 중독자 양산	.827	.003	.684
문항 15-4-7 부작용 저감 대책 재정 지출 증가	.812	-.049	.661
문항 15-4-4 교육 환경 악화	.767	-.207	.631
문항 15-4-8 방문객 급증 사회·문화 환경 악화	.748	-.132	.577
문항 15-4-2 제주도 재정 확충 도움	-.043	.867	.753
문항 15-4-1 관광산업 발전	-.123	.850	.738
문항 15-4-3 일자리 창출	-.112	.794	.643
특정치 (Eigen-value)	3.241	2.173	
분산설명(%)	40.514	27.177	

요인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3 반복 계산에서 요인 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30) 각 문항의 내용은 부록4 참조.

주성분분석으로 추출한 결과 문항 15-4-9의 공통성이 0.386으로 나왔으므로, 제거변수로 제외하고 나머지 8개 문항에 대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 25>의 결과를 얻었다. 설명된 총분산은 67.69%였다. 8개의 문항은 두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 1을 카지노 도입의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 2를 카지노 도입의 경제적 영향으로 명명하였다.

추출된 요인 1 카지노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요인 2 카지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6>, <표 27>과 같다.

<표 26> 카지노의 사회·문화적 영향 신뢰도 분석

항목 총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 .865)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범죄 발생률 증가	13.75	10.806	0.749	0.821
도박 중독자 양산	13.48	11.111	0.697	0.834
저감 대책 재정 지출 증가	13.87	11.509	0.691	0.836
교육 환경 악화	14.07	11.137	0.666	0.843
사회·문화 환경 악화	14.26	11.696	0.630	0.851

<표 27> 카지노의 경제적 영향 신뢰도 분석

항목 총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 .799)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제주도 재정 확충 도움	6.85	2.972	0.674	0.692
관광산업 발전	6.78	3.042	0.670	0.696
일자리 창출	6.83	3.392	0.587	0.782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1 카지노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범주로 하는 항목들 각각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의 알파 값이 범주 전체의 신뢰도 통계량인 Cronbach의 알파 값 0.865보다 모두 낮으므로, 요인 1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2 카지노의 경제적 영향을 범주로 하는 항목들 각각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의 알파 값이 범주 전체의 신뢰도 통계량인 Cronbach의 알파 값 0.799보다 모두 낮으므로, 요인 2의 신뢰도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은 요인 1 사회·문화적 영향과 요인 2 경제적 영향의 상관관계 분석이다. 분석 결과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의 상관관계는 낮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카지노의 영향 상관관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1	2
1 사회·문화적 영향	3.41	.844	1	-0.222**
2 경제적 영향	3.47	.825	-0.222**	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1995년 조사와 2009년 조사를 비교했을 때, 두 조사 모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도박에 대하여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및 연령이 카지노가 제주사회에 끼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 또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의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변수와 연령대 변수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더니, 〈표 29〉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귀분석의 가설은 ‘카지노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남성은 경제적 영향을 기대할 것이고 여성은 사회·문화적 환경 악화를 우려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표 29〉 성별에 따른 카지노의 기대효과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성별 (남=1)	상수	.058	-	56.134	.000	R=.182, R ² =.033, 수정된 R ² =.031, F=14.794, p=.000
	경제적 영향	.080	.182	3.846	.000**	
	상수	.057	-	63.458	.000	R=.173, R ² =.030, 수정된 R ² =.028, F=13.179, p=.000
	사회·문화적 영향	.078	-.173	-3.630	.000**	

** . p<0.01

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할 만한 수준이었고, 설명력 또한 18%, 1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그러나 t값이 각각 3.846, -3.630 (p=0.00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남성은 카지노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정도가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정도보다 크고, 여성은 카지노의 기대효과에 대해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3)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에 따른 찬반 입장

2009년 조사에서 문항 15-5를 통해, ‘제주도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개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카

31) 상관관계 계수는 0.900~1.000의 경우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0.700~0.900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0.400~0.700은 상관관계가 다소 높다고, 0.200~0.400은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나 낮다고, 0.000~0.200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해석된다. 정대연(1997), 367쪽.

지노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카지노도입을 허용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카지노도입의 기대효과에 경제적 부분을 고려할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표 30〉 카지노 도입 허용 여부에 따른 카지노의 기대효과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카지노의 경제적 영향 기대효과	상수	.061	-	54.223	.000	
	도입 찬성	.083	.334	6.965	.000	.747
	도입 반대	.090	-.249	-5.189	.000	.747
	R=.507, R ² =.257, 수정된 R ² =.254, F=74.823, p=.000, Durbin-Watson=2.056					
카지노의 사회·문화 적 영향 기대효과	상수	.061	-	57.329	.000	
	도입 찬성	.082	-.261	-5.334	.000	.748
	도입 반대	.090	.298	6.108	.000	.748
	R=.485, R ² =.235, 수정된 R ² =.232, F=65.789, p=.000, Durbin-Watson=2.145					

검정 결과 〈표 3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카지노도입을 허용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입장이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경제적인 판단에 정(+)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6.965),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판단에는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34). 또한 카지노의 도입을 허용하자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은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경제적 판단에서 부(-)적 인과관계가 있으며(t=-5.189), 사회·문화적인 판단에는 정(+)적 인과관계에 있음을(t=6.108) 알 수 있다.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였던 문항들과 카지노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였던 문항들 중 어떠한 항목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에서는 카지노 도입의 허용 입장을 독립 변수로 기대효과를 종속 변수로 두었으나, 기대효과의 하위 항목들에서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기에 이번에는 카지노 도입의 허용 입장을 종속 변수로 하고 기대효과의 하위 항목들을 독립 변수로 하였다. 독립 변수는 기대효과의 경제적 영향을 1로 그 하위 항목을 관광산업 발전 1-1, 도 재정 확충 도움 1-2, 일자리 창출 1-3으로 하였고, 기대효과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2로 그 하위 항목을 교육 환경 악화 2-1, 범죄 발생을 증가 2-2, 도박 중독자 양산 2-3, 부작용 저감 대책 재정 지출 증가 2-4, 사회·문화 환경 악화 2-5로 하였다.

먼저, 카지노 도입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기대효과를 판단하게 하는 하위 항목들의 상대적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지노 도입의 경제적 영향 기대효과 항목인 1-1 관광산업 발전, 1-2 재정 확충 도움, 1-3 일자리 창출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1>을 얻었다.

<표 31> 카지노 도입 허용 찬성 입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 항목의 영향 정도

독립변수		상수	1-1	1-2	1-3	통계량
모형 1	표준오차	.074	.021			R=.461, R ² =.213, 수정된 R ² =.211,
	β		.461			F=116.945, p=.000
	t값 (유의도)	-5.128 (.000)	10.814 (.000)			
모형 2	표준오차	.079	.027	.026		R=.479, R ² =.229, 수정된 R ² =.225,
	β		.354	.167		F=64.161, p=.000
	t값 (유의도)	-5.931 (.000)	6.425 (.000)	3.028 (.003)		
모형 3	표준오차	.086	.028	.028	.026	R=.480, R ² =.230, 수정된 R ² =.225,
	β		.340	.152	.043	F=42.975, p=.000
	t값(유의도)	-5.774 (.000)	5.913 (.000)	2.640 (.009)	.833 (.405)	
	공차한계		.539	.535	.656	Durbin-Watson=1.787

〈표 31〉의 모형 1을 살펴보면, 항목 1-1은 찬성입장의 변량을 21.3% 설명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발전의 기대효과가 높을수록 카지노도입을 허용하는 찬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10.814$, $p=0.000$). 모형 2는 모형 1에서 1-2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인데, 모형 1에 비해 1.6%정도 설명력이 높아졌고, 항목 1-1과 1-2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항목 1-3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며, 찬성입장의 변량을 23.0% 설명하여 모형 1, 2보다 설명력이 높아졌다. 항목 1-1($t=5.913$, $p=.000$)과 1-2($t=2.640$, $p=.009$)는 찬성입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항목 1-3($t=.833$, $p=.009$)는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해본다면, 항목 1-1($\beta = .340$), 항목 1-2($\beta = .152$)순으로 나타나 찬성 입장의 경우 관광산업 발전과 재정 확충 도움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차 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Watson 역시 1.78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카지노 도입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미치는 카지노도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의 기대효과를 판단하게 하는 하위 항목들의 상대적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지노 도입의 사회·문화적 영향 기대효과 항목인 2-1 교육 환경 악화, 2-2 범죄 발생률 증가, 2-3 도박 중독자 양산, 2-4 부작용 저감 대책 재정 지출 증가, 2-5 방문객 급증 사회·문화 환경 악화를 독립 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2〉를 얻었다. 〈표 32〉의 모형 5를 살펴보면, 찬성 입장의 변량을 17.8% 설명하고 있으며, 항목 2-3($t=-2.132$, $p=.034$)와 2-5($t=-3.610$, $p=.000$)는 찬성 입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외의 항목은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해본다면, 항목 2-5($\beta = -.206$), 항목 2-3($\beta = -.134$)의 순으로 나타나 카지노 도입의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하여 사회·문화 환경 악화와 도박 중독자 양산의 순으로 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Watson 역시 1.941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 카지노 도입 허용 찬성 입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항목의 영향 정도

독립변수		상수	2-1	2-2	2-3	2-4	2-5	통계량
모형 1	SE	.072	.021					R=329, R ² =.108, 수정된 R ² =.106, F=51.964, p=.000
	β		-.329					
	t값 유의도	12.283 (.000)	-7.209 (.000)					
모형 2	SE	.083	.027	.027				R=.366, R ² =.134, 수정된 R ² =.130, F=33.021, p=.000
	β		-.196	-.208				
	t값 유의도	12.501 (.000)	-3.362 (.001)	-3.559 (.003)				
모형 3	SE	.091	.027	.031	.028			R=388, R ² =.151, 수정된 R ² =.145, F=25.241, p=.000
	β		-.162	-.117	-.174			
	t값 유의도	12.663 (.000)	-2.735 (.006)	-1.780 (.076)	-2.919 (.004)			
모형 4	SE	.095	.027	.032	.030	.030		R=.391, R ² =.153, 수정된 R ² =.145, F=19.206, p=.000
	β		-.152	-.101	-.151	-.063		
	t값 유의도	12.475 (.000)	-2.537 (.012)	-1.506 (.133)	-2.368 (.018)	-1.042 (.293)		
모형 5	SE	.094	.028	.032	.030	.031	.028	R=.422, R ² =.178, 수정된 R ² =.168, F=18.406, p=.000 Durbin-Watson=1.941
	β		-.111	-.061	-.134	-.003	-.206	
	t값 유의도	13.031 (.000)	-1.845 (.066)	-.913 (.362)	-2.132 (.034)	-.051 (.960)	-3.610 (.000)	
	공차 한계		1.866	2.345	2.057	1.968	1.686	

<표 31>과 <표 32>의 분석 결과에 따라, 카지노 도입의 허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해석한다면, 사회·문화 환경 악화와 도박 중독자 양산의 순으로 우려할 만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관광산업 발전과 재정 확충 도움을 더 큰 기대효과로 판단하여 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카지노 도입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미치는 카지노 도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의 기대효과를 판단하게 하는 하위 항목들의 상대적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지노 도입의 사회·문화적 영향 기대효과 항목을 독립 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3>을 얻었다. <표 33>의 모형 1을 살펴보면, 항목 2-1은 반대입장의 변량을 13.0% 설명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악화의 기대효과가 높아질수록 카지노도입의 허용에 반대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7.989$, $p=.000$). 모형 2는 모형 1에서 항목 2-2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이고 모형 3은 다시 항목 2-3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인데, 설명력이 14.3%와 16.0%로 높아졌으며, 모형 3에서 항목 2-1($t=3.883$, $p=.000$)과 항목 2-3($t=2.866$, $p=.004$)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 2-2($t=.990$, $p=.323$)은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형 5의 설명력은 20.0%로 높아졌다. 모형 5를 살펴보면, 항목 2-1($t=2.751$, $p=.006$)과 항목 2-5($t=4.188$, $p=.000$)가 반대입장에 대하여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 2-2($t=-.151$, $p=.880$), 항목 2-3($t=1.731$, $p=.084$), 항목 2-4($t=.807$, $p=.420$)는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해본다면, 항목 2-5($\beta =.236$), 항목 2-1($\beta =.163$)순으로 나타나 반대입장의 경우 방문객 증가로 인한 사회·문화적 환경 악화와 교육환경 악화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는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Watson 역시 1.969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3〉 카지노 도입 허용 반대 입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항목의 영향 정도

독립변수		상수	2-1	2-2	2-3	2-4	2-5	통계량
모형 1	SE	.066	.019					R=.360, R ² =.130, 수정된 R ² =.127, F=63.823, p=.000
	β		.360					
	t값	-3.328	7.989					
	유의도	(.001)	(.000)					
모형 2	SE	.076	.025	.025				R=.379, R ² =.143, 수정된 R ² =.139, F=35.848, p=.000
	β		.262	.153				
	t값	-4.234	4.515	2.642				
	유의도	(.000)	(.000)	(.009)				
모형 3	SE	.083	.025	.028	.026			R=.400, R ² =.160, 수정된 R ² =.154, F=27.039, p=.000
	β		.228	.065	.170			
	t값	-5.081	3.883	.990	2.866			
	유의도	(.000)	(.000)	(.323)	(.004)			
모형 4	SE	.086	.025	.029	.027	.028		R=.409, R ² =.167, 수정된 R ² =.159, F=21.381, p=.000
	β		.210	.036	.127	.117		
	t값	-5.439	3.538	.535	2.003	1.965		
	유의도	(.000)	(.000)	(.593)	(.046)	(.050)		
모형 5	SE	.085	.025	.029	.027	.028	.025	R=.447, R ² =.200, 수정된 R ² =.191, F=21.277, p=.000
	β		.163	-.010	.108	.049	.236	
	t값	-6.074	2.751	-.151	1.731	.807	4.188	
	유의도	(.000)	(.006)	(.880)	(.084)	(.420)	(.000)	
	공차 한계		.536	.426	.486	.508	.593	Durbin-Watson=1.969

또한, 카지노 도입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미치는 카지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의 기대효과를 판단하게 하는 하위항목들의 상대적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지노 도입의 경제적 영향 기대효과 항목인 1-1 관광산업 발전, 1-2 재정 확충 도움, 1-3 일자리 창출을 독립 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4〉를 얻었다.

〈표 34〉 카지노 도입 허용 반대 입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 항목의 영향 정도

독립변수		상수	1-1	1-2	1-3	통계량
모형 1	표준오차	.070	.019			R=.429, R ² =.184, 수정된 R ² =.182, F=97.463, p=.000
	β		-.429			
	t값 (유의도)	13.523 (.000)	-9.872 (.000)			
모형 2	표준오차	.075	.025	.025		R=.429, R ² =.184, 수정된 R ² =.180, F=48.740, p=.000
	β		-.412	-.025		
	t값 (유의도)	12.707 (.000)	-7.277 (.000)	-.444 (.657)		
모형 3	표준오차	.081	.026	.026	.025	R=.449, R ² =.201, 수정된 R ² =.196, F=36.254, p=.000 Durbin-Watson=1.918
	β		-.361	.029	-.163	
	t값 (유의도)	12.994 (.000)	-6.158 (.000)	.488 (.626)	-3.064 (.002)	
	공차한계		.539	.535	.656	

〈표 34〉의 모형 3을 살펴보면, 반대 입장의 변량을 20.1% 설명하고 있으며, 항목 1-1($t=-6.158$, $p=.000$)과 항목 1-3($t=-3.064$, $p=.002$)은 반대 입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항목 1-2($t=.488$, $p=.626$)는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해보자면, 항목 1-1($\beta = -.361$), 항목 1-3($\beta = -.163$)의 순으로 나타나 카지노 도입의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순으로 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는 0.1 이상의 수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Watson 역시 1.918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3〉과 〈표 34〉의 분석 결과에 따라, 카지노 도입의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해석한다면,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의 순으로 영향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문화 환경의 악화와 교육 환경의 악화 순으로 우려가 되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분석을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그 영향요인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카지노 도입의 허용에 대한 찬반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항 목	찬성 입장 영향 요인 (순위)		반대 입장 영향 요인 (순위)	
	+	-	+	-
관광산업 발전	1	·	·	1
재정 확충 기여	2	·	·	·
일자리 창출	·	·	·	2
교육 환경 악화	·	·	2	·
범죄 발생률 증가	·	·	·	·
도박 중독자 양산	·	2	·	·
부작용 저감 대책 재정 지출 증가	·	·	·	·
방문객 급증 사회·문화 환경 악화	·	1	1	·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 발전은 찬성 입장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요인이며 동시에 반대 입장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요인이다. 반대로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사회·문화 환경 악화는 반대 입장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요인이며 동시에 찬성 입장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요인이다. 찬성 입장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요인은 재정 확충 기여이고 반대

입장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요인은 교육환경 악화이다. 찬성 입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요인은 도박중독자 양산이고, 반대 입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요인은 일자리 창출이다.

3. 공론화 과정과 민주주의정치

1) 공론화 작업과 헤게모니적 실천

제주지역사회는 IMF 이후 제주 관광과 제주 경제의 회생을 기치로 카지노사업의 확장을 놓고 갑론을박해왔다. 도정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나 도민의 반대에 부딪쳤고, 관광업계 특히 카지노업계를 중심으로 적자 해소의 적극적 방안이라며 카지노업 종사자 생존권 투쟁의 기치를 걸기도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와 한국 정부의 불허로 인해 여전한 선택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2000년과 2004년 그리고 2008년에 카지노사업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특히 불붙었던 것은 표를 의식해야하는 총선과 맞물려 있었던 탓이기도 하다.

제주지역 신문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입장 조율을 못하고 있다. 논리의 평행선이 세력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의 균형이 다르니 상호 토론이 제대로 전개될 수가 없고,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 논리의 평행선이 교차점을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논리의 평행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정과 정치권 그리고 관광협회와 카지노업계가 찬성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는 반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일보의 사설은 2002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후 2008년 이후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라일보의 사설 역시 찬성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제민일보는 2000년 한 해 동안 네 번의 사설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2008

년도에는 공론화과정을 촉구하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집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 국부 유출 방지,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 증대, 도민 찬성 비율, 여가 문화의 권리 등을 찬성 논리의 근거로 삼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집단은 도박성과 사행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도민 사회의 갈등, 사회적 비용 등을 반대 논리의 근거로 삼았다. 찬성측은 반대측이 주장하는 도박 중독의 위험성이 과장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대측은 찬성측의 주장인 경제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토론의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지면상에서나마 찬반 논쟁이 진행되면서 특이한 사항은 찬성과 반대 양 진영 모두 도민 여론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던 점이다. 찬성 비율이 높다는 여론 조사 결과와 반대 비율이 높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시기를 달리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논리의 주장과 설득이 아니라 대중을 향한 논리의 주장과 설득이 대중의 여론에 의해 근거되고 있는 순환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토론의 의제가 토론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대중의 지지에 기댈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사실상 무산 된 것이다.

단순화시켜서 찬반 논쟁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앞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은 찬성 입장의 추진 세력이 성장연합을 구성하여 담론을 주도하였다. 담론의 기획도 그들이 하였고, 여론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보도 자료와 기고문을 뿌린 것도 그들이었으며, 공론화 기획도 그들이 주도하였다. 공론화 작업은 단순히 찬반 비율을 확인하는 여론 조사의 형태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진행되었다.

몇 차례의 타당성 조사들은 경제적 기대효과 중심으로 보고되면서 사실상 추진 세력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에만 봉사하였다. 이를 문제 삼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0년도에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다소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0년도의 타당성 조사의 일부분인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은 이전의 조사 결과들과 다르게 나타났다. 제주도민 중 제주도 관광객전용카지노 개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9.0%, 찬성한다는 응답이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0%로 반대가 찬성보다 5.0% 정도 높게 나타난 것

이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73). 전국 단위의 표본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4.1%로 찬성한다는 응답 3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 284). 결국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에 포함된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이 이전 조사보다 반대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청회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공론장의 폐쇄로서 토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여론 조성을 주도하며 공론화를 기획한 성장연합이 여론 조사 결과라는 불리함을 모면하기 위해 토론을 회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되어야 하는 것들이 공개되지 못하는 것은 불리한 요소를 숨기기 위한 일종의 헤게모니적 실천이다. 공론화 작업 역시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적 실천을 주도하였던 성장연합의 개입으로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론장은 공론화 작업을 위한 장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민주주의정치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제주도정은 이를 회피하였다. 도민 공감대 형성은 공론장을 통한 토론과 토론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관광공사를 전면에 내세운 제주도정은 여론 조성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여론 조사의 찬성 비율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여론 조사의 찬성 비율이 낮게 나오자 공론장에서 토론을 폐쇄하였던 것이다. 결국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에서 공론화의 기획은 있었으나 공론화의 과정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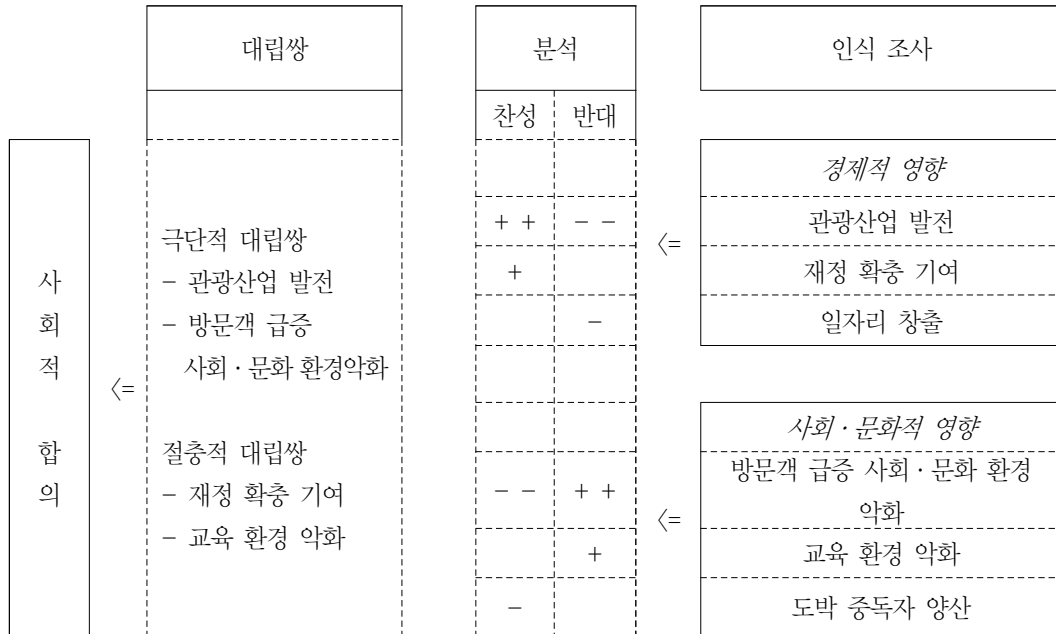
2)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정치의 가능성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양 진영이 가장 설득력 있게 주장했던 도민 여론 조사들은 조사 시기에 따라서 찬성 비율이 높기도 하였고 반대 비율이 높기도 하였다. 여론 조사의 찬반 비율로만 결정하고자 할 때, 사회적 합의가 무시된 채 여전한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된다. 지역사회의 여론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는 찬성과 반대의 단순한 비교가 아닌 찬성과 반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의 사회조사 실습 시간을 통해 실시되었던 1995년 설문 조사는 카지노 담론의 찬반 논쟁 이전의 것이다. 이를 찬반 논쟁 과열 시기의 2009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도박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86에서 3.33으로 약해졌고, ‘도박에 대한 법적 금지 및 처벌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1.95에서 2.30으로 강해졌다. 윤리적 제재와 법적 제재 모두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허용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정치 가능성이 보다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 모니적 실천을 통한 민주주의정치는, 최소한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찬반 논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카지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대심이 찬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카지노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반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계산과 조율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찬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관광산업 발전이 반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사회·문화 환경 악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찬성과 반대가 바뀐 경우에도 가장 큰 부(-)적 인과관계로 나타나 찬반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대립적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찬성 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정(+)적 인과관계의 요인 항목인 재정 확충 기여는 반대 입장에 대립쌍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 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정(+)적 인과관계의 요인 항목인 교육 환경 악화도 찬성 입장에 대립쌍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찬성 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적 인과관계의 요인항목인 도박 중독자 양산이 상대방에서 정(+)적 인과관계의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대 입장에 부(-)적 인과관계의 요인 항목인 일자리 창출도 상대방에서는 정(+)적 인과관계의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정치 가능성



〈그림 2〉는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정치의 가능성을 전망해본 것이다. 정적 영향을 끼치는 영향 요인은 +로 부적 영향을 끼치는 영향 요인을 -로 표시하였고, 시각적 효과를 위해 영향의 크고 작은 순서를 개수로 표현하였다. 찬성과 반대의 가장 큰 대립쌍은 관광산업 발전과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사회·문화 환경 악화이다. 관광객 증가를 원하는 찬성 입장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사회·문화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입장의 조율은 입장차가 극단적으로 뚜렷하다. 대립쌍을 이루지 않는 네 요인 중에 부(-)적 요인은 타 진영에 대한 일종의 오해로 볼 수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찬성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은 찬성의 이유가 아니라 반대측을 향한 설득 논리였던 것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도박 중독자 양산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도박 중독자 양산의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도박 중독자 양산의 문제는 반대의 이유가 아니라 찬성측을 향한 설득 논리인 셈이

다. 상대가 문제 삼고 있지 않은 항목들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경우 정작 합의 가능한 항목들을 놓치게 된다.

절충적 대립쌍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재정 확충 기여와 교육 환경 악화이다. 이것이 상호 토론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 절충적 대립쌍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극단적 대립쌍을 상호 토론의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토론의 의제를 단계적으로 설정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의 과정이 (공론장이 열린다는 전제 하에서) 공론장으로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단계별 의제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정치 실천의 시작이기도 하다. 토론에 참여하는 이의 논리가 아니라 조사된 표본의 의식을 토론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를 여론 조사로만 끝내고 여론 조사를 하나의 선거 행위의 결과인 양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은 민주주의정치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 여론 조사 이후에 찬반 논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여론 조사를 끝으로 찬반 논쟁이 종식되는 것은 민주주의적 실천을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실천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조성된 여론을 여론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여론 조사 결과로 단계별 의제를 정하여 논쟁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적 실천으로 여론이 조성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여론 조성이 아닌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들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여론이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정책들은 정부(government)가 기업주의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성장연합이 주도하는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치 상황에서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상황에서, 성장연합은 자본 축적을 위해 탈취에 의한 축적을 시도하는 주체로 작동하기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은밀한 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므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가 아니라, 떠들썩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서영표(2013)의 지적대로 민주주의는 언제나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며, 소란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은 갈등과 적대가 아닌 논쟁, 토

론, 소통, 잠정적 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서영표, 2013: 83). 소란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라는 에너지가 작동하는 정치적 원리를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서영표(2013)는 긴장을 부정하거나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긴장을 부정적인 대립과 적대가 아닌 상호소통과 연대의 힘으로 ‘유지’ 시키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서영표, 2013: 83). 어떠한 정책이든, 그것이 세월호와 같은 긴급한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카지노사업의 확장과 같은 정책에서는 더더군다나 충분한 논쟁과 토론, 여론 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단계별 의제에 대한 거듭되는 논쟁과 토론을 통한 치열한 헤게모니적 실천이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긴장을 유지시켜나갈 담론 주체의 형성이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2000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1997년 IMF 구제 금융 지원의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 국면으로 전환한다. 이 연구는 금융적 팽창 국면에 등장한 카지노 담론에 주목하여,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배경과 카지노 담론의 전개 과정에 나타난 헤게모니정치를 짚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제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치해있다. 제주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외화벌이를 겨냥한 외국인 관광지로 배치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사회에서 카지노 담론이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부터이고, 카지노 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2000년 중앙정부 주도의 헤게모니적 실천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는 강원도 정선군의 스몰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추가 허용 검토를 시사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이 쏟아져나온다.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중앙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 검토를 계기로 전개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로, 불법 카지노에 대한 우려로 시작되어 카지노업계의 영업 실적 감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의 한계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관광 협회와 카지노업계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나선 찬성 담론과 시민단체의 반대 담론 사이에 헤게모니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전이었던 이 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중앙정부의 한국관광공사에 의한 세븐력카지노 개장 허가로 일단락된다.

두 번째 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세븐력 카지노의 개장을 전후하여 제주지역의 카지노업계가 생존권 투쟁을 명분으로 여론을 조성하면서 전개된다. 중앙정부로부터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허가를 받아내기에는 제주도정의 정치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제주도정이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을 포기하면서 민간 주도의 생존권 투쟁을

주문한 것에 응답한 형태이다.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의 영업 실적 감소와 인력 유출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 조정 및 새로운 카지노 판으로서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요구가 카지노업 생존권 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세븐리 카지노 개장 이후 불법적으로 등장한 카지노바와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업 실적 부진을 메꾸려는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의 불법적 내국인 출입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도 하다.

세 번째 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이전까지 사설을 통해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반대 담론을 대변하였던 제민일보의 전향적 공론화 기획으로 시작된다. 2007년 후반기의 한미 FTA 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이라는 상황적 조건에서 비롯된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통합신당 제주도당의 내국인 카지노 허가 공약 추가가 계기로 작동한 것이다. 제민일보는 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내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설을 발표한다. 이 시기 언론은 찬성 담론을 표출하는 장으로 기능하였고, 반대 담론은 도의회와 정책 토론회 및 도민 공청회라는 공론장을 통해서만 간간히 표출된다. 그러나 공론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이 시기의 카지노 담론은 제주도정이 공론장을 형성하지 않음으로써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여론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공론장을 외면했던 탓이다.

요컨대,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은 담론이 기획되던 첫 번째 시기와 여론 조성이 시도되었던 두 번째 시기, 그리고 공론화가 기획되던 세 번째 시기에 사회적 적대성에 의한 헤게모니정치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의 기업주의 전략에 의해 기획된 헤게모니적 실천에 제주사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들러리를 선 셈이다. 적극 추진 의지를 선언했던 제주도정의 기업주의전략 역시 타 지역과의 헤게모니정치에서 정치력의 한계에 부딪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이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 사이에 사회적 적대의 헤게모니적 실천이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된 성장연합이 주도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은 카지노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정치적 담론들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제주사회의 정책 담론에서 공론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도정의 의지에 따라 언론은 공론장이 아니라 여론 조성의 기능을 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도민 공감대를 확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심층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단지 찬반 비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도박 및 카지노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를 상호 토론을 통한 체계 모니적 실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여론조사가 단순한 찬반 비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절충적 대립쌍을 찾아내고 그것을 논쟁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어야만 민주주의정치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국면에서 자본은 제주지역사회를 하나의 이윤 창출의 공간으로 점거하려고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카지노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외자본과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와 기업주의적 지방정부가 성장연합을 이루어 카지노 담론을 생산 유포하고 있을 때, 이에 저항할 반성장연합은 제주지역사회에 구성되지 않았다. 토론을 이끌 수 있는 담론 주체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단순한 찬반 비율이 아닌 민주주의적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지노 담론을 비롯한 제주사회의 성장 담론들과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체, 대항하게 모니를 기획할 수 있는 주체, 민주주의정치의 급진화를 이룰 수 있는 주체의 형성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희경. 2011. “개발정치의 과잉과 미약한 시민사회.” 『지역사회학』 제13권 제1호. 경남: 지역사회학회. 5-40.
- 권봉현·이준혁. 2000. “제주지역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제15권 2호. 경북: 대한관광경영학회. 287-305.
- 김석준. 1996.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1998a. 『한국사회의 신중단계급』.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8b. “강원도 폐광지역과 제주도의 개발전략간 상호영향: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개설 문제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 제주학회. 195-224.
- _____. 2006. “합법적 도박의 사회사: 제주지역 도박 합법화의 과정과 전망.” 『지역사회학』 제8권 1호. 경남: 지역사회학회. 147-177.
- 김석준·황석규. 2006. “지역개발전략으로서 합법적 도박의 도입 영향에 관한 예비적 검토: 제주도의 사례.” 『제주도연구』 제29집 별쇄본. 제주: 제주학회. 1-38.
- 김영정. 2003. “지역발전과 ‘성장정치’.” 『지역사회학』 제4권 제2호. 창원: 지역사회학회. 71-92.
- 김왕배. 1997. “자본주의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공간의 구조화.” 성경룡 외 10인.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 김철규. 2003.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 변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류광훈. 2001. 『외국의 카지노 관련 법·제도 연구』. 서울: 한국관광연구원.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 경북: 한국지역지리학회. 616-634.
- _____. 2012. “발전주의 시기 국책사업을 매개로 한 국가와 지방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구방법론과 기본 아카이브 구축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사회학회. 923-932.
- 박진도. 2010.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동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농촌사회』 제20집 2호. 경기: 한국농촌사회학회. 47-80.
- 박형신. 2004. “강원 폐광 지역의 지역정치와 갈등 구조 -석탄 합리화 사업에서 카지노 건립까지.” 『사회와역사』 제66권. 서울: 한국사회학회. 152-192.
- 백두주. 2002. “지방자치와 환경정치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싼 부산지역 성장정치.” 『지역사회연구』 제11권 제1호. 대구: 한국지역사회학회. 167-197.
-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세계체제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서울: 그린비.
- 백종국. 2009.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경기: 한길사.
- 서영표. 2013. “인식되지 않은 조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노골적인 계급사회의 탈계급 정치.” 『진보평론』 제58호. 서울: 진보평론. 62-85.
- 서원석·이보배. 2012. “한국 카지노산업의 변천 및 카지노 인식에 대한 변화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제36권 3호. 서울: 한국관광학회. 103-128.
- 서재진. 1988. “한국 산업자본가의 사회적 기원.” 『현대 한국자본주의와 계급문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11-38.
- 서헌·곽영대. 2011.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라북도 S지역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3권 8호. 서울: 한국관광·레저학회. 325-340.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제89호. 서울: 비판사회학회. 10-45.

- 신행철. 1984. “한국농촌 지역사회의 특성과 그 권력구조유형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의 행정리단위를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8권 2호. 제주: 제주대학교. 423-447.
- _____. 1985. “논평.” 『한국사회학』 제19권 겨울호. 서울: 한국사회학회. 143-147.
- 양일용. 2003. “제주지역 카지노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한국관광학회. 295-310.
- 염미경. 2002. “기업도시의 통치, 도시체제, 그리고 성장정치 - 일본 카타큐슈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53호. 서울: 비판사회학회. 119-143.
- _____. 2003. “지방산업도시 성장정치의 현재와 미래.” 『경제와 사회』 제60호. 서울: 비판사회학회. 67-100.
- _____. 2007. “지역개발과 주민이해의 정치: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공동체의 사례.”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서울: 한국사회학회. 1-31.
- 염미경·한석지. 2004. “농촌개발과 지역거버넌스.” 『지역사회학』 제5권 제2호. 경남: 지역사회학회. 5-23.
- 원기준. 2005.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과 주민운동.” 이태원 외. 『폐광촌과 카지노: 강원 폐광지역사회변동 연구』 vol. 1. 서울: 일신사. 114-140.
- 윤소영. 1999.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 에 대한 마르크스적 비판의 쟁점들.” 『한신논문집』 제16집 2권.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181-206.
- 이광영. 1991. “미국의 카지노 리조트 호텔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제15권. 서울: 한국관광학회. 155-163.
- 이동원·문기석·김정석 외. 2010년 12월.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경제적·인문 사회적 타당성 연구」. 제주: 제주관광공사.
- 이상철. 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제주: 제주학회. 273-311.
- _____. 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제주: 제주학회. 99-136.

- _____. 2003a. “제주도 지역개발정책의 전개와 성격.”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엮음.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제주: 도서출판 각.
- _____. 2003b. “제주 지역사회의 구조와 변동.” 조성운·이상철·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31-86.
- 이선향. 2011. “한국 사행산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치적 함의.” 『동향과 전망』 제 81권. 경기: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21-249.
- 이성호. 2008. “새만금 간척사업과 지역 성장정치 -성장연합의 대응방식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6권 제4호. 경남: 지역사회학회. 55-77.
- 이승원. 2008.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현대 민주주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비교민주주의연구』 제4권 1호. 서울: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67-108
- 이은진. 2009. “사회학 연구에서 지역의 위치.” 『지역사회학』 제10권 제2호. 경남: 지역사회학회. 5-29.
- 이충기. 2011.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역사.” 『관광학연구』 제35권 10호. 서울: 한국관광학회. 451-463.
- 이충기·박창규. 1996. “한국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제21권 . 서울: 한국관광학회.
- 이태원. 2004.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도박 중독, 그리고 도박 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58호.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8-219.
- _____. 2005. “카지노가 지역주민의 범죄증감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3권. 강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48.
- _____. 2006. “카지노 도박이 지역사회 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정선군 지역에 대한 경찰통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66권.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1-136.
- 이태원·김석준. 1999. “도박의 정치경제학: 한국 사회의 도박 합법화와 도박 문제의 확산에 대한 비판적 접근.” 『사회와 역사』 56집.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179-214.

- 이태원 외. 2005. 『폐광촌과 카지노: 강원 폐광지역사회변동 연구』 vol. 1. 서울: 일신사.
- _____. 2006. 『폐광촌과 카지노: 강원 폐광지역사회변동 연구』 vol. 2. 서울: 일신사.
- 이해진. 2012. “4대강사업과 지역개발의 정치.” 『ECO』 제16권 2호. 서울: 한국환경사회학회. 51-87.
- 정대연. 1997. 『사회과학방법론사전』. 서울: 백의.
- 조성운. 1998. “개발과 지역 주민 운동: 제주시 탐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경기: 한울. 99-136.
- 최병두. 1996. “데이비드 하비의 역사·지리유물론: 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포스트모더니티.” 『경제와사회』 제36호. 서울: 비판사회학회. 204-239.
- _____. 1997. “데이비드 하비의 정치경제학적 공간이론.” 『국토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96-100
- _____. 2007. “기업주의 도시전략의 논리와 한계.” 『경제와사회』 제75호. 서울: 비판사회학회. 106-138.
- _____. 2009.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신자유주의와 도시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의 견해 재검토.”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제2호. 경남: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6-68.
- 최재율. 1984. “‘왕인근의 농촌사회학연구의 40년사’에 대한 논평.” 『한국사회학』 제18권 겨울호. 서울: 한국사회학회. 268-271.
- 최협. 1986. “한국사회, 공동체, 공동체 이념.” 『한국사회학』 제20권 겨울호. 서울: 한국사회학회. 15-33.

해외 문헌

- Brenner, Neil. 2009. *New State Space: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 of State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tler, Judith., Laclau, Ernesto., Zizek. & Slavoj. 2000.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s on the Left*. London: Verso. 박대진 박미선 옮김.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좌파에 대한 현대적 대안들』. 2009. 서울: 도서출판 b.
- Fraser, Nancy. 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김원식 옮김. 2010.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그린비.
- Habermas, Jurgen. 1990.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Trans. Thomas Burger.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한승완 옮김.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경기: 나남.
- Harvey, Davi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 _____. 1982. *The Limits to Capital*. New York: Verso. 최병두 옮김. 2007. 『자본의 한계』. 경기: 한울.
- _____.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New Jersey: Willey-Blackwell.
- _____. 2012. *Rebel Cities*. New York: Verso. 한상연 옮김. 2014. 『반란의 도시』. 서울: 에이도스.
- _____. 1989.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in urban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Geografiska Annaler』 71 B(1).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3-17.
- Helleiner, Eric. 1994. *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owarth, David. 2000. *Discourse*.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Howarth, D., A. Norval, and Y. Stavrakakis, eds. 2000. *Discourse theory*

- and political analysis: Identities, Hegemonies and Social Change.*
Lancashir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usserl, Edmund. *Formale Und Transzendente Logik: Versuch Einer Kritik Der Logischen.* 이종훈 하병학 옮김. 2010. 『형식논리학과 선험논리학』. 경기: 나남.
- Jessop, B. 1990.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s in their Place.*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The narrative of enterprise and the enterprise of narrative: place marketing and the entrepreneurial city.” in Hall, T. and Hubbar, P. eds. 『The Entrepreneurial City』. New Jersey: Wiley. 77-99.
- Jessop, B., Brenner, N. &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389-401.
- Laclau, Ernesto. 1990. *New Reflections of the Revolution of Our Time.* London: Verso.
- Laclau, Ernesto. & Mouffe, Chantal.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김성기 옮김.
- _____. 1990.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서울: 터
- _____. 2001.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이승원 옮김. 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민주주의정치를 향하여』. 서울: 후마니타스.
- Logan, John R. & Molotch, Harvey L. 200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준우 역. 2013. 『황금도시: 장소의 정치경제학』. 전남: 전남대학교출판부.
- Marx, Karl Heinrich. 1846. *The German Ideology.* 박재희 옮김. 1988. 『독일 이데올로기』. 경기: 청년사

- _____. 1867. *Das Kapital*. 김수행 역. 1989. 『자본론』. 서울: 비봉출판사.
-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이보경 옮김. 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Verso. 이형 옮김. 2006. 『민주주의의 역설』. 경기: 인간사랑.
- Poplin, Dennis E. *Communities: A Stud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Kentucky: Murray State University. 홍동식 박대식 편역. 1985. 『지역사회학』. 서울: 경문사.
- Strange, Susan. 1986. *Casino Capitalism*. Lancashir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Mad Money: When Markets Outgrow Government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orring, Jacob. 1999. *New Theories of Discourse: Laclau, Mouffe and Zizek*. Oxford: Blackwell.
- Wallerstein, Immanuel. 2004. *World-Systems Analysis*. Duke: Duke University Press. 이광근 옮김. 2005. 『세계체제 분석』. 서울: 당대.
- Wende, Peter, eds. 2000. *Große Revolutionen der Geschichte*. Munchen: Beck. 권세훈 옮김. 2004. 『혁명의 역사』. 서울: 시아출판사.

인터넷 사이트

- 구글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누리미디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http://www.dbpia.co.kr/>
- 제민일보. <http://www.jemin.com/>
-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통계청 KOSIS. <http://kostat.go.kr/>

〈부록 1〉 연도별 카지노 관련 연구논문 목록

연도	논문 목록
1989	안희영. “카지노 호텔의 등장과 실내디자인.” 『마케팅』. 94-97.
1991	이광영. “미국의 카지노 리조트 호텔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15. 155-163
1995	요아힘 비숍 · 김성구. “카지노 자본주의 : 금융자본의 발전경향들.” 『이론』 제12권. 153-175.
1996	이정실. “카지노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 · 레저연구』 제8권 2호. 161-179.
1998	조광익 · 한범수. “카지노 방문 결정요인 : 서울 시민의 도박성향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6권 2호. 9-25.
	정규엽. “한국 카지노산업의 시장 분석.” 『관광학연구』 제22권 1호. 245-255. 구경원. “한국 카지노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규제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제8권. 7-36.
1999	정규엽. “한국 카지노산업 정상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제22권 3호. 296-304.
	조배행 · 손정환. “카지노 전산시설 운영관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28. 국토연구원 편집부. “부곡온천 관광특구 재건계획 수립 외.” 『국토』 제212권. 79-81.
2000	권봉현 · 이준혁. “제주지역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관광연구』 제15권 2호. 187-205.
	주성재. “폐광지역 카지노개발의 과제.” 『국토』 제230권. 55-60.
	이승연 · 이태희. “경마와 카지노의 대체성에 관한 연구 : 경마참가자들의 폐광카지노 방문 의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3권 2호. 341-353. 장호찬. “카지노 갬블링의 관여도와 그에 따른 재방문의사와의 관계.” 『관광학연구』 제23권 2호. 99-116.
2001	김성섭 외. “카지노 종사원이 지각하는 국적별 카지노 고객들의 행태비교.” 『관광학연구』 제25권 3호. 231-247.
	이충기. “지역주민에 대한 카지노 출입제한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4권 3호. 11-27.
	이충기. “폐광지역 내국인출입 카지노 개장에 따른 개장전후의 지역주민 인식변화와 부작용 저감방안.” 『관광학연구』 제25권 2호. 135-154.

	이태희·환희정. “카지노업 인식에 따른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몰입 및 이직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9-240.
	김성섭 외. “카지노 종사원이 인식하고 있는 카지노 고객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다국적 비교 문화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9-358.
	조춘식·황원택. “강원 카지노 리조트의 기계설비 설계사례 - 카지노의 공조 및 환기설비를 중심으로.”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59-163.
	남창우. “신세원 개발 및 지방세 증대방안 :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폐광지역 카지노자원의 지방세수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1-16.
2002	정의선·김경숙. “카지노 방문객의 연계관광 취약성과 구조적 변화 : 강원랜드 카지노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6권 3호. 93-108.
	김성섭 외. “카지노 영업직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관광학연구』 제26권 2호. 197-214.
	정광석·김우곤. “방한 중국관광객 카지노시장의 특성.” 『관광학연구』 제25권 4호. 179-194.
	이종주. “북미와 호주의 카지노 운영실태 및 변화추세를 통한 한국카지노의 대응 및 변화방향 모색.”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10권. 93-115.
	한범수. “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산업과 그 영향.” 『응용지리』 제23권. 3-15.
	이준엽. “Resident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oward Kangwon Land Casino Resort.” 『관광연구』 제17권 2호. 109-124.
	유일근·이재훈. “도박의 사회적 비용 혜택 측정방법의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017-1022.
2003	신동백. “국내 카지노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산업경제연구』. 161-175.
	이충기·이봉구. “관여도에 따른 강원랜드 카지노이용객 특성비교.” 『관광학연구』 제28권 2호. 133-154.
	장호찬 외. “생존분석을 통한 스몰카지노 이용객의 초기방문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 『관광학연구』 제28권 2호. 91-111.
	김경수. “국내 카지노산업과 관련한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권. 1-20.
	구효진·고재윤. “내국인 허용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차별적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3-314.

	<p>구효진·고재윤. “내국인 허용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차별적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5-356.</p> <p>양일용. “제주지역 카지노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5-310.</p> <p>이봉구 외. “강원랜드 카지노 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07-522.</p> <p>김계섭·서미옥. “카지노 딜러의 개인적 특성과 마케팅 전략이 게임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논총』 제24권. 97-121.</p>
	<p>이태원.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9권 4호. 289-309.</p> <p>양창식·김정국. “카지노업체 종사원의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호텔카지노업체를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제19권 1호. 211-227.</p> <p>박형신. “강원 폐광 지역의 지역정치와 갈등 구조-석탄 합리화 사업에서 카지노 건립까지.” 『사회와역사』 제66권. 152-192.</p> <p>서원석. “국내 카지노산업의 인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3-298.</p> <p>이준복. “강원랜드 카지노호텔 시공사례.” 『대한설비공학회 강연회 및 기타간행물』. 55-71.</p>
2004	<p>권철기. “충북 단양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 계획.”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32.</p> <p>윤춘호·김성열.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현장.” 『한국건축시공학회지』 제4권 3호. 20-31.</p> <p>정성호.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쇠퇴와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인구학』 제27권 2호. 205-229.</p> <p>신정식. “복지관광 증진을 위한 관광사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복지행정논총』 제14권 2호. 154-174.</p> <p>최성락. “폐광지역 활성화 정책 : 카지노 허가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87-702.</p>
2005	<p>장호찬 외. “갬블링 중독정도에 따른 카지노 방문객 집단 특성에 대한 차이분석 : 강원랜드 카지노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17권 2호. 25-43.</p>

	김천권. “카지노산업과 지역개발에 얽힌 담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7권 4호. 245-272.
	이용기·이충기. “카지노 동기의 척도 개발과 타당성 검증.” 『관광학연구』 제29권 2호. 423-441.
	이태원. “카지노가 지역주민의 범죄증감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3권. 27-48.
	서희열·심충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신 세원 개발방안.” 『세무학연구』 제22권 1호. 9-34.
2006	이태원. “카지노 도박이 지역사회 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정선군 지역에 대한 경찰통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66권. 101-136.
	이준엽. “카지노가 지역의 범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8권 1호. 7-26.
	최학수. “우리나라 카지노 종사원의 근로가치관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21권 3호. 147-166.
	최병천. “주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토지이용의 변화.”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6-146.
	배재환. “리눅스 서버 기반 호텔 카지노 정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4권 2호. 775-758.
	이상우. “카지노 기업문화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18권 4호. 115-134.
	최성락. “카지노에서의 규제의 역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7-143.
	이해진. “개발이후의 지역사회 운동과 갈등의 정치 : 강원도 고한·사북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69-171.
2007	최영준·김영규. “마카오카지노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 제22권 1호. 289-305.
	엄상권. “카지노 리조트 시설계획을 위한 기초적 연구 : 미국 라스베가스의 시설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 7권 6호. 73-81.
	곽강희·소국섭. “카지노 서비스품질과 방문객의 행동특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우도비율검정방법의 적용.” 『관광학연구』 제31권 6호. 93-113.
	박덕병·윤유식. “카지노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지와 사회경제적 특성분석 : 강원랜드 사례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8권 4호. 523-537.

	오홍철·정수용. “카지노직원(딜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9권 1호. 255-274.
	배재환. “리눅스 서버 기반 호텔 카지노 정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3호. 79-86.
	최영준·김영규. “마카오카지노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환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391-403.
	우영희·남유신. “카지노 기업의 서비스 회복이 관계형태에 따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상호작용공정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연구』 제4권 1호. 39-57.
	구자관. “내국인 카지노 딜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서비스산업연구』 제4권 2호. 81-99.
	설훈구. “한국의 카지노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16-321.
	정연택·김경숙. “카지노 종사원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과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 :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61-271.
	김지혜·전병길. “대학생의 관광산업분야 직업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2권 3호. 105-123.
2008	조성호 외. “호텔카지노산업의 유치전략.” 『CEO Report』. 1-32.
	이정철·신철호. “한국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9호. 218-225.
	구자관. “카지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영향요인.” 『관광연구』 제23권 3호. 299-315.
	이충기·강수경. “지역주민의 카지노 영향요인에 관한 국제간 비교 : 강원랜드와 콜로라도 사례.” 『관광학연구』 제32권 1호. 53-71.
	전병길·임정우. “카지노딜러의 직무스트레스원 : 측정도구의 제안 및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차이검정.” 『관광연구』 제23권 2호. 103-120.
	고시면. “국내 유일의 내외국인 공용인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과 관련하여 폐관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의 위헌가능성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1조 제1항'(법앞에 평등)과 '제15조'(직업의 자유) 및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사유) 등의 상관관계에서 바라본 독점방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폐관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내외국인 공용인 강원랜드카지노) '1개조에 한하여'의 위헌가능성.” 『사법행정』 제49권 4호. 2-12.
	김성혁 외. “내부마케팅이 내부고객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2권 4호. 97-120.
	이상우. “카지노 딜러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공정성·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간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0권 2호. 105-125.
	김현주.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만족이 서비스품질 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산업연구』 제5권 2호. 35-51.
	정하운 외. “카지노딜러의 직무 스트레스원 : 측정도구의 제안과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차이 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536-547.
	임정우 외. “카지노딜러의 직무스트레스원에 관한 탐색.”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76-389.
	신대호. “갬블링테마파크의 관광시장 세분화에 의한 인바운드 활성화 전략 : 카지노 이용 일본인 관광객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00-411.
	송상훈·류민정.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정책연구』. 1-2.
	김두형.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 가액 공제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4권 2호. 68-113.
	박철호.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여행학연구』 제29권. 21-48.
	김문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가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 : 장외발매소 폐지 주장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11권. 179-214.
2009	최승담·이지운. “카지노 리조트 방문동기에 따른 방문객 유형별 시설선호도 차이분석 :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1권 1호. 87-105.
	이충기. “강원랜드 리조트카지노의 강원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영향력 분석 : 조사기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4권 2호. 145-158.
	서원석 외. “중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카지노산업의 마케팅 전략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1권 1호. 107-123.
	이태원. “과도한 도박의 부정적 영향들 : 카지노 출입자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7권. 1251-1284.
	박상곤 외.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시장 진입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제33권 1호. 225-239.
	정희진 외. “The Structural Analysis of Gambling Intention : A Case of Macao Gamblers.” 『관광연구』 제24권 4호. 169-193.

	전용태.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행동 변화과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8호. 285-293.
	구효진·김병용.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카지노 종사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1권 3호. 291-313.
	전용태.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행동변화과정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1호. 597-601.
	박창복 외. “A 호텔 & 카지노 아트리움의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위주설계 사례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3권 2호. 13-19.
	김태훈·박상곤. “관광기업의 고객우대 프로그램은 과연 고객충성도를 높이는가? : 카지노기업의 고객우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3권 5호. 209-230.
	변창범 외. “일부 서비스직종 근로자의 직장 내 폭력과 우울증상.”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제21권 4호. 314-323.
	황정진·박진영. “Comparison of personality Traits and Gambling Behaviors between Video Pokers and Traditional Pull/Push Machines Players.” 『관광연구』 제24권 4호. 99-115.
2010	이충기·이강욱.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개발로 인한 강원지역과 타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제34권 4호. 109-126.
	송학준·이충기.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레저연구』 제22권 5호. 341-360.
	이려정. “카지노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인식이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25권 3호. 161-182.
	구효진·김영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고객의 방문동기, 선택속성 및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2권 4호. 283-300.
	서원석 외.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타당성 연구.” 『관광학연구』 제34권 8호. 211-230.
	윤지환·김구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34권 7호. 257-276.
	구효진·고재윤. “고객특성에 따른 카지노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 차이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4권 9호. 313-336.
	김상혁.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호텔·카지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의 결정요인 분석.” 『관광학

연구』 제34권 7호, 277-291.
김영미 외. “카지노 개발 이전의 기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식, 장소애착심, 카지노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사 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제34권 5호, 307-330.
김미주 외. “세분화접근법에 따른 카지노 개발의 인식 차이와 카지노 영향요인, 애착심 및 개발 지지도 간의 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2권 6호, 103-122.
서현. “내국인 카지노에 전자카드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2권 6호, 579-593.
서미옥·윤성욱.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서비스실패 상황에서 VIP고객의 특성차이 및 복구만족과 고객점유율의 역할.” 『관광·레저연구』 제22권 2호, 171-186.
이규웅 외. “DEA 기법을 활용한 카지노 기업간의 경영 효율성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22권 5호, 361-380.
구효진. “일본인들의 게이밍 활동변화 분석을 통한 한국 카지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36권, 21-41.
이태원. “책임도박조치에 대한 지각된 효과 : 카지노 고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9권 2호, 1-37.
전용태. “The occupational Socialization of the Security Guards in the Casinos of Security Science Majors.”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3호, 337-346.
이규안·박대우. “카지노 횡령사건 분석과 포렌식 수사기술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학술대회지』 제4권 2호, 143-146.
김구현. “카지노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23-1142.
정연택. “병적도박자의 효과적인 치유방법에 관한 연구 : 강원랜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1-236.
이태희·김현미. “강원랜드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 외국인전용 카지노 S사, P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7-248.
이충기·송학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gambling열정과 행동의도간 구조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제34권 3호, 125-145.
김세건.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다루기 :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9권 2호, 39-73.
김원동. “강원도 폐광지역의 쟁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 : '강원랜드'와 '폐특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9권 2호, 133-181.

	김문영. “글로벌산업으로써의 마필산업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조건 : 한국 마필산업의 글로벌.” 『동서언론』 제13집. 185-244
	이윤근·임상혁. “서서 일하는 작업과 정맥류 발생에 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5-42.
	이선향.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의 정치적 동학과 그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49권 2호. 107-132.
	이미순. “A Study of Residents' Perceptions Toward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Casino Development : Focused on Foxwoods Resort Casino.” 『관광·레저연구』 제22권 6호. 703-719.
	김태영. “통합 창원시 관광실태 및 향후과제.”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제18권. 1-32.
2011	이정실 외.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관광·레저연구』 제23권 1호. 355-373.
	오정학·육풍림. “카지노종사원의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소진 그리고 직무만족의 관계 : 직무요구-자원(JDR)모형과 안면환류가설(FFH)의 관점에서.” 『관광연구』 제26권 4호. 375-397.
	오용수. “내국인출입카지노 증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카지노산업의 정책방안 연구.” 『관광학연구』 제35권 1호. 223-246.
	강형철·김병용. “카지노 기업의 내부마케팅이 조직 동일시와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3권 4호. 293-312.
	이충기 외. “한·일 간 카지노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지도 비교분석.” 『관광연구』 제26권 3호. 361-376.
	이충기.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역사.” 『관광학연구』 제35권 10호. 451-464.
	서헌·곽영대.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전라북도 S지역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3권 8호. 325-340.
	김상혁. “Comparing An Application of OLS Regression to Quantile Regression : Determinants of Hotel·Casino Executive Compensation As Example.” 『관광·레저연구』 제23권 5호. 369-384.
	정은영·김상혁. “카지노 산업의 개인 역량별 Tip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선호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카지노 G사와 P사를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3권 7호. 319-335.
	구효진·김병용. “A Study on the Burnout Differences by Job Characteristics : Focusing on

	Casino Dealers and F/B Employees.” 『관광·레저연구』 제23권 6호, 569-586.
	이규안·박대우. “카지노 횡령사건 분석과 포렌식 수사기술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6권 1호, 105-110.
	한범수·장병권. “투자수익성 분석을 통한 새만금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13-522.
	이승영. “카지노 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연구』 제8권 3호, 77-96.
	김한주. “도시형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87-896.
	류광훈·강성근.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의 사행산업 참여특성과 참여경로 : 사행산업이용실태 조사(2010)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59-671.
	김지옥·유요섭. “카지노 패배귀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상태분노 및 상태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연구』 제8권 2호, 1-16.
	이영숙. “카지노서비스 회복공정성이 만족과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과거관계경험을 조절변수로 하여.” 『서비스산업연구』 제8권 2호, 49-67.
	유경미. “카지노 기업의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산업연구』 제8권 3호, 43-58.
	서용석·이훈. “문제성 갬블러는 카지노 규제를 지지하는가? :태도와 인지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45-857.
	윤세목·모미현. “멘토링 기능유형이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67-877.
	이선향. “한국 사행산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치적 함의.” 『동향과 전망』 제81권, 221-249.
	김진국·전찬수. “강원랜드와 연계한 문화레포스 CSR 활동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0권 3호, 1039-1050.
	조명기·배운기. “로컬 지배 카르텔과 로컬 정체성 형성의 주체 투쟁 : 강원남부 폐광지 사북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62권, 289-322.
2012	서원석·이보배. “한국 카지노산업의 변천 및 카지노 인식에 대한 변화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제36권 3호, 103-128.
	윤대균. “카지노 이용고객의 관계혜택, 신뢰, 고객만족, 관계유지의도와의 관계 연구 : 강원랜

드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5호, 2413-2432.
신혜숙. “카지노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수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7호 415-424.
신대호·구본기. “관광시장 세분화에 의한 카지노테마파크산업 활성화 전략 : 일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5권 6호 191-204
박주희 외. “카지노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4권 6호, 323-345.
정인준·김대관. “중국인 카지노 방문객 유치 증대를 위한 서비스품질 개선 방안 : Revised IPA 적용.” 『관광·레저연구』 제24권 1호, 201-218.
육풍림·이준엽. “카지노 종사원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역할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4권 2호, 233-252.
이진영·이채은. “카지노 직원의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2호, 429-438.
김상혁·정은영.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한 카지노 고객의 국적 및 방문형태가 카지노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 G사 카지노를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4권 7호, 355-370.
김동준. “카지노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필리핀 Casino Widus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6권 3호, 59-69.
이미순·안하영. “카지노 여성종사원들의 복지 지각요인과 만족에 관한 연구 : 부산 파라다이스와 서울 강남 세븐럭 카지노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4권 5호, 263-279.
김병용. “카지노 종사원의 조직 동일시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조직 동일시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6권 3호, 129-148.
정삼권 외. “카지노산업에서 감정 노동자의 기업가 지향성과 고객 지향성이 표면행동과 내면행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27권 1호, 313-332.
서정석·양위주. “카지노 영업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비교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제30권, 551-563.
김수영. “ANN을 활용한 카지노호텔의 재무부실 원인에 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4권 4호, 159-178.
임정우 외. “카지노산업에서 상사의 성격과 마키아벨리즘, 및 윤리적 환경이 상사의 윤리적 행

	동과 부하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4권 1호. 273-292.
	이승영. “카지노 고객불량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산업연구』 제9권 2호. 139-156.
	성지현. “카지노 종사원의 경력정체 지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연구』 제9권 2호. 53-68.
	김엄권. “서비스 기업의 윤리경영과 조직시민행동 및 신뢰와의 관계 : 카지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연구』 제9권 2호. 19-31.
	성지현. “카지노 영업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거래적 리더십이 딜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직문화를 매개변수로.” 『서비스산업연구』 제9권 1호. 63-78.
	유성희. “카지노종사원의 교육훈련특성이 전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이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연구』 제9권 2호. 69-86.
	오정학·김철원. “환대산업 서비스종사원의 감정노동, 소진에 관한 다 집단 연구 : 측정모형과 구조경로의 동일성 검증 및 이론적 함의.” 『관광학연구』 제36권 3호. 35-58.
	문지효 외. “유희적 쉼블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추정 : 로짓모델과 순위로짓모델 간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6권 7호. 177-195.
	김문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 『동서언론』 제15권. 23-66.
2013	강형철·곽대영.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있어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 국내 카지노 업체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8권 1호. 113-134.
	유순호·김경숙.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카지노 게임동기의 차이.” 『관광학연구』 제37권 4호. 11-27.
	우성근. “카지노중독에 따른 게임동기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강원랜드 카지노 내국인 이용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5권 1호. 341-358.
	이진영. “카지노 딜러의 여가유형이 조직신뢰, 고객지향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4호. 407-417.
	박창우·최정현. “카지노 인근지역 장기체류자들의 도박경험 및 삶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4권. 33-65.

	이승훈·강민완. “카지노기업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제2권 2호. 97-118.
	박주희. “카지노종사원의 윤리경영인식이 내부고발과 조직시민행동의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산업연구』 제10권 1호. 1-17.
	장병권. “한국형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 『한국관광정책』 제51권. 80-86.
	배영목 외. “사행산업의 사행성과 중독성에 관한 실증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권 2호. 1-24.
2014	황재위 외.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에서의 조직애착의 조절효과 : 서울과 부산 카지노사업장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6권 1호. 281-299.
	김지욱·양우제. “카지노 승패귀인에 관한 연구.” 『서비스산업연구』 제11권 1호. 15-29.
	최은애. “카지노 딜러의 감성지능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감정노동의 조절효과.” 『서비스산업연구』 제11권 1호. 73-85.

〈부록 2〉 제민일보 기사목록

제1시기 (2000-2004)		
번호	기사 날짜	기사 제목
1	02/24/2000	카지노 추가허용 '촉각'
2	02/26/2000	사이버카지노 접속차단
3	03/25/2000	오픈카지노·한라산케이블카, 찬-반-신중론 팽팽
4	03/25/2000	후보자들간, 오픈카지노·케이블카 의견 엇갈려
5	04/05/2000	TV정책 토론회 쟁점] 오픈카지노
6	04/17/2000	외국인전용 카지노 영업권 따기 '전쟁'
7	04/26/2000	도, 오픈카지노 공론화 '강행'
8	04/27/2000	미련 못버린 오픈카지노
9	05/01/2000	오픈카지노가 뭐길래
10	05/08/2000	문광부, 카지노도 문화관광인가
11	05/09/2000	카지노가 '문화관광'이라니
12	05/10/2000	지난해 카지노 매출 '짹짹'
13	05/18/2000	롯데호텔 카지노 개장 지연
14	07/10/2000	JLL사, "오픈카지노, 정치적 결정 사항 국제자유도시 필수요건 아니"
15	07/11/2000	미련 버려야할 오픈 카지노
16	08/25/2000	라곤다카지노 롯데호텔 이전, 업계 반발
17	09/26/2000	강원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10월 개장, 제주관광 영향여부 관심
18	11/01/2000	도 국감자료, '오픈카지노' 재부상
19	11/02/2000	범도민회, "오픈 카지노 재추진 안돼" 성명
20	11/02/2000	카지노 미련을 버리자
21	11/04/2000	우지사 국감 답변, "오픈카지노 수익금 외채상환등에 사용"
22	11/07/2000	전국이 카지노 '눈독'
23	11/08/2000	강원도 고한읍 카지노
24	11/10/2000	한라산 케이블카·오픈카지노, "설치당위성·논리부족"
25	11/10/2000	강원도 고한읍 카지노
26	11/13/2000	우지사, "오픈카지노 유치 도차원 활동중단"
27	11/16/2000	한라산 케이블카·오픈카지노, "논쟁 종결 묘안찾자"
28	11/28/2000	도관광협 카지노 추진 결의, 오픈카지노 재논란 불씨
29	12/02/2000	"오픈카지노 포기할 수 없어"
30	12/04/2000	우지사 오픈카지노 발언' 진화 소동
31	01/05/2001	도 관광협회 오픈카지노 도입 본격화...찬반 도민갈등 우려
32	01/15/2001	강원도 카지노 시설 현황
33	01/15/2001	강원도 카지노 현장을 가다
34	10/26/2001	그랜드 카지노, 노사 대립 악화
35	11/02/2001	카지노 경영권 대립, 공동대표 내홍 심화
36	11/08/2001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당행위 중단해야
37	11/15/2001	카지노 이전 허가 행정심판 반발
38	11/18/2001	칼호텔 카지노 분쟁 일단락
39	11/22/2001	파라다이스카지노 노조 규탄대회
40	11/26/2001	파라다이스 카지노 "전면파업"-확대일로
41	12/02/2001	파라다이스 카지노 노사갈등 파국
42	12/05/2001	우지사 "오픈카지노 계속 추진하겠다"
43	12/06/2001	또 오픈카지노인가
44	12/07/2001	경실련, "오픈카지노 60억 복권 포기" 촉구 성명

45	12/18/2001	말썽 많은 롯데호텔 "카지노"영업개시
46	12/19/2001	롯데카지노 입성- 업계 "무한경쟁" 돌입
47	01/14/2002	민주노총, 파라다이스 카지노 파업 성명
48	01/25/2002	파라다이스카지노 노조 1인 시위
49	01/25/2002	하얏트호텔, 다시 카지노 유치하나
50	01/30/2002	파라다이스 카지노 노사협상 타결
51	03/15/2002	호텔 카지노이전 논란 재연
52	06/17/2002	중문관광단지 카지노 "3각" 경쟁체제
53	08/02/2002	카지노업계 매출 감소 "울상"
54	08/13/2002	도내 카지노업계 "지각변동" 예고
55	08/20/2002	내국인카지노 "다시 수면위
56	09/11/2002	우지사"카지노·지역항공사 추진"
57	09/13/2002	카지노밖에 없나
58	09/24/2002	도내 카지노업계 평균 가동률 1.4%
59	10/03/2002	내국인출입 카지노 단상
60	10/06/2002	카지노 허가 규제 풀릴까
61	10/08/2002	카지노 규제해제 파장 우려 "제주도개발 관계부처회의"서 결정
62	10/09/2002	도, 카지노 사전허가제 투자위서 건의
63	10/27/2002	도 잇단 카지노 시찰 "논란"
64	11/17/2002	노무현 "내국인 카지노 불허"
65	12/09/2002	카지노 허용·골프장 완화 "파장"
66	01/02/2003	카지노 도난사건 중국인 2명 붙잡아
67	01/09/2003	외국인카지노 "사전허가제"로 자유도시종합계획 실무위서 도 요청안 통과
68	01/27/2003	제주 카지노확대-외국인校 입학자격 폐지 정부,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 의결
69	02/11/2003	카지노업계 "올까 웃을까"
70	02/13/2003	내국인 카지노는 도박성있다" 부정적 입장
71	02/14/2003	카지노 업무방해 혐의 노조 집행부 징역형
72	03/04/2003	카지노 업계 "춘추전국"예고
73	04/21/2003	카지노 실무자 등 위한 게임 입문서
74	05/12/2003	내국인 카지노 입장 허용 "주목" 카지노 협회·도내, 제주도에 건의
75	05/13/2003	카지노 내국인 이용 신중해야
76	05/14/2003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허용안된다"
77	05/22/2003	관광객 카지노 "결론 낸다" 23~25일 정선실태 파악 후 추진여부결정
78	05/25/2003	경제풍요' '정신 빈곤' 갈등 정선 내국인 출입 카지노 '명암'
79	05/25/2003	관광카지노 민간주도 전환 우 지사 "도가 앞장서지 않겠다" 밝혀
80	05/26/2003	도민사회 발전 위한 길 경실련, 내국인 카지노 포기 환영 성명
81	05/26/2003	카지노 포기 새 대안 모색 우 지사 어제 회견서 밝혀...가능성은 불투명
82	05/28/2003	무공침-업계, 카지노 입장표명 '관심'
83	06/02/2003	토론평-'관광객 전용 카지노' 이렇게 생각한다
84	07/01/2003	내국인 면세점·토산품 업체 윈윈전략 구상 중 내국인 카지노, 행정에서..
85	07/01/2003	"환경부 승인땀 케이블카 꼭 설치 쇼핑 관광활성화 카지노 대안 추진" ..
86	07/14/2003	경영위기 극복 총력전 카지노 업계 한시적 내국인 허용 서명운동
87	07/27/2003	도민 1047명 설문 결과"내국인카지노 허용"51% 제주지역카지노생존권..
88	07/28/2003	모 카지노 실질 소유주 외화밀반출 혐의 구속
89	08/29/2003	카지노 사전허가제 특별법 포함 문광부, '제주 우선적용'의견..
90	10/29/2003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차고지 확보 의무제 시행 ..
91	11/03/2003	외국인3명 카지노서 위조여권·신용카드 사용
92	11/13/2003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돌입' 세정연구단 4차 회의 카지노세 ..

93	11/27/2003	수학천재들의 금지된 장난-벤 메즈리치 「카지노 무너뜨리기」
94	12/18/2003	카지노서 위조 여권·카드 사용 중국인 3명'징역형'
95	05/06/2004	조폭자금 유입 의혹 카지노 압수수색 단행
96	07/01/2004	조직폭력배 카지노 운영·횡령사건 수사 마무리...검찰 송치
97	07/01/2004	"업체 통·폐합 구조조정을"...'카지노 활성화 세미나' "공급과..
98	07/06/2004	외국인 전용 카지노서 내국인 불법도박 벌여 30대 검거..
99	07/30/2004	라마다호텔 카지노 제주관광(주) 낙찰
100	08/01/2004	카지노업체 허위카드 사용'매출액 누락'수사
101	08/13/2004	카지노 매출액 누락 대표 입건 경찰, 횡령혐의 등 수사확대
102	09/03/2004	"외국인카지노 서울·부산 추가 허용"...도내 카지노업계 반발
103	09/19/2004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신설 도내업계
104	09/20/2004	제한적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105	10/01/2004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상경 집회
106	10/05/2004	카지노 투쟁위 2차 상경 투쟁
107	10/15/2004	정부 신규카지노 허가 규탄
108	10/18/2004	카지노, 문광부와 직접 협의 김태환지사 밝혀
109	10/29/2004	제주카지노의 방향
110	10/31/2004	도내 외국인 카지노서 내국인 모아 불법도박
111	11/02/2004	신규카지노개설공고 제주카생투 투쟁돌입
112	11/03/2004	관광 제주"와 각별한 인연 맺은 '카지노 대부'전략원 회장 별세
113	11/05/2004	카지노"나날이 어렵네" 한국은행 발표 3분기 도내 환전액 ..
114	11/18/2004	카지노
115	11/21/2004	"내국인카지노"논란 재점화 카생투, 발전연구원에 경제 효과 ..
116	12/13/2004	서울 등 3곳 신규 개장, 카지노 인력관리 '비상'
117	12/23/2004	"카지노 정책 방관" 쏟아지는 대안 속 도 당국 공식 입장 없어

제2시기 (2005-2007)		
번호	기사 날짜	기사 제목
1	01/24/2005	관광공사·업체 공동출자 외국인 카지노 단지 필요"
2	01/30/2005	문광부, 신규 카지노 허가 조건부로
3	02/01/2005	카지노 인력 유출 비상 도내업계, 신규 카지노로 촉각 곤두
4	03/03/2005	카지노 운영난 "최악"
5	03/26/2005	운영난 도내 카지노업계 해법은 구조조정으로 살 길 모색
6	06/29/2005	제주에 카지노리조트 건설"
7	07/13/2005	내국인카지노 논의 대상 제외
8	08/11/2005	신종 카지노 호프·카페 등장...명확한 규정없어 단속"고심"
9	09/26/2005	카지노바 집중 단속
10	09/27/2005	카지노바 첫 집중 단속...2명 입건·880만원 입수
11	09/29/2005	경찰 "카지노바 영업 불법이다"
12	10/02/2005	카지노 인력 유출 "걱정"
13	10/02/2005	그랜드·롯데호텔 카지노 "통합"
14	10/15/2005	신제주 일대 불법 카지노바 3곳 적발, 업주 등 51명 무더기 검거
15	10/16/2005	"기업형"카지노바 적발
16	11/09/2005	故 전략원 회장 아들 전필립씨 카지노 운영
17	11/13/2005	카지노업계 인력유출 "골머리"
18	11/17/2005	美제이콥스, 카지노호텔 설립 타진
19	11/17/2005	카지노바 무더기 행정처분
20	11/20/2005	손님에게 도박 알선 카지노바 업주 입건

21	11/21/2005	카지노 투자자 모집해 57억원 가로채
22	11/23/2005	카지노업체, 관광공사 인력 빼가기 비난
23	11/28/2005	불법 카지노바 업주 "징역형"
24	12/12/2005	클라운프라지 호텔·카지노 노-사 갈등 "부분직장폐쇄" 사태
25	12/15/2005	카지노바, 고액 "알바생"유혹...대학 "걸리면 퇴학"경고
26	12/23/2005	롭살롱 개조 불법 카지노 영업
27	01/05/2006	비밀영업장 만들어 영업한 무허가 카지노 적발
28	01/08/2006	카지노 인력유출 재점화
29	01/31/2006	카지노 불법 영업 붙잡아
30	02/07/2006	컨벤션센터수익방안내국인면세점·카지노
31	02/08/2006	불법카지노바 종업원 무더기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32	02/08/2006	내국인출입 카지노 신중 기해야
33	02/09/2006	불법 카지노바 운영 업주 줄줄이 집행유예로 석방
34	02/17/2006	카지노업계 "내우외환"...달러 인력 누수·영업력 약화
35	03/01/2006	외국인 카지노 설립 규제 완화 도내 업계 "긴장되네"
36	03/06/2006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 카지노산업 희생방안을
37	03/09/2006	카지노바 업주 등 검거
38	04/03/2006	내국인 카지노·영어공용화 도입 불가
39	07/13/2006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카지노
40	07/19/2006	해군 기지 유치 도지사가 나서라 상공회의소 19일 기자회견...
41	07/27/2006	외국인전용 카지노 개장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42	08/24/2006	도정 총괄적 행정관행 개혁해야 카지노·관광개발공사 설립 ...
43	09/06/2006	조폭운영 불법 카지노바' 연예인 회원
44	10/31/2006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무기한 휴업" 부채300억 최근 경영난...
45	11/22/2006	카지노 불법영업 의혹 경찰, 모 호텔 카지노 압수수색
46	02/09/2007	카지노 공동투자 50억원대 가로챌 40대 징역 6년선고
47	03/06/2007	파라다이스 제주 그랜드 카지노지부 관광산업 노조 갈등 심화
48	03/13/2007	카지노업체 파견근로 위반 벌금형 허가없이 근로자 파견한...
49	05/13/2007	내국인 카지노 설립 또 "고개" FTA관광대책 토론 "경쟁력 ...
50	05/25/2007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필요
51	06/07/2007	도내 모호텔 카지노 직원 도박 알선 중국 공안 체포
52	08/29/2007	내국인카지노 설치 권한 도지사 이양 의견 제기 문홍익 ...
53	10/25/2007	외국인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우선 3억달러 투자후 2년내 ...
54	10/27/2007	제주지역 카지노 시장 꿈틀 국내·외 자본 제주지역 카지노 ...
55	12/12/2007	관광객 카지노 유치, 관광 경쟁력 살리겠다 통합신당 도당 ...

제3시기 (2008-2012)		
번호	기사 날짜	기사 제목
1	01/02/2008	관광객전용 카지노·쇼핑 아울렛 "찬성" 본보 각계 200명 설문조사 결과...
2	01/08/2008	하얏트호텔 카지노 3월께 영업재개 전망
3	01/13/2008	지난해 도내 카지노 영업난 상당했다 제주세관, 외국환...
4	01/13/2008	내국인 카지노 벌써 유치 경쟁? 현행 법상 불허되나 제주...
5	01/28/2008	제주도내 외국인카지노 고사위기 최근 4년새 이용객과 ...
6	01/30/2008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재점화
7	02/04/2008	관광객 전용 카지노 1. 왜 관광객전용 카지노인가
8	02/17/2008	관광객 전용 카지노 1. 왜 관광객전용 카지노인가
9	02/18/2008	내국인카지노 공론화과정 거쳐라
10	02/18/2008	김상우 카지노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관광객 전용 카지노 ...

11	02/18/2008	일본인 카지노관광객 부진 지난해 환전액 17.4%하락...
12	02/18/2008	관광객 전용 카지노 2.독인가 약인가 '득과 실'도민 공감대 ...
13	02/18/2008	관광객 전용 카지노 2.독인가 약인가 도박중독·범죄 폐해...
14	02/18/2008	도관광협회 관광객전용카지노 유치 본격화 유치 사업비 ...
15	02/26/2008	관광객카지노 제주 유치 행보 꿈틀 도관광협회 유치추진단 ...
16	03/04/2008	제주도관광협회 관광객전용카지노 유치 나서자 정선균 발끈 ...
17	03/07/2008	관광객 전용카지노 타당성 검토 시작되나? 김태환 도지사...
18	03/11/2008	카지노산업 제주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사)제주사랑실천...
19	03/19/2008	도, 관광객 전용카지노 유치 시동? 김 지사, 19일 기자회견...
20	03/19/2008	시동걸린 관광객 카지노 공론화
21	03/20/2008	일본 카지노 합법화 급진전 제주 비상 일본 국회, 카지노 ...
22	03/26/2008	관광객 전용카지노 조건부 찬성 제주-목포 해저터널 조기 ...
23	04/01/2008	관광객 카지노 "글쎄" 제2공항은 "해야" 한승수 국무총리 ...
24	04/03/2008	제주 관광객전용카지노 '빨간불' 문광부 카지노 추가 허용 계획 ...
25	04/10/2008	관광객 전용카지노 10월 결론 김태환 도지사, 도정질문 답변서 ...
26	04/15/2008	관광객 전용카지노 벌써부터 논쟁 15일 도정질문 통해...
27	04/24/2008	길만그롭 제주 카지노 도전 성공할까? 기존 업체 경영악화 ...
28	04/25/2008	제주 카지노 경쟁력 충분 T.H.E Hotel&Vegas Casino ...
29	04/25/2008	일본 시의원 아들 카지노 직원 폭행 준비사 상태
30	05/05/2008	내국인 카지노 '산넘어 산' 정부 부정적 입장 확고 ...
31	05/11/2008	내국인 카지노 도민 갈등 없어야
32	05/12/2008	일본인 폭행 당해 뇌사 빠진 직원 숨져
33	05/14/2008	카지노 허용 이랬다저랬다 도, 관광객수 등 요건 맞아도 ...
34	05/27/2008	제주도 카지노 허가 토종기업 '차별' 외국기업'환대' 도, ...
35	05/27/2008	청정 제주 '자원' 세계적 휴양관광지 만들자 제2공항 조기건설 ...
36	06/01/2008	내국인 외국인전용카지노 출입 '들통' 제주지방검찰청 도내...
37	06/09/2008	카지노 직원 폭행치사 일본인에 실행 선고 제주지법...
38	07/03/2008	제주관광객전용카지노선택이아닐필수신왕우산업정보대교수...
39	08/17/2008	도내 카지노 영업난 가중 속 중화권 시장 성장 일본 카지노...
40	08/27/2008	카지노 직원 폭행치사 일본인 관광객 집행유예 광주고법 ...
41	08/29/2008	관광전용카지노 유치 세계적 관광지로 29일 제주지역 ...
42	08/29/2008	내국인카지노 도민갈등 유발 없어야
43	08/31/2008	카지노업 개별소비세 부과는 관광산업 공멸 제주상의 제주...
44	09/03/2008	제주 카지노에 재앙이 다가온다 정부 세금폭탄, 만성적자난 ...
45	09/04/2008	도내 카지노업계 생존 25일 분수령 정부 세제개편안 25일 ...
46	09/17/2008	카지노 납부금 개별소비세 전환 반대 제주도, 기획재정부에 ...
47	09/18/2008	제한적"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 필요 도민 공청회서 ...
48	09/24/2008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민합의 관건 도, 관광업계 설립의지...
49	09/29/2008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의 역기능 해소 방안 ...
50	10/06/2008	한국관광공사 도내 카지노 죽인다 세븐력카지노 지난해...
51	10/07/2008	관광공사가 판치는 카지노산업
52	10/08/2008	관광객카지노 적극 추진하라 23일 JDC 국감서 국회 차원 ...
53	10/23/2008	제주도민 관광객 카지노 도입 긍정적 의견 대다수 타당성 ...
54	10/28/2008	관광객전용카지노 찬·반 팽팽 13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광객...
55	11/13/2008	제주 카지노 "어렵긴 어렵네" 전국 16개 외국인 전용카지노...
56	11/26/2008	제주관광객전용카지노 '동상이몽' 도관광협회 타당성 용역 결과...
57	12/10/2008	관광객카지노 제주 최적지 다만 기존업체 활용해야 경제성 높아 ...
58	12/11/2008	내년도 관광객전용카지노·영리병원 추진 29일 김태환 ...
59	12/29/2008	도내 카지노업계 '울고' 외국인면세점 '웃고' 지난해 카지노 ...

60	01/14/2009	제주관광인 관광객카지노 도입 운동 본격 도관광협회 14일...
61	01/15/2009	공론화 무대 오른 관광객 전용 카지노
62	01/22/2009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 ...
63	03/16/2009	제주관광객 전용 카지노 희망과 과제 『상』 하이원리조트 ...
64	04/06/2009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위한 30만 서명운동 추진 ...
65	04/16/2009	카지노·영리병원·케이블카, 도민 여론·도의회 공감대 형성 ...
66	04/23/2009	카지노 유치 공무원 강제동원 논란 읍·면·동별로 서명목표 ...
67	05/03/2009	제주관광인 관광객카지노 도입 홍보전 관광협회·여행업분과 ...
68	06/04/2009	제주도내 카지노 업계 벼랑끝 몰린다 지난해 이용객 10만6400명...
69	06/07/2009	라스베가스 위협하는 마카오 카지노 <와이드> 해외사례로 본 ...
70	06/08/2009	싱가포르도 카지노산업 진출 모색<와이드> 해외사례로 본...
71	06/09/2009	재정 포괄지원제·관광세·카지노세 도입 시급 8일 특별자치도의회...
72	06/14/2009	관광객전용카지노 서명운동 힘입어 가속도 오는 24일...
73	06/24/2009	제주경제 회생위해 관광객전용카지노 필요 제주도민...
74	06/26/2009	도내 모 호텔 카지노 수익원 털려
75	06/29/2009	호텔 카지노 수익원 훔친 30대 구속 함께 범행 부인 등 2명...
76	07/05/2009	내국인 입장시킨 카지노 임원 점유
77	07/17/2009	관광객 카지노 유치 치열 경쟁 예고 경남·전남·부산 ...
78	08/04/2009	아시아 카지노 시장 급성장 예고 4일 관광객전용카지노 ...
79	08/05/2009	관광객카지노 대세라면 선점해야
80	09/02/2009	범도민추진위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촉구 2일 청와대 및 ...
81	10/21/2009	관광객카지노 장관회의서 결론 정부 "검토조차 불가"→"..."
82	10/22/2009	관광객카지노 제도적 보장부터
83	10/30/2009	도심 한복판서 사설 카지노 적발 경찰, 도박개장 등 혐의...
84	11/03/2009	카지노 부정적 이미지 바꿀 것 카지노업관광협회 3일 ...
85	12/01/2009	카지노 게임자금 불법 환전상 징역형 제주지법, 징역 ...
86	12/20/2009	관광객전용카지노 국민공감대 형성 절실 양일용 관광대 교수...
87	12/27/2009	망중한 카지노, 제주관광의 새 성장동력 박영수 ...
88	01/14/2010	관광객카지노 도입 적극 추진 김태환 도지사 ...
89	02/01/2010	카지노 내가 보기엔 좋은 정책
90	04/18/2010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 발주 도 ...
91	04/27/2010	관광객전용카지노 '확실한 검증' 통해 도입 오순금 ...
92	05/31/2010	관광객전용카지노 용역 발주 경제적·인문사회적 타당성 ...
93	06/06/2010	우근민 당선자 관광객카지노 시험대 관광객 전용카지노 용역 ...
94	06/07/2010	용역 착수되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95	06/29/2010	카지노·영리병원 "안돼" 29일 시민·사회단체 인수위 기자회견 ...
96	07/16/2010	내국인 카지노 논란 불씨 남아 관련용역 추진 여부 따라 ...
97	08/10/2010	불법 사설카지노 업주 징역형 제주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98	10/07/2010	세븐력 4년만에 외국인 카지노 시장 점령 지방민간 카지노는...
99	10/11/2010	관광객 전용카지노 용역 재추진 공청회 개최 않기로...향후 논란 ...
100	12/28/2010	관광객 카지노·한라산 케이블카 필요 홍명표 도관광협회장...
101	01/24/2011	관광객카지노 용역 비공개방침 '논란' 도, 최종보고회 개최 않고...
102	02/16/2011	관광객 카지노 용역 비공개, 도민 무시 15일 제주도의회...
103	02/25/2011	내국인전용카지노'약인가독인가'관광활성화'명'-삶의질훼손'암' ...
104	03/31/2011	관광객카지노 논의 중단' 맞나 우지사, 취임후 밝혀...
105	06/21/2011	더호텔·카지노 경매 초읽기 제주지법, 임의경매 개시 결정...
106	06/28/2011	더호텔·카지노 경매기일 변경되나 오개주주연대...
107	07/15/2011	내국인카지노 도입 찬반 팽팽 15일 도민공청회...
108	08/21/2011	"관광객 카지노 글썩요" 도, 설문조사 결과...

109	08/22/2011	관광객 카지노 외면한 도민 설문조사
110	08/31/2011	더호텔·카지노 경매 9월 19일 예정 최저 매각가격 383억→471억원...
111	09/20/2011	더호텔·카지노 첫 경매서 유찰
112	10/10/2011	외국인 전용 카지노 슝통 트이나 작년 8곳 매출 1017억원...
113	11/07/2011	더호텔 외국인 카지노 칩입 퇴거불응 전경영진즉 입건
114	11/24/2011	제주 바닷길 선상카지노 논의 본격화 제주관광공사...
115	12/11/2011	내국인 카지노 포함 사행성 논란 도, 제2차 종합계획안 제출...
116	12/12/2011	논란 이어지는 내국인 카지노
117	01/31/2012	내국인·선상카지노 사전 포석? 도, 올 상반기 카지노위원회 설치...
118	07/22/2012	아이스링크·카지노...없는게 없는 '선상 휴양도시'
119	11/07/2012	중국 카지노 고객을 잡아라 도·관광공사, 의료관광객 유치 위해...
120	11/17/2012	임금채불 카지노 대표 신고유예
121	11/29/2012	중문관광단지내 카지노영업권 다툼 16명 현장체포
122	11/30/2012	중문내 카지노 영업권 놓고 또 다시 충돌
123	12/03/2012	폭력사태 호텔 카지노 "왜 이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124	12/10/2012	경찰 서귀포시 모 호텔 카지노 압수수색
125	12/11/2012	카지노 경영권 놓고 충돌 14명 체포
126	06/24/2021	도내 카지노 업계 바람 잘 날 없네 최근 업체 2곳 압수수색...

놀이 유형과 문화에 관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과에서는 조사실습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놀이 유형과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조사에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의견 하나 하나는 우리 사회 놀이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술적 목적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설문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1995년 5월 일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지도교수: 김석준

학 과 장: 정대연

연락처: 54-2780

** 면접 전에 기록

가) 선생님의 성별은? (1) 남자 () (2) 여자 ()

나) 선생님의 연세는? 만 _____ 세

** 면접 완료후 기록

가) 면접원 이름: _____ 나) 면접원 번호: □ □

다) 면접일시: 1995년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부터 ___ 시 ___ 분까지

라) 면접을 위한 방문 횟수: ___ 회 방문

마) 면접지역: _____ 시(군) _____ 읍(면) _____ 동(리)

1. 평소에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여가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시는 편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를 해주십시오.

하는 정도 여가활동의 종류	자주 한다 1	가끔 한다 2	별로 안한다 3	전혀 안한다 4
1) 수면(30분 이상의 잠)	1	2	3	4
2) 혼자서 술마시기	1	2	3	4
3) 가족과의 대화	1	2	3	4
4) 혼자서 다방가기	1	2	3	4
5) 영화·연극 관람	1	2	3	4
6) 전람회(박물관) 관람	1	2	3	4
7) 스포츠 구경	1	2	3	4
8) 음악감상	1	2	3	4
9) VTR 감상	1	2	3	4
10) 혼자서 하는 운동	1	2	3	4
11) 상대가 있는 운동	1	2	3	4
12) 드라이브	1	2	3	4
13) 유원지(여행) 가기	1	2	3	4
14) 꽃꽂이	1	2	3	4
15) 붓글씨·그림 그리기	1	2	3	4
16) 수석 채취·감상	1	2	3	4
17) 화초기르기	1	2	3	4
18) 애완동물 기르기	1	2	3	4
19) 신문·잡지·책 읽기	1	2	3	4
20) 라디오 청취	1	2	3	4
21) 텔레비전 시청	1	2	3	4
22) 친구·친족과의 교제	1	2	3	4
23) 화투놀이	1	2	3	4
24) 카드 놀이	1	2	3	4
25) 바둑·장기	1	2	3	4
26) 윷놀이(넉동배기)	1	2	3	4
27) 골프	1	2	3	4
28) 당구	1	2	3	4
29) 마작	1	2	3	4

하는 정도 \ 여가활동의 종류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별로 안한다	전혀 안한다
	1	2	3	4
30) 오락실(빠짱꼬) 가기	1	2	3	4
31) 경마 관전	1	2	3	4
32) 볼링	1	2	3	4
33) 컴퓨터 통신(게임)	1	2	3	4
34) 노래방 가기	1	2	3	4
35) 기타 ()	1	2	3	4

2. 선생님은 평일 낮 또는 저녁에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보기>를 보시고 하시는 일에 따라 하는 정도의 번호를 아래의 해당되는 칸에 적어 주십시오.

<보기>

하는 정도 \ 하는 일	항상 한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별로 안한다	전혀 안한다
1) 직업상의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	1	2	3	4	5
2) 집안일(아기보기, 빨래, 집안정리 등)	1	2	3	4	5
3) 앞에 예를 든 여가 활동중 어떤 것	1	2	3	4	5
4) 기타()	1	2	3	4	5

2-1. 평일 낮 : 1) ___ 2) ___ 3) ___ 4) 기타() ___

2-2. 평일 저녁: 1) ___ 2) ___ 3) ___ 4) 기타() ___

3. 선생님은 토요일 낮 또는 저녁에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보기>를 보시고 하시는 일에 따라 하는 정도의 번호를 아래의 해당되는 칸에 적어 주십시오.

<보기>

하는 정도 \ 하는 일	항상 한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별로 안한다	전혀 안한다
1) 직업상의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	1	2	3	4	5
2) 집안일(아기보기, 빨래, 집안정리 등)	1	2	3	4	5
3) 앞에 예를 든 여가 활동중 어떤 것	1	2	3	4	5
4) 기타()	1	2	3	4	5

3-1. 토요일 낮 : 1) ___ 2) ___ 3) ___ 4) 기타() ___

3-2. 토요일 저녁: 1) ___ 2) ___ 3) ___ 4) 기타() ___

4. 선생님은 일요일 낮 또는 저녁에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보기>를 보시고 하시는 일에 따라 하는 정도의 번호를 아래의 해당되는 칸에 적어 주십시오.

<보 기>

하는 일 \ 하는 정도	항상 한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별로 안한다	전혀 안한다
1) 직업상의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	1	2	3	4	5
2) 집안일(아기보기, 빨래, 집안정리 등)	1	2	3	4	5
3) 앞에 예를 든 여가 활동중 어떤 것	1	2	3	4	5
4) 기타()	1	2	3	4	5

4-1. 일요일 낮 : 1) ___ 2) ___ 3) ___ 4) 기타() ___

4-2. 일요일 저녁: 1) ___ 2) ___ 3) ___ 4) 기타() ___

5. 선생님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___ (1) 일하는 시간과 여가시간 모두를 스스로 조정·선택할 수 있다
 ___ (2)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___ (3) 여가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___ (4) 기타()

6. 선생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예문을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O 표를 해주십시오.

예 문 \ 응답의 예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나는 놀이를 하더라도 내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놀이가 좋다	1	2	3	4	5
2) 나는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자주 실패하는 것 같다	1	2	3	4	5
3) 나는 어떤 놀이나 게임에 쉽게 몰두하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개인적으로 여가시간 갖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직접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놀이나 게임을 보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예 문	응답의 예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6) 나는 혼자서 조용히 하는 여가활동을 좋아한다		1	2	3	4	5
7) 나는 무슨 내기를 할 때는 잘 빠지지 않는다		1	2	3	4	5
8) 나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될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극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 만큼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당장에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1	2	3	4	5

7. 선생님은 복권을 구입해본 적이 있습니까?

___(1) 자주 있었다 ___(2) 가끔 있었다 ___(3) 별로 없었다 ___(4) 전혀 없었다

8. 선생님은 주식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1) 자주 있었다 ___(2) 가끔 있었다 ___(3) 별로 없었다 ___(4) 전혀 없었다

9. 선생님은 부동산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1) 자주 있었다 ___(2) 가끔 있었다 ___(3) 별로 없었다 ___(4) 전혀 없었다

10. 선생님이 할 줄 아시는 화투놀이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0-1. 말씀해 주신 할 줄 아시는 화투놀이 방법 중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_____)

11. 선생님이 할 줄 아시는 카드놀이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11-1. 말씀해 주신 할 줄 아시는 카드놀이 방법 중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_____)

12. 선생님이 할 줄 아시는 마작놀이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12-1. 말씀해 주신 할 줄 아시는 마작놀이 방법 중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_____)

13. 선생님이 할 줄 아시는 골프게임이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13-1. 말씀해 주신 할 줄 아시는 골프게임 방법 중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_____)

***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의 설명을 꼭 읽어주십시오. ***

위의 돈내기 놀이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항 17번에서부터 문항 23번까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돈내기 놀이들 모두에 있어 해본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신 분만 문항 24번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항 17번에서 문항 23번까지의 응답은 각 문항별로 제시된 <응답항목 및 번호 보기>를 보시면서 해보신 적이 있는 돈내기 놀이별로 해당되는 란에 응답항목의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7. 돈내기 놀이를 하게 되는 때 (돈을 걸고 하는 경미만 해본 경우는 문 18로 가시오)

<응답항목 및 번호 보기>

때에 따라 하는 정도 하게 되는 때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별로 안한다	전혀 안한다
	1	2	3	4
1) 명절등의 연휴에	1	2	3	4
2) 결혼·문상·제사등 특별한 때	1	2	3	4
3) 친목 모임을 할 때	1	2	3	4
4) 평상시의 평일에	1	2	3	4
5) 평상시의 주말에	1	2	3	4
6) 단체로 여행을 할 때	1	2	3	4
7) 기타()	1	2	3	4

17-1. 돈내기 화투를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 ___

17-2. 돈내기 카드를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 ___

17-3. 돈내기 윷놀이(넉동배기)를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 ___

17-4. 돈내기 바둑을 두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_____) ___

17-5. 돈내기 장기를 두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_____) ___

17-6. 돈내기 마작을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_____) ___

17-7. 노래방에서의 돈내기 점수게임을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_____) ___

17-8. 돈내기 볼링을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_____) ___

17-9. 돈내기 당구를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_____) ___

17-10. 돈내기 골프를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_____) ___

17-11. 돈내기 전자게임(빠징꼬)을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_____) ___

17-12. 기타 돈내기 놀이를 하게 되는 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기타 (_____) ___

18. 돈내기 놀이를 함께 하거나 함께 가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응답항목 및 번호 보기〉

사람에 따라 하는 정도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별로 안함	전혀 안함	해당없음
함께 하는 사람	1	2	3	4	5
1) 혼자서	1	2	3	4	5
2) 가족 및 친족과 함께	1	2	3	4	5
3) 친구와 함께	1	2	3	4	5
4) 친목 모임 사람과 함께	1	2	3	4	5
5) 직장 동료와 함께	1	2	3	4	5
6) 사업상 필요한 사람과 함께	1	2	3	4	5
7) 모르는 사람과 함께	1	2	3	4	5
8) 기타()	1	2	3	4	5

18-1. 돈내기 화투를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 ___

18-2. 돈내기 카드를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 ___

18-3. 돈내기 옷놀이(넉동배기)를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 ___

18-4. 돈내기 바둑을 함께 두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 ___

18-5. 돈내기 장기를 함께 두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

18-6. 돈내기 마작을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

18-7. 노래방에서의 돈내기 점수게임을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__) ___

18-8. 돈내기 볼링을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__) ___

18-9. 돈내기 당구를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__) ___

18-10. 돈내기 골프를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__) ___

18-11. 돈내기 전자게임(빠징꼬)에 함께 가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__) ___

18-12. 돈내기 경마게임에 함께 가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__) ___

18-13. 기타 돈내기 놀이를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___ 6) ___ 7) ___ 8) 기타 (_____) ___

19. 돈내기 놀이를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서 하게 되는 정도

〈응답항목 및 번호 보기〉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하게 되는 이유	자주 한다	가끔 한다	별로 안한다	전혀 안한다
1) 시간을 때우기 위한 심심풀이로	1	2	3	4
2) 돈을 따고 잃을 때의 자극과 흥분을 즐기기 위해	1	2	3	4
3)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수단으로	1	2	3	4
4) 돈을 따기 위해서	1	2	3	4
5) 기타(_____)	1	2	3	4

19-1. 돈내기 화투를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2. 돈내기 카드를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3. 돈내기 윷놀이(낙동배기)를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4. 돈내기 바둑을 두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5. 돈내기 장기를 두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6. 돈내기 마작을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7. 노래방에서의 돈내기 점수게임을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8. 돈내기 볼링을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9. 돈내기 당구를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10. 돈내기 골프를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11. 돈내기 전자게임(빠짱꼬)을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12. 돈내기 경마게임을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19-13. 기타 돈내기 놀이를 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5) 기타 (_____) ___

20. 돈내기 놀이를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서 하게 되는 정도 (단, 경마, 노래방에서의 점수게임, 볼링, 당구, 골프는 이 문항 20에 응답하지 말고 문항 21로 가시오)

<응답항목 및 번호 보기>

하게 되는 장소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자주한다	가끔한다	별로 안한다	전혀 안한다
1) 내집이나 아는 사람 집	1	2	3	4
2) 여관과 호텔(사우나, 안마시술소 포함)	1	2	3	4
3)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특정 장소(하우스 등)	1	2	3	4
4) 기원과 같은 공인된 장소	1	2	3	4
5) 호텔 찜질방	1	2	3	4
6) 전자오락실	1	2	3	4
7) 기타(_____)	1	2	3	4

20-1. 돈내기 화투를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7) 기타 (_____) ___

20-2. 돈내기 카드를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7) 기타 (_____) ___

20-3. 돈내기 웃놀이(넉동배기)를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7) 기타 (_____) ___

20-4. 돈내기 바둑을 두게 되는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7) 기타(_____) ___

20-5. 돈내기 장기를 두게 되는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7) 기타(_____) ___

20-6. 돈내기 마작을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7) 기타(___) ___

20-7. 돈내기 전자게임(빠짱꼬)을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5) ___ 6) ___ 7) 기타(___) ___

20-8. 기타 돈내기 놀이를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하게 되는 정도:

1) ___ 2) ___ 3) ___ 4) ___ 7) 기타(___) ___

21. 돈내기 놀이를 하게 되는 주된 경위를 해보신 적이 있는 돈내기 놀이별로 다음 <보기>의 응답 중 하나만 골라 아래의 해당되는 ()안에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응답항목 및 번호 보기>

하게 되는 주된 경위의 응답의 예와 번호
1)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주선해서 하거나 혼자 한다.
2) 다른 사람이 같이 하자고 권유해서 하게 된다
3)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더라도 어찌다 한번 한다
4) 기타()

- 21-1. 돈내기 화투를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2. 돈내기 카드를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3. 돈내기 윗놀이(넉동배기)를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4. 돈내기 바둑을 두게 되는 주된 경위: ()
- 21-5. 돈내기 장기를 두게 되는 주된 경위: ()
- 21-6. 돈내기 마작을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7. 노래방에서의 돈내기 점수게임을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8. 돈내기 볼링을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9. 돈내기 당구를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10. 돈내기 골프를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11. 돈내기 전자게임(빠짱꼬)을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12. 돈내기 경마게임을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 21-13. 기타 돈내기 놀이를 하게 되는 주된 경위: ()

22. 해보신 적이 있는 돈내기 놀이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장 많이 잃었던 경우가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해보신 적이 있는 돈내기 놀이별로 아래의 ()안에 그 번호를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응답항목 및 번호 보기>

돈을 잃어본 경험의 응답의 예와 번호
1) 돈을 잃어본 경험이 없다.
2) 한달 용돈 정도 또는 그 이하로만 잃어 본 경험이 있다.
3) 한달 생활비 또는 한달 수입에 해당되는 돈을 잃어 본 경험이 있다.
4) 한달 생활비(한달 수입)로도 모자라서 돈을 빌려서까지 잃어 본 경험이 있다.
5) 사업에 필요한 돈도 잃어 본 경험이 있다.
6) 사업비로도 모자라서 돈을 빌려서까지 잃어 본 경험이 있다.
7) 기 타 ()

- 22-1. 돈내기 화투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2. 돈내기 카드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3. 돈내기 옫놀이(넉동배기)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4. 돈내기 바둑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5. 돈내기 장기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6. 돈내기 마작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7. 노래방에서의 돈내기 점수게임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8. 돈내기 볼링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9. 돈내기 당구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10. 돈내기 골프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11. 돈내기 전자게임(빠짱꼬)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12. 돈내기 경마게임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 22-13. 기타 돈내기 놀이에서 돈을 잃어본 경험: ()

23. 해보신 적이 있는 돈내기 놀이에서 돈을 따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장 많이 따본 경우가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해보신 적이 있는 돈내기 놀이별로 아래의 ()안에 그 번호를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응답항목 및 번호 보기>

돈을 따본 경험의 응답의 예와 번호
1) 돈을 따본 경험이 없다.
2) 한달 용돈 정도 또는 그 이하로만 따본 경험이 있을 뿐이다.
3) 한달 생활비 또는 한달 수입에 해당되는 돈을 따본 경험이 있다.
4) 그 이상 따본 경험이 있다.
5) 기 타 ()

- 23-1. 돈내기 화투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2. 돈내기 카드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3. 돈내기 웃놀이(넉동배기)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4. 돈내기 바둑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5. 돈내기 장기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6. 돈내기 마작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7. 노래방에서의 돈내기 점수게임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8. 돈내기 볼링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9. 돈내기 당구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10. 돈내기 골프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11. 돈내기 전자게임(빠징꼬)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12. 돈내기 경마게임에서 돈을 따본 경험: ()
- 23-13. 기타 돈내기 놀이에서 돈을 따본 경험: ()

24. 선생님은 가정에서 겪게되는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O표를 해주십시오.

만족하고 있는 정도 가정에서의 일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1) 경제적 상태	1	2	3	4	5	6
2) 주거 조건	1	2	3	4	5	6
3) 부부 관계	1	2	3	4	5	6
4) 가족들과의 관계	1	2	3	4	5	6
5) 친족들과의 관계	1	2	3	4	5	6
6) 자녀 문제	1	2	3	4	5	6
7) 재산 상속 문제	1	2	3	4	5	6
8) 본인의 건강	1	2	3	4	5	6
9) 가족의 건강	1	2	3	4	5	6
10) 사업 문제	1	2	3	4	5	6

25. 선생님은 현재 생계 유지를 위해 하고 있는 일 또는 직장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부, 학생, 군인(의경, 방위 포함), 무직 등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응답의 예 일·직장에 대한 생각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없음
1) 내가 하는 일 또는 나의 직장 생활은 항상 즐겁다	1	2	3	4	5	6
2) 나는 내가 하는 일 또는 직장 일보다 여가 시간을 더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6
3) 나는 내가 하는 일 또는 직장 일에 대해 지루함을 느낀다	1	2	3	4	5	6
4) 나는 직장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는 편이다	1	2	3	4	5	6
5) 나는 현재의 소득 또는 월급 수준에 만족한다	1	2	3	4	5	6
6) 나는 부채가 많다	1	2	3	4	5	6
7) 나는 직장에 결근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쉬는 때가 많은 편에 속한다	1	2	3	4	5	6
8) 나는 내가 하는 일 또는 직장 일이 내 적성에 맞는다	1	2	3	4	5	6

26. 선생님은 도박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예문을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O 표를 해주십시오.

예 문	응답의 예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1	2	3	4	5
2)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화투나 카드같은 도박 외에는 별로 없다		1	2	3	4	5
3) 사업가나 어떤 사람이 직업상의 일로 사람을 사귀기 위해 하는 돈내기 도박은 허용되어야 한다		1	2	3	4	5
4) 도박을 경찰이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법적인 금지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		1	2	3	4	5
5) 도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민의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1	2	3	4	5
6) 어떤 정도의 도박을 단속·처벌해야 하는지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도박을 금지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7) 돈내기 도박은 어떤 이유에서건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1	2	3	4	5
8) 현재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의 여가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9) 도박을 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가정불화나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이 더 문제이다		1	2	3	4	5
10)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의 사행심만 부추길 것이다		1	2	3	4	5
11)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도박을 특정 지역에서만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여러 모로 좋을 것이다		1	2	3	4	5
12) 도박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를 더 강화해야 한다		1	2	3	4	5
13) 돈내기 도박이라도 해도 좋을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1	2	3	4	5

예 문	응답의 예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4) 도박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15) 카지노처럼 일정한 장소에서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데서는 전혀 못하도록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1	2	3	4	5
16) 오락 수준의 도박은 건전하지만 상습 도박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1	2	3	4	5
17) 도박은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절될 리가 없다		1	2	3	4	5
18) 우리 사회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크다		1	2	3	4	5
19) 경마는 우리 지방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 피해를 끼치는 측면이 많다		1	2	3	4	5

27.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평소에 돈내기 놀이(도박)에 대해서 느끼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8. 특히 제주도의 경우 관광개발과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위해 경마장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카지노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박사건들과 관련하여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29. 끝으로 선생님 자신은 다음의 사항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현재 선생님의 결혼 상태는?

___ (1) 미혼 ___ (2) 기혼 ___ (3) 이혼·별거

2) 선생님은 이 지역(시 또는 읍면)에 거주하신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___년 ___개월

3)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년 ___개월

4) 선생님의 학력은?

___ (1) 무학

___ (2) 국민학교 졸업

___ (3) 중학교(___년) 중퇴

___ (4) 중학교 졸업

___ (5) 고등학교(___년) 중퇴

___ (6) 고등학교 졸업

___ (7) 전문대/초대(___년) 중퇴

___ (8) 전문대/초대 졸업

___ (9) 4년제 대학(___년) 중퇴

___ (10) 4년제 대학 졸업

___ (11) 기타(_____)

5) 선생님의 종교는?

___ (1) 종교 없음

___ (2) 불교

___ (3) 기독교

___ (4) 천주교

___ (5) 기타(_____)

6) 선생님의 고용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___ (1) 여러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이다

___ (2) 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한다

___ (3) 자신 또는 가족이 함께 농장, 상점, 개인택시 등을 운영한다

- ___ (4) 하루 일당으로 생활한다
- ___ (5) 기타(_____)
- 7) 선생님의 직업과 직위는?(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직업 (_____)
- 직위 (_____)
- 8) 선생님의 월 수입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 ___ (1) 수입 없음(부직없는 학생, 주부, 군인, 무직자도 해당)
- ___ (2) 30만원 미만 ___ (3) 30 - 49만원
- ___ (4) 50 - 69만원 ___ (5) 70 - 89만원
- ___ (6) 90 - 119만원 ___ (7) 120 - 149만원
- ___ (8) 150 - 199만원 ___ (9) 200 - 249만원
- ___ (10) 250 - 299만원 ___ (11) 300만원 이상
- 9) 선생님 가족 가운데 선생님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 ___ (1) 예 ___ (2) 아니오 <‘아니오’라고 할 때는 문항 11)로 바로 가시오>
- 10) 선생님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한달에 버는 수입을 모두 합치면 세금 공제 이전에 한달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 ___ (1) 30만원 미만 ___ (2) 30 - 49만원
- ___ (3) 50 - 69만원 ___ (4) 70 - 89만원
- ___ (5) 90 - 119만원 ___ (6) 120 - 149만원
- ___ (7) 150 - 199만원 ___ (8) 200 - 249만원
- ___ (9) 250 - 299만원 ___ (10) 300만원 이상
- 11) 선생님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하류층 ___ (2) 중류층의 하
- ___ (3) 중류층의 상 ___ (4) 상류층

〈부록 4〉 2009년도 사회조사실습 설문지

면접원별 설문지 번호 : ()

설문지 일련 번호 : ()

제주도민의 여가활동과 도박, 카지노에 대한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 000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과에서는 사회조사실습의 일환으로

제주도민의 여가활동과 도박, 카지노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술적 목적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설문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2009년 월 일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지도교수 : 김석준

슈퍼바이저 : 김준표

연락처 : 754-2780

** 면접 전에 기록

가) 응답자의 성별? (1) () 남자 (2) () 여자

나) 응답자의 나이? 만 _____세

1. 선생님은 평소에 다음의 **여가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시는 편입니까?

1) 그냥 쉬거나 잠자기	1	2	3	4
2) 술마시기	1	2	3	4
3) 가족과의 대화나 외식 등	1	2	3	4
4) 음악감상(오디오기기 사용)	1	2	3	4
5) 영화, 연극, 음악회 등 관람	1	2	3	4
6) 전시회(박물관, 식물원)관람	1	2	3	4
7) 스포츠 관람	1	2	3	4
8) 텔레비전, 비디오 보기	1	2	3	4
9) 각종 학습, 배우기	1	2	3	4
10) 걷기 등 혼자서 하는 운동	1	2	3	4
11) 축구 등 상대가 있는 운동	1	2	3	4
12)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등	1	2	3	4
13) 여행 가기	1	2	3	4
14) 수석, 꽃꽂이, 화초 기르기	1	2	3	4
15) 사진, 붓글씨, 그림 그리기	1	2	3	4
16) 종교 활동	1	2	3	4
17) 인터넷 검색, 블로그운영 등	1	2	3	4
18) 온라인 게임	1	2	3	4
19) 신문·잡지 읽기	1	2	3	4
20) 독서	1	2	3	4
21) 애완동물 돌보기	1	2	3	4
22) 친구·친족과의 교체	1	2	3	4
23) 낚시	1	2	3	4
24) 등산, 오름오르기	1	2	3	4
25) 화투놀이	1	2	3	4
26) 카드놀이	1	2	3	4
27) 윷놀이(넉동배기)	1	2	3	4
28) 바둑, 장기	1	2	3	4
29) 마작	1	2	3	4
30) 경마 관전	1	2	3	4
31) 전자게임(PC)장, 오락실가기	1	2	3	4
32) 노래방 가기	1	2	3	4
33) 쇼핑가기	1	2	3	4
34) 오프라인 동호회 등 모임	1	2	3	4
35) 기타 ()	1	2	3	4

5-2. 지난 1년간 복권이나 로또를 구입할 때 **1회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셨습니까?

- ① () 1천원 미만 ② () 1천원 - 5천원 미만
③ () 5천원 - 1만원 미만 ④ () 1만원 - 5만원 미만
⑤ () 5만원 - 1십만원 미만 ⑥ () 1십만원 이상

6. 선생님은 **경마장(장외발매소 또는 전화나 인터넷 구매 포함)**에서 마권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 있다 ② () 없다 ⇨ **문항 7.로 가시오.**

6-1. 우리나라에서 경마는 보통 일주일에 2일 열립니다. 따라서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이틀이 됩니다. 지난 **1년간 마권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셨습니까?

- ① () 주 1일 이상 ② () 월 1, 2일 정도
③ () 3개월에 1, 2일 정도 ④ () 1년에 1, 2일 정도
⑤ () 지난 1년간은 구입 않음 ⇨ **문항 7.로 가시오.**

6-2. 지난 1년간 마권을 구입할 때 **한 경주당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셨습니까?

- ① () 1천원 미만 ② () 1천원 - 5천원 미만
③ () 5천원 - 1만원 미만 ④ () 1만원 - 5만원 미만
⑤ () 5만원 - 1십만원 미만 ⑥ () 1십만원 이상

7.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 해 보았다 ② () 해 본 적이 없다

8. 선생님은 **돈을 걸고 내기(복권 종류 구매 포함)**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 있다 ② () 없다 ⇨ **문항 15.로 가시오.**

9. 다음은 돈을 걸고 하기 쉬운 몇 가지 놀이(복권 종류 구입 포함)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생님이 **지난 1년 동안** 돈을 걸고(돈내기로) 직접 참여 해보신 놀이는 어떤 것입니까?

만일 해 보셨다면 **지난 1년 동안은 몇 회 정도**나 해보셨습니까?

		1	1	1	3	1
				1, 2	1, 2	1, 2
1) 기구를 쓰는 놀이(주사위, 윷, 장기, 바둑 등)	1	2	3	4	5	
2) 패를 쓰는 놀이(카드(트럼프), 화투, 마작 등)	1	2	3	4	5	
3) 기계를 쓰는 놀이(룰렛, 슬롯머신, 파친코 등)	1	2	3	4	5	
4) 추첨을 하는 놀이(복권, 로또, 키노, 빙고 등)	1	2	3	4	5	
5) 관람하는 경기의 승패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등)	1	2	3	4	5	
6) 참여한 경기의 승패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 (골프, 당구, 축구, 농구, 볼링 등)	1	2	3	4	5	
7) 유무선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놀이(인터넷 카지노, 인터넷 고스톱 등)	1	2	3	4	5	
8) 기타()	1	2	3	4	5	

10. 다음의 **경우에** 돈내기 놀이(복권 종류 구입 포함)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돈내기 놀이를 하십니까?

1) 명절 등의 연휴에	1	2	3	4
2) 결혼·문상·제사 등 특별한 때	1	2	3	4
3) 친목 모임을 할 때	1	2	3	4
4) 평상시의 평일에	1	2	3	4
5) 평상시의 주말에	1	2	3	4
6) 단체로 여행을 할 때	1	2	3	4
7) 기타()	1	2	3	4

11. 다음은 왜 돈내기 놀이(복권 종류 구입 포함)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들**을 예시한 것입니다. 각각의 이유에 따라서 돈내기 놀이를 한 적이 있는지요? 한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나 해보셨는지요?

1) 시간을 때우기 위한 심심풀이로	1	2	3	4
2) 돈을 따고 잃을 때의 자극과 흥분을 즐기기 위해	1	2	3	4
3)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수단으로	1	2	3	4
4) 돈을 따기 위해서	1	2	3	4
5) 기타()	1	2	3	4

12. 다음은 돈내기 놀이(복권 종류 구입 포함)를 하게 되는 **장소**를 예로 든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하게 되는 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내 집이나 아는 사람 집처럼 비공식적이지만 친숙한 장소	1	2	3	4
2) 남몰래 할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특정 장소(하우스, 호텔객실 등)	1	2	3	4
3) 경마장이나 카지노, 복권판매소 등 공식적으로 허가된 합법적 장소	1	2	3	4
4) 골프장이나 당구장 등 직접 운동하며 돈내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	1	2	3	4
5) 기타()	1	2	3	4

13. 지난 1년 동안 돈내기 놀이(복권 종류 구입 포함)로 인해 **돈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 가장 많이 잃었던 경우는 다음 중 어느 정도이십니까?

- ① () 돈을 잃어본 경험이 없다.
- ② () 1주일 용돈 정도 또는 그 이하로만 잃어 보았다.
- ③ () 한 달 용돈 정도 또는 그 이하로만 잃어 보았다.
- ④ () 한 달 소득에 해당되는 정도 또는 그 이하로만 잃어 보았다.
- ⑤ () 3개월 소득에 해당되는 정도 또는 그 이하로만 잃어 보았다.
- ⑥ () 1년 소득에 해당되는 정도 또는 그 이하로만 잃어 보았다.
- ⑦ () 1년 소득에 해당되는 돈보다 더 많이 잃어 보았다.

15-4. 제주도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만들어 진다면 제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O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2	3	4	5
2) 제주도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2	3	4	5
3)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1	2	3	4	5
4)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1	2	3	4	5
5) 각종 범죄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1	2	3	4	5
6)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1	2	3	4	5
7)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8) 방문객의 급증으로 사회문화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1	2	3	4	5
9) 도민들의 세금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1	2	3	4	5
10) 기 타 (위에 예시된 것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15-5. 제주도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개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① () 허용에 찬성한다
- ② () 모르겠다
- ③ () 허용에 반대한다

15-6. 만일 제주도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생긴다면 카지노를 방문해 돈을 걸고 게임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 ① () 게임을 해 볼 생각이 있다.
- ② () 모르겠다
- ③ () 게임을 해 볼 생각이 없다

15-7. 만일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생긴다면 **제주도민의 카지노 출입과 이용**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 전혀 출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② () 한 달에 1회로 제한해야 한다
- ③ () 한 달에 2-3회로 제한해야 한다 ④ ()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해야 한다
- ⑤ () 일주일에 2회로 제한해야 한다 ⑥ () 출입제한이 없어야 한다.
- ⑦ () 모르겠다

15-8.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서 **게임에 걸 수 있는 금액(베팅액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 ① () 필요하다고 본다
- ② () 모르겠다
- ③ () 필요없다고 본다

16. 선생님은 **돈내기 놀이 곧 도박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래의 예시를 보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O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1	2	3	4	5
2) 어떤 정도의 도박을 단속 처벌해야 하는지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도박을 금지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3) 도박을 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가정 불화나 다른 사회문제 발생이 더 문제이다.	1	2	3	4	5
4) 돈내기 도박이라도 해도 좋은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1	2	3	4	5
5)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도박이 근절될 리가 없다.	1	2	3	4	5
6) 도박은 다른 여가활동처럼 오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도박을 하면 긍정적 결과보다 부정적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	1	2	3	4	5
8)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일확천금의 사행심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1	2	3	4	5
9)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화투나 카드같은 도박 외에는 별로 없다.	1	2	3	4	5

17. 선생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 중학교 졸업 이하
③ ()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④ () 대학교 졸업 이하
⑤ ()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이상

18.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 불교 ② () 유교 ③ () 기독교(개신교)
④ () 기독교(천주교) ⑤ () 민족종교
⑥ () 기타 : _____ ⑦ () 없다

19. 선생님의 **개인의 월 수입**은 대략 평균 얼마나 됩니까?

- ① () 수입 없음(부직없는 학생, 주부, 무직자도 해당)
② () 50만원 미만 ③ () 50 - 100만원 미만
④ () 100 - 150만원 미만 ⑤ () 150 - 200만원 미만
⑥ () 200 - 250만원 미만 ⑦ () 250 - 300만원 미만
⑧ () 300 - 400만원 미만 ⑨ () 400만원 이상

20.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 선생님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 ① () 예 ② () 아니오 ➡ **문항 22.로 가시오**

21. 선생님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을 모두 합치면 대략 평균 얼마나 됩니까?

- ① () 50만원 미만 ② () 50 - 100만원 미만
③ () 100 - 150만원 미만 ④ () 150 - 200만원 미만
⑤ () 200 - 250만원 미만 ⑥ () 250 - 300만원 미만
⑦ () 300 - 400만원 미만 ⑧ () 400 - 500만원 미만
⑨ () 500 - 1천만원 미만 ⑩ () 1천만원 이상

22. 선생님의 **가족이 생활하는 지역(읍, 면, 동)의 다른 집들**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가족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상의 상층(매우 잘 사는 편) ② () 상의 하층(대체로 잘 사는 편)
③ () 중의 상층(중간에서 약간 잘 사는 편) ④ () 중의 하층(중간에서 약간 못 사는 편)
⑤ () 하의 상층(대체로 못 사는 편) ⑥ () 하의 하층(아주 못 사는 편)

23. **제주도 내의 다른 집들**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가족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상의 상층(매우 잘 사는 편) ② () 상의 하층(대체로 잘 사는 편)
③ () 중의 상층(중간에서 약간 잘 사는 편) ④ () 중의 하층(중간에서 약간 못 사는 편)
⑤ () 하의 상층(대체로 못 사는 편) ⑥ () 하의 하층(아주 못 사는 편)

24. 한국사회 전체로 볼 때 선생님 가족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상의 상층(매우 잘 사는 편) ② () 상의 하층(대체로 잘 사는 편)
- ③ () 중의 상층(중간에서 약간 잘 사는 편) ④ () 중의 하층(중간에서 약간 못 사는 편)
- ⑤ () 하의 상층(대체로 못 사는 편) ⑥ () 하의 하층(아주 못 사는 편)

25. 현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둘 이상이면 선생님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두고 말씀해주십시오.

- ① () 가족 외의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이다
- ② () 나 혼자서 또는 가족끼리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가게나 농사, 개인택시 등의 일을 한다
- ③ () 피고용자이며,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어 있다
- ④ () 피고용자이며, 비정규직으로 임시로 일하고 있다
- ⑤ ()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26. 선생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둘 이상이면 가장 중요한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 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 전문가
- ③ ()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 사무직원
- ⑤ ()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 ⑥ ()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⑦ ()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 ⑧ ()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⑨ () 단순노무직 근로자
- ⑩ () 군인 ⑪ () 주부
- ⑫ () 학생 ⑬ ()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 ⑭ () 무직 ⑮ () 기타 : _____

27. 선생님의 직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둘 이상이면 가장 중요한 직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직업 ()
- ② 직위 ()

***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면접 완료후 기록

가) 면접원 이름: _____

나) 면접원 번호: _____

다) 면접일시: 2009년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부터 ____ 시 ____ 분까지

라) 면접을 위한 방문 횟수: _____ 회 방문

마) 면접지역: _____ 시(군) _____ 읍(면) _____ 동(리)